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한국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의 유의어 교육 연구

- 유의어 변별 기제를 중심으로 -

2020년 0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이 슬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외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에 있어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직관에 가까운 유의어 변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구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어 감정 어휘 교육에서는 '기쁨'와 '슬픔'과 같은 기본적인 감정만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은 소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감정 표현을 넘어서 다양한 감정 어휘들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어휘능력을 갖춰가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한국어 감정 어휘에는 유의어가 많다는 특징에 따라 고급 학습자들은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변별에 혼동을 느끼고 초급 수준의 쉬운 어휘를 사용하는 회피 전략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라도 모어 화자와 같은 다채로운 감정 표현을 하기 어려워진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기본감정에서 나아가 일상생활이나 마케팅 및 문학에서도 자주 쓰이는 '감동' 표현에 주목하였다.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감격스럽다', '벅차다', '뭉클하다', '찡하다', '뿌듯하다' 5개를 선정하여 변별 기제를 탐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고는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어휘 사용자의 사용 양상만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에서 나아가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비교함은 물론 사후 면담을 통해 두 집단의 사용 양상의 차이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고 Ⅱ장에서는 SJ-RIKS 코퍼스 확장판과 SNS에서 추출한 구어체 문어 말뭉치를 활용하여 5개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형태·통사, 의미, 화용적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Ⅱ장을 토대로 하여 Ⅲ장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을 조사한 후, 두 집단의 사용 양상을 양적 통계를 통해 비교 및 분석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와

의 고급 학습자의 사용 양상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고 언어 간 전이, 언어 내 전이, 부정적 의사소통 전략, 교육의 한계를 두 집단의 사용 양상 차이의 원인들로 분류할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두 집단의 사용 양상 차이의 원인을 바탕으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을 설계하였다. 먼저 교육 목표를 세웠고 '뿌듯하다', '벅차다', '뭉클하다', '찡하다', '감격스럽다' 순의 교육 순서를 빈도와 등급 그리고 중심의미를 근거로 위계화 하였다. 더불어 각 유의어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고 몇몇의 의미적 유사성이 아주 높은 어휘 짝들을 변별할 수 있는 비교 내용 또한 도표화하였다. 고급 학습자들이 혼동을 보인 변별 기제의 교육을 위해 인지언어학의 동기화, 의미성분 그리고 문맥 속 상황 맥락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나선형 교육과정의 적용을 통해 학습자들의 의미 확장의 오류를 보완하고 복습 및 심화 학습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어휘 교육의 실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교실 현장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통합교재에 적용한 수업을 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에 맞춤화된 전용 교안 또한 설계하여 어휘 교육을 도모하였다.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전용의 실제 수업안을 구성하기 위해 P-P-P 모형과 O-H-E 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관찰·가설-일반화-연습-생성'의 교수 모형을 제안하였고, 이것은 유의미한 과제와 학습자 중심의 학습 이론을 반영하는 의사소통 중심 접근방법(CLT)을 바탕으로 하였다. 실제 교안은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의 네 가지 기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나선형 교육을 적용하여 선행 학습 내용을 복습 및 심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 감정에서 벗어나 그동안 거의 연구된 바 없는 감동 표현을 주제로 하여 그 유의어들의 변별 기제를 밝혀냈다는 점과 어휘 사용 조사와 더불어 면담을 통해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모어 화자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탐구하여 모어 화자의 직관에 가까운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변별 기제, 연어 관계, 의미성분, 상황 맥락, 중간언어, 어휘 사용, 오류, 언어 동기화, 나선형 교육
학 번: 2018-26447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사 ····· 4
2.1. 국어학·국어교육학에서 감정 어휘 연구 ····· 4
2.2. 한국어교육학에서 감정형용사 연구 ····· 6
3. 연구 방법 및 내용 ····· 11

Ⅱ.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이론적 고찰 ····· 13
1.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의 개념과 유형 ····· 13
1.1. 감정형용사의 개념과 용어 ····· 13
1.2. 감정형용사의 의미 범주와 감동의 개념 ····· 18
1.3.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의 유형 ····· 24
2. 유의어의 유형과 변별 방법 ····· 26
2.1. 유의어의 의미관계 유형 ····· 26
2.2. 유의어의 의미변별 방법 ····· 29
3.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변별 기제 ····· 38
3.1. 형태·통사적 변별 기제 ····· 40
3.1.1. 형태적 분석 ····· 40
3.1.2. 통사적 결합관계 분석 ····· 43
3.1.2.1. 체언 및 용언 결합관계 ····· 43
3.1.2.2. 연어 관계 ····· 48
3.2. 의미적 변별 기제 ····· 51
3.2.1. 사전적 의미 분석 ····· 52
3.2.2. 의미성분 분석 ····· 55
3.3. 화용적 변별 기제 ····· 60
3.3.1. 상황 맥락의 사건 분석 ····· 62
3.3.2. 상황 맥락의 대상 분석 ····· 67

Ⅲ. 한국어 모어 화자와 고급 학습자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 양상 ····· 72
1. 연구의 설계 ····· 73
1.1. 연구 대상 ····· 73
1.1.1. 연구 어휘 선정 ····· 73
1.1.2. 연구 참여자 선정 ····· 78
1.2. 연구 절차 및 방법 ····· 81
2.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 양상 비교·분석 ····· 86
2.1. 통사적 변별 기제의 사용 양상 ····· 89
2.2. 의미적 변별 기제의 사용 양상 ····· 93
2.3. 화용적 변별 기제의 사용 양상 ····· 106
2.3.1. 사건과 대상의 변별 정보 사용 비교 ····· 106
2.3.2. 정도성·격식성·공손성의 변별 정보 사용 비교 ····· 123
3.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 양상 차이 원인 분석 ····· 133
3.1. 언어 간 전이 ····· 135
3.1.1. 동일한 한자어에 의한 의미 오해 ····· 135
3.1.2. 감동 표현 어휘의 일대일 비대응 ····· 136
3.2. 언어 내 전이 ····· 138
3.2.1. 변별 기제 활용의 부족 ····· 139
3.2.2. 잘못된 의미 확장 ····· 144
3.3. 부정적 의사소통 전략 ····· 145
3.4. 교육의 한계 ····· 147

Ⅳ.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교육 설계 ····· 151
1.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목표 ····· 152
2.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내용 ····· 154
2.1. 위계화의 원리에 의한 제시 순서 ····· 155
2.2. 변별 기제 중심의 교육 내용 구성 ····· 157
2.2.1. ‘뿌듯하다’의 교육 내용 ····· 158
2.2.2. ‘벅차다’의 교육 내용 ····· 159

2.2.3. ‘뭉클하다’의 교육 내용 ····· 160
2.2.4. ‘찡하다’의 교육 내용 ····· 162
2.2.5. ‘감격스럽다’의 교육 내용 ····· 163
3.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방법 ····· 166
3.1. 변별 기제 교육을 위한 방법 ····· 166
3.1.1. 언어 동기화의 활용 ····· 166
3.1.2. 의미성분의 활용 ····· 170
3.1.3. 문맥에서의 상황 맥락 활용 ····· 173
3.2. 올바른 의미 확장과 복습·심화학습을 위한 나선형 교육 방법 176
4.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수 모형 및 실제 ····· 180
4.1.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수 모형 ····· 180
4.2.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의 실제 ····· 182
4.2.1. 한국어 통합교재에 적용한 수업의 실제 ····· 183
4.2.2.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을 위한 어휘 수업의 실제 ····· 186

Ⅴ. 결 론 ····· 192

참 고 문 헌 ····· 195
부 록 ····· 203
Abstract ····· 208

표 목 차

<표 1> 국어학·국어교육학에서 감정어휘 연구 ····· 4
<표 2> 한국어 교육학에서 감정형용사 유의어 선행연구 ····· 6
<표 3> 연구 방법 및 절차 내용 요약 ····· 11
<표 4> ‘감정’, ‘심리’, ‘정서’의 사전적 정의 비교 ····· 14
<표 5> ‘감정’, ‘심리’, ‘정서’의 분류 및 구별에 대한 기존 연구 ····· 15
<표 6> 기존 연구의 ‘감정형용사’, ‘심리형용사’, ‘정서형용사’의 정의 16
<표 7> ‘심리형용사’, ‘정서형용사’, ‘감정형용사’의 분류 및 개념과 특징 ····· 17
<표 8> 철학, 심리학, 국어학 및 한국어학 연구에서 기본 감정 ····· 18
<표 9> ‘감동’의 사전적 정의 ····· 20
<표 10> ‘감동’의 개념적 논의 ····· 22
<표 11> 감동 표현 어휘 목록 ····· 24
<표 12> 품사별 감동 표현 어휘 ····· 25
<표 13> 문금현(2004)의 결합 구성 차이에 따른 동사 ‘아끼다’ 유의어 32
<표 14> 강현화(2005)의 ‘슬픔’ 유의어의 통합적 정보 ····· 33
<표 15> 유의어 변별을 위한 화용적 정보에 대한 연구 내용 ····· 34
<표 16> 이소현(2007)의 ‘부끄럽다’ 유의어 변별 기준 ····· 36
<표 17> 서희정(2010)의 ‘아쉽다’군의 상황 제시 정보 ····· 36
<표 18>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SJ-RIKS 코퍼스 확장판 빈도수 ····· 40
<표 19>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형태론적 분석 ····· 42
<표 20> ‘감격스럽다’와 ‘벅차다’의 체언 및 용언 결합관계 ····· 44
<표 21> ‘뭉클하다’와 ‘찡하다’의 체언 및 용언 결합관계 ····· 45
<표 22> ‘뿌듯하다’의 체언 및 용언 결합관계 ····· 46
<표 23>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연어 관계 ····· 50
<표 24>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사전적 의미 ····· 52
<표 25> 의미적 정보의 복합감정 의미성분 변별 기제 ····· 59
<표 26> 화용적 정보의 ‘사건’ 변별 기제 ····· 66

<표 27> 화용적 정보의 '대상' 변별 기제 ····· 70
<표 28> 유의어 사전에서 추출한 '감동-' 유의어 ····· 74
<표 29> 감동 표현 어휘 연구의 어휘 목록에서 선별한 형용사 ····· 76
<표 30>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선정의 1·2차 과정 ····· 76
<표 31>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빈도수와 등급 ····· 77
<표 32>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선정 과정 ····· 78
<표 33> 사용 양상 연구 참여자 정보 ····· 78
<표 34> 사후 심층 면담 참여자 정보 ····· 80
<표 35> 조사 및 면담 절차 ····· 81
<표 36> 문항 구성 정보 ····· 83
<표 37> 유의어 변별성 판단 테스트 문항 ····· 84
<표 38> 사후 면담 내용 ····· 85
<표 39> 사후 면담 참여자별 세부 일정 ····· 86
<표 40> 한국어 모어 화자와 고급 학습자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의 문항별 정확 검정 통계 결과 ····· 87
<표 41> 통사적 변별 정보 문항의 사용 양상 비교 ····· 89
<표 42> 의미적 변별 정보 복합감정의 문항 수 및 번호 ····· 93
<표 43> 의미적 변별 정보 [+자랑스러움]의 문항 사용 양상 비교 ····· 94
<표 44> 의미적 변별 정보 [+감사함]의 문항 사용 양상 비교 ····· 98
<표 45> 의미적 변별 정보 '긍정+긍정'과 '부정+부정'의 복합감정 문항 사용 양상 비교 ····· 99
<표 46> 의미적 변별 정보 '긍정+부정'의 상반된 복합감정 문항 사용 양상 비교 ····· 103
<표 47> 화용적 변별 정보 '사건'의 문항 수 및 번호 ····· 106
<표 48> 화용적 변별 정보 '기대하지 않은 부정적 일의 발생'의 사용 양상 비교 ····· 108
<표 49> 화용적 변별 정보 '기대 이상'의 사용 양상 비교 ····· 109
<표 50> 화용적 변별 정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의 사용 양상 비교 ····· 109
<표 51> 화용적 변별 정보 '대상'의 문항 수 및 번호 ····· 112
<표 52> 화용적 변별 정보 '자신(내적)의 성취'의 사용 양상 비교 ····· 114

<표 53> 화용적 변별 정보 ‘타인(외적)의 성취’의 사용 양상 비교 ····· 115
<표 54> ‘성취’에서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의 변별 정보 세분화 ···· 118
<표 55> 화용적 변별 정보 ‘희생 및 역경’의 사용 양상 비교 ····· 119
<표 56> 화용적 변별 정보 ‘타인의 도움’의 사용 양상 비교 ····· 121
<표 57> ‘감격스럽다’, ‘뭉클하다’, ‘뿌듯하다’, ‘찡하다’의 정도성에 따른 변별 기제 ····· 127
<표 58> ‘감격스럽다’, ‘뭉클하다’, ‘뿌듯하다’의 공손성에 따른 변별 기제 ····· 132
<표 59> 한국어 통합 교재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제시 현황 ····· 148
<표 60> 어휘 학습의 목표(Nation, 2018:637) ····· 153
<표 61> 어휘 교육의 목표(구본관, 2011:35-36) ····· 154
<표 62>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의 목적과 목표 ····· 154
<표 63>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빈도수 ····· 155
<표 64>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제시 및 교수 순서 ····· 157
<표 65> ‘뿌듯하다’의 교육 내용 ····· 158
<표 66> ‘벅차다’의 교육 내용 ····· 159
<표 67> ‘뭉클하다’의 교육 내용 ····· 161
<표 68> ‘찡하다’의 교육 내용 ····· 162
<표 69> ‘뭉클하다’와 ‘찡하다’의 비교 교육 내용 ····· 162
<표 70> ‘감격스럽다’의 교육 내용 ····· 163
<표 71> ‘뿌듯하다’와 ‘감격스럽다’의 비교 교육 내용 ····· 164
<표 72> ‘뿌듯하다’, ‘뭉클하다’, ‘감격스럽다’ 비교 교육 내용 ····· 164
<표 73> 동기화를 활용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연어 관계 교육 방법 ····· 168
<표 74> 동기화를 활용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결합관계 교육 방법 ····· 163
<표 75>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을 위한 의미성분 제시 ····· 171
<표 76> 의미성분 분석을 활용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활동안 ····· 172
<표 77> 문맥에서의 상황 맥락을 활용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방법 ····· 174
<표 78> 문맥에서의 상황 맥락을 활용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활동안 ····· 168
<표 79> ‘벅차다’의 나선형 교육 적용 방안 ····· 179
<표 80> 나선형 교육이 적용된 ‘벅차다’의 심화학습 활동안 ····· 179
<표 81> P-P-P 모형과 O-H-E 모형 절차 및 특징 비교 ····· 181
<표 82> ‘감격스럽다’와 ‘찡하다’의 비교 교육 내용 ····· 184

그 림 목 차

[그림 1] ‘감동’의 유의어 ····· 21
[그림 2] 봉미경(2005:101)의 유의어의 의미관계 유형 ····· 27
[그림 3] 유현경·강현화(2002)의 유의어 관계 양상 ····· 28
[그림 4] 모어 화자와 고급 학습자의 감동 표현 형용사 유의어 사용의 경향 비교 ····· 88
[그림 5] 『서울대 한국어 6A』의 2-1과 어휘 연습 문제 ····· 185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감정은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사회적 소통의 양식이 되어 왔으며(임지룡, 2006:1), 인간은 언어를 도구로 삼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이해하기도 한다. 이처럼 감정은 언어와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에 있으며, 감정 표현 및 이해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은 해당 언어로써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법을 기르는 것일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소통해야 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감정 표현 교육의 필요성은 타당하다. 감정 표현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감정 어휘, 특히 감정형용사의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1]. 한국어 감정형용사는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감정을 표현할 때 다양한 의미 확장이 나타나기도 하고(이지영, 2009:202), 각 상황에서 발현되는 고유 정서를 잘 이해해야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포함하기에(정미지, 2015:336) 이러한 한국어 감정형용사의 특징은 외국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국어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듯 한국어 교육에서 감정형용사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강현화, 2005; 최홍열,2005; 이소현, 2007;, 서희정, 2010; 이미지, 2014; 정미지, 2015; 이효정, 2016; 이숙진, 2018 등).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 특히 선행된 학위논문의 연구들은 인간의 기본 감정의 의미 분류로 볼 수 있는 '기쁨(喜)'과 '슬픔(哀)' 또는 '안타까

1) 감정 어휘 교육은 감정형용사뿐만 아니라 감정동사, 감정명사도 포함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감정형용사에 국한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구본관 외(2015:179)에 따르면 '움직임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의미론적으로 '성질이나 상태'의 자질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 또한 행동보다는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성질 또는 상태에 가까우므로, 형용사와 감정의 이러한 본질이 공통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신은주(2003:46)의 연구에 따르면 국어교과서를 바탕으로 조사된 감정용언에서 형용사는 70%, 동사는 29.6%로 사용빈도 또한 형용사가 동사보다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함을 밝힌다.

움' 및 '아쉬움'의 감정 대한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은 아주 원초적인 소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감정 표현을 넘어서 모어 화자와 같은 풍부한 감정 표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에 주목하였다. 감동의 감정은 기쁨의 정도를 넘어서는 감정[2]으로 철학이나 영화, 문학과 같은 문화생활과도 밀접하고 또한 마케팅 분야에서도 감동은 중심전략으로써 끊임없이 연구되어 왔다(박지혜·안재우,2009:4). 이렇듯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는 한국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의 교육은 생존 한국어 실력을 이미 벗어난 고급학습자들의 수준 높은 학업적 성취 욕구를 채워 줄 뿐만 아니라 폭넓은 한국어 감정 표현을 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윌킨스(Wilkins, 1972)는 언어 학습의 목적은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언급 한 바 있는데, 의사소통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감동 표현은 이러한 상호적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는데, 감동표현은 인간관계에서 서로 이해하는 행위와 관련되며, 다른 무엇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감동을 느낀다(최효정, 2007:1). 이러한 점에서 감동은 언어 학습의 궁극적 목적인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감정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어 감정 표현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한국어 감정형용사에 유의어가 많다는 특징 때문이다(서희정, 2010:31-32). 고급 학습자들은 어휘 사용에 있어서 유의어들의 미세한 어감과 의미 차이를 구별하여 실제 모어 화자처럼 표현하고자 한다.[3] 그러나 모어 화자가 아닌 학습자들에게는 유의어들 간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모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의어들을 만나게 될 때 더욱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또한 여러 유의어들을 포함하는데 학습자들은 통사, 의미, 화용적 측면에 따라 달리 사용되

2) 정미지(2015)에서 감정어휘를 크게 5개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그 중 '기쁨'에 해당 하는 어휘들을 '기쁨1'과 '기쁨2'로 나누었는데 '감동' 어휘를 '기쁨2'로 분류하여 기쁨의 한 종류로 보았다. '감동'의 감정에 대한 논의는 Ⅱ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3) 강현화(2005:44)에서는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들이 중·고급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미 학습한 단어와 유사한 어휘를 학습하게 될 경우, 이전에 학습한 어휘와의 차이를 알고 싶어 한다고 하였다.

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변별에 혼동을 느끼거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초급 수준의 기본어휘[4]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오류를 피하는 회피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라도 모어 화자와 같은 다채로운 감정 표현을 하기 어려워진다. 학습자에게 문법적 오류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중요하나 고급 학습자들은 이제 이를 넘어서서 유의어들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한국어 모어 화자에 가까운 어휘능력을 갖춰가는 단계에 있다고 본다.[5]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유의어들 간의 변별 기제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감동 표현에 있어서 어휘 사용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감격스럽다', '벅차다', '뭉클하다', '뿌듯하다', '찡하다'의 5개를 선정하여 변별 기제를 논의하고,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들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의 사용 양상을 비교 및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방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한다.

첫째,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도출하고 유의어 간의 차이를 탐구하여 정교화 한다.

둘째,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사용 양상과 사용의 이유를 비교·분석하여 두 집단의 사용 차이를 규명하고, 그 원인을 탐색한다.

셋째, 범주화한 두 집단의 사용 양상 차이의 원인을 토대로 하여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방안을 제안한다.

---

4) 유의어들에는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기본어휘가 있다. 예를 들어 '기쁘다'(유의어: 즐겁다, 반갑다, 신나다, 유쾌하다 등)는 '기쁨'을 표현하는 대표 기본어휘이다. (강현화, 2005; 정미지,2015)

5) 마틴(Martin, 1984)은 고급단계로 갈수록 의미적, 문체적, 연어적 오류를 많이 범한다고 지적하며 고급단계로 갈수록 어휘에 대한 학습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강현화, 2005)

2. 연구사

2.1. 국어학·국어교육학에서 감정 어휘 연구

언어학적 관점의 국어학 연구들은 형태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주를 이루었는데, 주격중출문 또는 감정 어휘 구문의 논항과 격틀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국어교육학적으로는 감정 어휘의 구문뿐만 아니라 교육학적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연구나 교육 내용 및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어져 왔다. 검토한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국어학·국어교육학에서 감정어휘 연구

연구자	논문제목
김홍수(1988)	현대국어 심리동사 구문에 대한 연구
김세중(1989)	국어 심리 형용사문의 몇 가지 문제
남지순(1993)	한국어 형용사 구문의 통사적 분류를 위하여 1 - 심리형용사 구문 -
유현경(1997)	심리형용사 구문에 대한 연구
최홍열(2005)	'불쌍하다' 유의어의 의미 고찰
신은주(2008)	국어 감정용언의 양상고찰 -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김영주(2009)	국어 감정 어휘의 습득
차경미(2013)	감정 어휘 교육 내용 연구
안찬원(2014) (2016) (2018)	공기 관계를 이용한 심리형용사 교육 방안 연구 정서의 이해와 표현을 위한 감정 어휘 교육 연구 초등학생 일기에 나타난 심리형용사 사용 양상 연구
최가진(2017)	초등 국어과 감정 표현 지도 방안 연구

국어학·국어교육학에서는 전반적인 감정 어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1900년대의 연구들은 주로 국어 감정어휘[6]의 구문 또는 통사적 구조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홍수(1988), 김세중(1989), 남지순(1993), 유현경(1997) 등이 있다.

6) 1900년대의 연구들에서는 '감정어휘'보다는 '심리동사', '심리형용사'의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감정과 관련한 초기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김흥수(1988)에서는 심리동사 구문의 통사적 양상과 화용적 특징을 분석해 구문의 내적인 관련성을 밝혔다.

김세중(1989)은 현대국어 심리 형용사 구문의 통사구조에 대해 논의하면서 또한 이 심리형용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남지순(1993)에서는 통사적 기준으로 형용사를 분류하였고 심리형용사의 특징을 통해 심리형용사를 정의하는 기준들을 제시하였다.

유현경(1997)은 심리형용사의 통사적 격틀과 의미적 특징을 연구하고, 심리형용사를 대상 심리형용사와 원인 심리형용사로 하위분류하여 그 특징들을 다루었다.

이후 감정 어휘의 구문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면서도(김건희, 2003; 박만규, 2012; 박재휘, 2014; 조경순, 2018 등),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어교육학에서도 감정어휘 및 표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연구들에는 최홍열(2005), 신은주(2008), 김영주(2009), 차경미(2013), 안찬원(2014; 2016; 2018), 최가진(2017) 등이 있다.

신은주(2003)의 연구는 감정용언 판별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감정용언들을 선정하였다. 또 선정된 감정용언들을 형태에 따라 고유어-한자어, 단일어-복합어로 분류하는 연구와 더불어 국어교과서에서 형태 및 품사별 사용빈도를 연구하여 감정용언의 국어교육학적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최홍열(2005)은 형용사 '불쌍하다'의 유의어들 '가엾다', '가련하다', '딱하다', '안쓰럽다', '안타깝다', '안되다', '애처롭다', '측은하다'의 의미자질을 연구하여 의미적 차이를 밝혔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를 참고하여 각 유의어들이 사용된 문맥들을 통해 각 유의어들이 쓰인 상황과 원인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가여움], [슬픔], [가난함], [불편함], [난처함], [한심함], [무능함], [아까움], [외로움], [억눌림]의 10가지의 의미자질을 추출하여 의미 구별을 시도하였다.

김영주(2009)에서는 아동들과 양육자들이 국어 습득 초기에 사용하는 감정 어휘를 분류 및 분석하였고, 다른 언어의 감정 어휘 습득 양상과

비교하였다.

차경미(2013)는 국어 감정 어휘를 의미와 품사로 범주화하였고 국어교육에서 감정 어휘 교육의 의의를 세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여 상세히 논하였다. 또한 교육용 감정 어휘를 선정하고 나아가 국어교육에서 기존에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감정 어휘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안찬원(2014) 연구에서는 심리형용사를 정도부사와 명사와의 공기관계에 따라 분류하였고, 심리형용사를 어휘교육, 문장교육, 표현교육에 활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안찬원(2016)은 정서의 개념을 논의하고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정서 교육 관련 내용이 미흡함을 언급하면서, 국어교육에서 감정 어휘교육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감정 어휘 교육의 방법도 제안하였다. 안찬원(2018)의 논의에서는 초등학생의 일기문에 나타난 심리형용사의 사용 양상을 연구하였는데, 몇 가지 심리 형용사만 반복해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유의어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가진(2017)에서는 국어 감정 표현의 유형과 의미범주를 선정하고 목록화 하였다. 특히 국어 감정 표현을 명시적 표현과 암시적 표현으로 크게 나누고, 학생들의 글을 분석하여 연구에서 제시한 맥락화의 원리, 위계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 그리고 정교화의 원리를 적용하여 국어 감정 표현의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2.2. 한국어교육학에서 감정형용사 연구

한국어교육에서의 감정형용사 연구들은 대부분 감정형용사의 유의어에 관한 연구들과 교육을 위한 감정형용사의 선정과 분류, 그리고 한국어 감정 표현에 관한 것으로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 명사 등 전반적 표현 양상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어 교육학에서 감정형용사 유의어 선행연구

연구자	논문 제목
강현화(2005)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감정 기초형용사의 유의관계 변별 기제 연구 - 기쁨·슬픔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통합관계를 중심으로 -
이소현(2007)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형용사 '부끄럽다'의 유의어 의미 변별의 기초 연구 및 지도방안 - '부끄럽다, 창피하다, 수줍다, 수치스럽다'를 중심으로-
이지영(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감정 표현 연구
서희정(2010)	한국어 교육에서 감정형용사의 제시 방안 - '아쉽다', '안타깝다', '아깝다', '섭섭하다', '서운하다'를 중심으로-
김일환 외(2012)	형용사 유의어의 공기어 네트워크와 활용 - '안타깝다'류의 형용사를 중심으로 -
이미지(2014)	말뭉치 분석을 활용한 감정 표현 어휘 교육 연구 - '아쉽다', '섭섭하다', '아깝다'를 중심으로-
정미지(2015)	유의관계에 있는 감정형용사의 변별 양상에 대한 연구 - 한국어 고급 학습자와 모국어화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효정(2016)	한국어 감정 어휘의 교육 방안 연구: 유의어 '외롭다, 쓸쓸하다, 고독하다'의 교육 정보 구축을 중심으로
이숙진(2018)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감정형용사 선정과 분류

외국어 학습자들은 고급 단계로 올라갈수록 양적 어휘 능력보다 질적 어휘 능력[7]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된다. 그들은 모어 화자와 같은 표현과 어휘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유의어를 변별하는 것은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모어 화자와 같은 어휘 선택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감정형용사의 유의어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그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감정형용사 유의어에 대한 초기 연구로 강현화(2005) 등의 연구가 있다. 강현화(2005)에서는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통합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특히 통합적 관계 정

7) 김광해(1993:305-306, 310)에서는 어휘력은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의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언어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 어휘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가'를 양적 능력으로, 어휘와 관련한 의미, 용법에 관한 이해 및 구사 능력(이해의 깊이)을 질적 능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보의 활용이 변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임을 강조하며 말뭉치를 활용하여 통합적 관계의 변별 기제를 파악하였다. 나아가 유의관계의 어휘빈도와 교수순서 및 교실활동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유의어의 결합구성 또는 통합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의미 변별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실제적인 사용례를 볼 수 있는 상황 및 맥락적 의미 변별에 대해 논의가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초기의 연구가 유의어의 변별에 있어 실제적인 상황 맥락적 분석이 없었다는 한계에 따라 이후 이소현(2007), 서희정(2010), 이미지(2014), 정미지(2015)의 연구들이 사용 및 상황 맥락 그리고 대상에 따라 유의어 변별 기제의 마련을 시도하였다.

이소현(2007)은 한국어 교재에서 유의어에 대해 뜻만 제시하고 사용상황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부끄럽다'의 유의어 '창피하다', '쑥스럽다', '수줍다', '수치스럽다'의 의미 변별을 위한 사용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상황에 있어 긍정과 부정의 상황으로 나누었고 부끄러움에 대한 요인을 내적과 외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사물', '사람', '사실' 3가지의 대상과 시간의 지속성에 따라서도 차이점을 밝혔다. 더불어 사용상황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을 고려한 효과적인 어휘 제시 순서 방안과 각 유의어들의 지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서희정(2010)은 한국어 교재 및 말뭉치를 통해 '아쉽다'의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용례를 먼저 살펴본 후, 사용상황과 통합관계를 귀납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각 유의어의 사용빈도와 다른 유의어로의 교체 빈도 및 교체 불가 비율을 정리하여 유의 관계의 인접한 정도를 제시하였고, '아쉽다'군의 교육에 있어 참고할 자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일환 외 (2012)에서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연구방법으로 유의어들과 공기어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연구적 성과가 보인다. 물결 21 코퍼스를 통해 '안타깝다'류의 유의어 '가엾다, 딱하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안쓰럽다'가 사용된 상황 맥락을 추출하고, 공기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공기어 10개를 뽑아 유사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재의 예문을 통해 그 유의어들의 공기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미지(2014)는 ‘아쉽다’, ‘섭섭하다’, ‘아깝다’를 대상으로 하여 감정형용사, 감정동사, 감정동사구를 포함한 한국어 감정 표현 어휘 정보를 사용맥락 중심으로 분석하여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세종 말뭉치를 활용하여 사용 맥락을 분석하였으며, 이때 감정을 느끼는 원인과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더불어 각 유의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상황을 빈도별로 정리하였으며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쉽다’의 상황적 의미와 예문도 제안하였다.

이소현(2007), 서희정(2010), 김일환 외(2012), 이미지(2014)의 연구는 유의어들이 쓰이는 실제적인 상황과 맥락을 활용하여 의미변별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로 보이나 활용한 용례들이 문어에 한정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정미지(2015)는 ‘희’, ‘노’, ‘애’, ‘락’으로 감정형용사를 분류하여 각 항목별 어휘를 선정하고,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들이 유의어 선택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유의어 변별 양상에 있어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가 더 선호하는 감정형용사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 점에서 긍정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으나, 유의어들이 쓰인 전형적 상황의 문장을 만들 때 사전만을 참고하여 모어 화자의 직관을 완전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왜’ 선택했는지에 관한 어휘 선택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효정(2016)의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나타내는 유의어 ‘외롭다’, ‘쓸쓸하다’, ‘고독하다’를 선정하여 말뭉치 자료를 통해 빈도와 통사정보를 연구하고 이를 이미지화하여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유의어 교육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습자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학습자들의 유의어 학습 방법을 조사하고 선호하는 유의어 교육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 감정 유의어들의 특징을 반영한 이미지화가 교육에 효과적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미지(2015)와 이효정(2016)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조사를 통해 외국

인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 부분은 유의미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미지(2015)에서 학습자의 어휘선택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이효정(2016) 또한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방법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한편, 유의어 이외에도 감정형용사 관련 한국어교육 연구들에는 이지영(2009), 이숙진(2018) 등의 연구가 있다.

이지영(2009)은 다양한 감정 표현의 결합 양상을 탐구하였는데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 명사 그리고 은유나 환유 표현도 포함하였다. 한국어 감정 표현을 제1유형에서 3유형까지 나누어 분류하였고 나아가 한국어 감정 표현 교육 내용과 방법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숙진(2018)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감정형용사 목록을 선정하고 각 감정의 의미범주를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의 방법은 논의하지 않았다.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한국어 교육에서의 감정형용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한국어의 감정형용사에는 유의어가 많이 존재한다는 언어적 특성에 따라 감정형용사의 유의어 연구가 중점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둘째, 이에 따라 주로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밝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분석에 있어서 대부분 문어적 용례에 그쳐 구어적 예문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

셋째, 위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선행된 학위논문의 연구들은 ‘기쁨’과 ‘슬픔’류의 기초적인 감정이나 ‘섭섭함’ 및 ‘아쉬움’의 감정 등 몇몇의 특정 감정 대한 연구에 편중되거나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학습자들에게 모어 화자와 같은 유의어의 선택은 중요한 문제인데 그에 관련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한국어 사용자인 학습자에 대한 연구들도 설문조사에만 그쳐 선택의 이유나 오류의 이유들을 상세히 다루지 못했다.

위의 특징들은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으로 남아있으며,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문어와 더불어 구어체 용례 추출을 시도

할 것이며, 연구에 있어서 조사와 면담으로 이루어진 방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내용

선행연구들이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변별 기제를 제시하는 데 그치거나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단순히 비교하였다는 한계에서 나아가, 본 연구는 면담을 통해 '왜' 해당 어휘를 선택하였는지 어휘 사용의 이유를 파악하여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 차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모어 화자와는 다른 어휘 사용을 하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을 연구하기 위한 본 연구의 방법과 절차 내용을 아래의 <표 3>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표 3> 연구 방법 및 절차 내용 요약

논문 목차	하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Ⅱ.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이론적 고찰	감정형용사와 감동의 개념	-문헌 고찰 -말뭉치 분석
	유의어 변별 방법 고찰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변별 기제	
Ⅲ. 한국어 모어 화자와 고급 학습자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 양상	연구 어휘 및 참여자 선정	-문헌 및 유의어 사전 고찰 -유의어 변별 및 사용조사 실시 -양적 통계 분석 -사후 면담 실시 -한국어 통합 교재 검토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 양상 비교 및 분석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사용 양상 차이 원인 분류 및 분석	
Ⅳ.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교육 목표 설정	-분석 결과 및 문헌 연구 고찰
	교육 내용 구성	

유의어의 교육 설계	교육 방법 구성	
	교수 모형 및 실제 수업 제안	

우선,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한국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연구를 위한 이론 배경과 개념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것의 하위 내용으로 감정형용사 및 '감동'의 감정 개념과 유의어 변별 방법을 검토한다.

또한, 문헌 및 유의어 대사전을 고찰하여 연구 대상이 될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를 선정하고, 문어 및 구어체 문어 말뭉치로부터 문장을 추출하여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변별 기제를 통사, 의미, 화용적 측면에서 설정하고자 한다.

이후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 양상 조사 및 사후 면담을 실시할 것이다. 두 집단의 사용 양상의 차이를 밝히는 데 있어서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변별 기제의 사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양적 통계 분석을 활용하여 정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면밀한 사후 면담을 통해 사용 양상뿐만 아니라 사용의 이유 및 원인에 대해서도 깊이 탐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 조사는 일반적인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외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여 두 집단의 사용 양상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사용 양상 차이의 원인을 토대로 하여 외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변별 능력 향상과 유의어 사용의 다양화를 위한 교육을 설계할 것이다.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교육 설계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교육의 실제성을 바탕으로 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의 실제 수업을 구성할 것이다.

Ⅱ.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이론적 고찰

1.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의 개념과 유형

감정형용사의 용어 고찰을 통해 감정형용사의 개념을 재고하고 감정형용사의 의미범주에서의 '감동'의 개념을 탐구할 것이다. 더불어 감동을 표현하는 어휘들을 고찰함으로써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세우고자 한다.

1.1. 감정형용사의 개념과 용어

감정에 대한 국어학 및 한국어학의 연구에서는 용어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다. 이는 외국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의어로 나타나거나 감정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여 각 연구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어학 및 한국어학의 연구에서 감정형용사의 용어로 쓰이는 심리형용사, 정서형용사의 개념을 살펴보고 각 용어의 구분과 관련성을 검토하여 용어를 재고하겠다.

우선 '감정', '심리', '정서'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8)]

8)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제공하는 검색을 활용하였다.

<표 4> ‘감정’, ‘심리’, ‘정서’의 사전적 정의 비교

어휘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감정(感情)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① (사물에 대하여) 마음에 일어나는 느낌. ② 슬픔, 기쁨, 좋음, 싫음 따위의 심리상태. ③ 외부의 사실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반응.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대하여 느끼어 나타나는 심정이나 기분.
심리(心理)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	마음의 움직임이나 의식의 상태.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
정서(情緖)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	①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방향과 흐름을 이루게 된 감정. ② 기쁨, 노여움, 슬픔, 사랑, 미움과 같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감정.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그 구체적인 양태를 규정하는 내면의 기질적 요인.

사전적 정의를 정리해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일이나 현상에 의해 마음이 움직이고 일어남’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심리’는 ‘마음의 상태’, ‘정서’는 ‘분위기’ 또는 ‘기질’로도 볼 수 있으며, ‘감정’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고 정서는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풀이에서 대조됨을 볼 수 있다(Huanglianmei, 2019:12 참조). 그러나 사전에서 설명하는 정의를 가지고 세 용어의 차이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에서 각 용어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국어 형용사의 의미 또는 분류에 관한 연구들과 감정의 어휘에 대한 연구에서 ‘감정(형용사)’, ‘심리(형용사)’, ‘정서(형용사)’의 구별 및 분류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감정’, ‘심리’, ‘정서’의 분류 및 구별에 대한 기존 연구

김흥수(1988)	‘감각’이나 ‘감정’은 심리영역 일부에 제한되며 ‘심리’는 특정 현상이나 국면에 제한되지 않고 전 심리 현상을 포괄한다.
신순자(1996)	성상형용사에 심리형용사가 속하고, 감정형용사는 심리형용사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감정형용사는 심리형용사의 일종이다.
김정남 (2001, 2005)	정서형용사는 심리형용사의 하위 부류로 볼 수 있다.
고정희(2010)	‘정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지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인 개념이며 ‘정서’는 감정 가운데 고차원적인 것이다. (차경미, 2013:15 재인용)
차경미(2013)	‘정서’는 ‘감정’보다 고차원적이고 유기적이다. ‘사고’, ‘감정’, ‘감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심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안찬원(2016)	‘정서’가 지속적인 성향이나 경향을 의미하는 반면, ‘감정’은 ‘정서’에 비해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숙진(2018)	‘감정’은 마음과 기분에 대한 것이라면, ‘심리’는 마음의 작용은 물론 사물에 대한 분별과 판단의 의미까지 담고 있으며, ‘정서’는 감정과 기분에 상황과 환경까지를 포함하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황련미 (Huanglianmei, 2019)	‘감정’은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비의도적 반응이며, ‘심리’는 의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먼저, 위의 연구들에서 각 용어에 대한 분류를 살펴보면 ‘심리’는 ‘감정’과 ‘정서’를 포함한 더 큰 범위를 포괄하고, 이에 따라 감정형용사와 정서형용사를 심리형용사의 하위분류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미적으로 ‘정서’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더 고차원적인 문화 또는 환경의 의미를 가진다. 의도의 여부에 따라 ‘심리’는 의도적이고 ‘감정’은 비의도적임을 나타내고, ‘정서’는 지속적인 경향 또는 성향을 의미하며, ‘감정’은 일시적이다. 더불어 ‘심리’는 마음의 작용에 사물에 대한 분별과

판단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의미적으로도 마음과 기분을 나타내는 '감정'의 상위 개념으로 보인다.

다음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감정형용사', '심리형용사', '정서형용사'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6> 기존 연구의 '감정형용사', '심리형용사', '정서형용사'의 정의

심리형용사	김세중(1989)	어떤 사태에 대한 사람의 감정을 담는 말로 주체 중심인지 대상 중심인지에 따라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서술어를 가지는 형용사.
	남지순(1993)	보문 문항에 의해 유발되고 인물 명사에 의해 경험되는 심리적 상태를 표상하는 형용사.
	유현경 (1997; 1998)	경험주의 심리 상태를 서술하는 형용사로 자신의 논항에 경험주와 대상의 의미역을 할당하는 두 자리 서술어.
	김건희(2003)	어떠한 심리 상태의 경험과 그러한 심리상태를 유발하는 원인 논항을 취하는 형용사.
	이정목(2008)	어떠한 자극에 대한 인간의 정신적, 감정적 반응을 묘사한 용언.
	김자랑(2013)	외부 자극에 의해 경험되는 감정적, 정신적 반응이 마음이나 의식에 나타나는 상태를 묘사한 용언
감정형용사	김정현(2007)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과 감각을 나타내는 것.
	김채현(2017)	외부에 의해 느끼는 기분 및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용언.
	이숙진(2018)	감정은 마음과 기분에 대한 것이며 감정형용사는 1인칭 주어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한혜정(2018)	외부의 자극에 의해 경험주의 마음에 나타나는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
	황련미(2019)	내부 또는 외부 자극에 의한 경험주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정서형용사	김정남 (2001, 2005)	인간의 심리 혹은 정서 상태를 나타내는 비상관적 형용사[9].

9) 김정남(2005:105)에서 말하는 비상관적 형용사는 형용사가 어떤 대상의 상태나 특징

검토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의미적으로 ‘감정형용사’와 ‘심리형용사’는 외부 또는 내부의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마음이나 기분을 표현한다면, ‘정서형용사’는 다른 대상과 관련 없이 단독적이고 절대적으로 표현되는 심리 혹은 정서를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하였다. 또한 ‘감정형용사’가 마음과 기분을 나타내는 형용사라면, ‘심리형용사’는 감정의 상위 개념인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로 보고 있다. <표 5>와 <표 6>의 내용을 종합해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심리형용사’, ‘정서형용사’, ‘감정형용사’의 분류 및 개념과 특징

성상형용사	심리형용사	‘사고’, ‘감정’, ‘감각’을 포함하며, 마음의 작용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의미하고 의도성을 가짐.
	∨ 정서형용사 ∨	‘감정’과 ‘기분’에 ‘상황’, ‘성향(경향)’, ‘환경’, ‘분위기’의 의미까지 포함하며 ‘고차원적인 감정’과 ‘문화’의 개념을 가지며 ‘지속성’을 가짐.
	감정형용사	‘마음’과 ‘기분’을 나타내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며 ‘자연스러움’과 ‘비의도성’ 그리고 ‘일시성’을 가짐.

‘심리형용사’는 ‘감정형용사’와 ‘정서형용사’의 상위 개념으로 ‘기분’과 ‘마음’뿐만 아니라 ‘사고’, ‘감정’, ‘감각’을 포함한 ‘사물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나타내고, ‘정서형용사’는 ‘감정’과 ‘기분’에 ‘상황’과 ‘환경’이 더해진 의미를 표현하며 ‘문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서형용사’는 의미적으로 ‘감정형용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마음’과 ‘기분’을 표현하며 문화적인 성향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나 ‘사물에 대한 분별’보다는 개인의 ‘마음’과 ‘기분’을 표현하는 ‘감정형용사’가 본 연구의 논의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고는 ‘감정형용사’를 ‘자극에 의한 일시적인 개인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등을 기술할 때, 그 대상 자체에 대해서 다른 대상과의 관련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술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정서나 감각을 단지 하나의 대상에 국한해서만 표현하고 다른 대상과의 관련성이나 관계 의미 등은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1.2. 감정형용사의 의미 범주와 감동의 개념

이숙진(2018:480)에서는 감정형용사를 의미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해당 어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게 하고, 어휘 확장을 하게함으로써 효과적인 감정형용사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감정형용사는 동양 철학의 칠정(七情)[10]이나 서양 심리학의 여덟 가지 정서[11]와 같이 표현이 가능한 다양한 감정의 종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주제 감정인 '감동'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기본 감정의 의미범주를 철학, 심리학, 국어학 및 한국어학의 각 연구 분야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철학, 심리학, 국어학 및 한국어학 연구에서 기본 감정

철학	공자(孔子)	희(喜), 노(努), 애(哀), 구(懼), 애(愛), 오(惡)욕(慾)[12]
	데카르트(Descartes)	기쁨, 증오, 슬픔, 욕망, 사랑, 감탄 (김경희, 2004)
	스피노자(Spinoza)	기쁨, 비애, 욕망 (김경희, 2004)
심리학	플러칙 (Plutchik, 1962, 1980)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수용, 혐오, 예기(예상), 놀라움 (Plutchik, 2003 재인용)
	김경희(2004)	기쁨, 흥미, 분노, 슬픔, 공포-불안, 사랑, 혐오, 놀람, 우울, 수줍음, 죄책감
국어 및 한국	김정현(2007)	기쁨, 슬픔, 좋음, 싫음, 부끄러움.
	김은영(2009)	동정, 수치심,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좋아함, 싫어함, 바람
	차경미(2013)	기쁨, 사랑, 안정, 감동, 괴로움, 슬픔, 화, 미움, 놀람, 두려움, 걱정, 부끄러움, 바람, 외로움
	정미지(2015)	기쁨1, 기쁨2(감동), 화남, 슬픔, 즐거움

10) 칠정(七情)의 종류는 중국의 경전마다 다른데, 공자(孔子)의『예기(禮記)』에서는 감정을 '희(喜)', '노(努)',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慾)'으로 나누고, 이 일곱 가지를 경험하는 일은 배우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이는 기본 감정이 본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차경미, 2013:22; 정유진, 2019:131).

11) 플러칙(Plutchik, 1962, 1980)에서는 일차적 정서로 '두려움', '노여움', '슬픔', '기쁨', '수용', '혐오', '예기(예상)', '놀라움'의 여덟 가지를 제안하였다(Plutchik, 2003:120).

어학	안찬원(2016)	기쁘다, 화나다, 슬프다, 좋다, 싫다, 무섭다, 놀라다, 부끄럽다.

종합해볼 때, 기본 감정은 크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통적으로 기쁨(즐거움), 슬픔, 분노(화, 노여움), 혐오(미움, 싫다), 두려움(공포-불안)의 감정이 기본 감정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철학의 연구에서는 '욕망'을 기본 감정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심리학에서는 '놀라움'을 기본 감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어학 및 한국어학의 연구에서는 '기쁨'과 '감동(기쁨2)', '즐거움' 등 유사한 표현의 감정들이 세분화되어 기본감정에 함께 분류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의 측면에서 어휘 학습자들에게 포괄적인 감정 종류의 설정보다는 세분화된 감정 종류의 설정이 어휘의 이해와 표현의 측면에서 유의미하다(차경미, 2013:23)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정미지(2015)에서는 '감동'을 기쁨의 또 다른 종류로서 '기쁨' 가운데 '감동하다'와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어휘들을 '기쁨2(감동)'으로 분류하였다. 차경미(2013)의 연구는 기본 감정을 분류할 때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1차로 선정된 기본 감정 '기쁨', '사랑', '괴로움', '화', '슬픔', '놀람', '두려움', '미움', '부끄러움'의 감정들과 구별되는 감정들을 추가하여 그 중 하나인 '감동'을 포함하여 기본 감정을 최종적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은 '기쁨'의 감정과 유사해 보이나 구별되는 '감동'의 감정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감동'의 어원은 '감즉동(感卽動)'으로 '느끼고(感)', 즉(卽), '움직이다(動)'는 뜻을 가진다(최효정, 2007:17). 다양한 학문에서 '감동'에 관한 의미적 개념을 논하였는데 이를 살펴보기 전에 '감동'에 대한 사전적 개념을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12) 공자(孔子)의 『예기(禮記)』(차경미, 2013:22; 정유진, 2019: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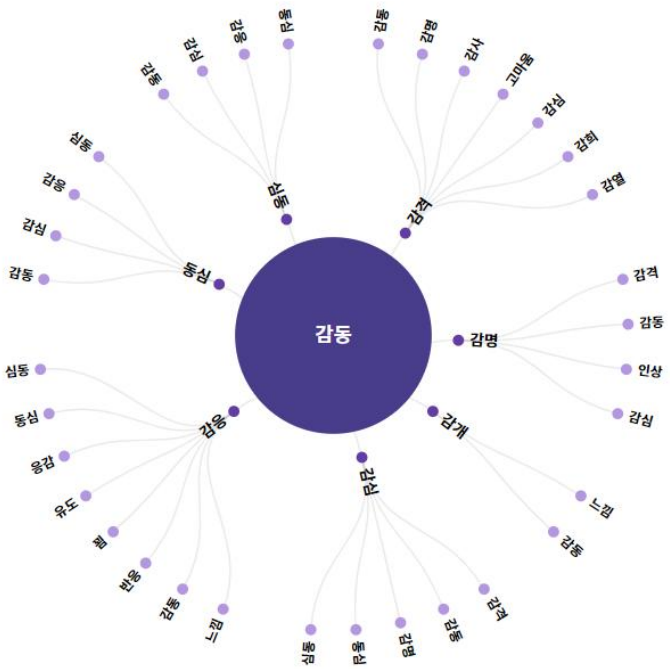
<표 9> ‘감동’의 사전적 정의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감동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임.	강하게 느끼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사전적 정의를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다’와 ‘움직임(변화)’의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크게’, ‘깊이’, ‘강하게’의 표현과 같이 큰 정도의 자극을 경험하여 마음이 움직인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느끼고 마음이 움직이는 부분은 앞서 검토한 감정의 의미와 일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전적인 정의만으로 감동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또 ‘마음이 움직인 것’이 부정적인 의미인지 긍정적인 의미인지 알 수 없기에 먼저, 감동의 유의어를 살펴봄으로써 메타언어를 통한 감동의 개념 및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다음은 유의어 대사전[13]에서 검색한 감동의 유의어들이다.

13) (주)낱말, 유의어 대사전(https://natmal.com)을 참고하였다.



[그림 1] ‘감동’의 유의어

[그림 1]과 같이 감동의 유의어로는 ‘심동’, ‘동심’, ‘감응’, ‘감심’, ‘감개’, ‘감명’ 그리고 ‘감격’이 있다. 각 유의어 모두 한자어이기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는 뜻과 한자를 풀이하여 의미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심동(心動)’과 ‘동심(動心)’은 감동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진다. ‘감응(感應)’은 ‘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라 움직임’의 뜻이 있고, ‘감심(感心)’은 ‘마음 속 깊이 느낌’ 또는 ‘그렇게 감동되어 마음이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감개(感慨)’는 ‘어떤 감동이나 느낌이 마음 깊은 곳에서 배어나옴, 또는 그 감동이나 느낌’의 정의를 갖는데, ‘감개(感慨)’의 한자 ‘개(慨)’는 ‘슬퍼하다’, ‘탄식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를 보아 ‘감동’의 감정에는 ‘슬픔’이나 ‘감탄’ 또는 ‘탄식’의 감정도 포함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14] ‘감명(感銘)’의 ‘명

(銘)'이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는 것처럼 사전에서 또한 '감격하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또는 그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마음에 새기다'라는 표현은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것으로 감정의 '지속성'이 있음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격(感激)'은 '마음에 깊이 느끼어 크게 감동함, 또는 그 감동'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감격(感激)'의 '격(激)'은 '정도가 지나침'의 의미를 가지는 한자이다. 이 한자의 의미에서 미루어보아 '감동'의 감정은 '정도와 기준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감정'이라는 것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의어의 메타언어를 통해 살펴본 감동은 '지속성을 가지는 깊은 마음의 움직임'이며 '일정한 기준을 뛰어넘는 그 이상(以上)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감동의 감정은 철학, 심리학, 문학, 마케팅의 분야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다음은 각 학문에서 다각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감동의 개념적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0> '감동'의 개념적 논의

철학	J.폴켈트 (Johannes Volkelt)	감동은 미적 대상에 의해 우리의 생명 감정이 억압되고 약화되는 경우와, 그것에 의해 생명감정이 신선하게 고양되는 경우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쾌 불쾌의 감정이 혼합된 심리 상태라고 한다. (두산백과사전)
	H.코엔 (Hermann Cohen)	상대적 감정의 단계를 넘어 쾌·불쾌·동경과 만족의 통일, 내적 조화에 이른 '순수 감정'의 표현. (두산백과사전)
심리학	플러칙 (Plutchik, 1980)	감동의 감정 그 자체가 기쁨(joy)과 놀라움(surprise)의 조합인 이차적 감정(secondary emotion)이다(손보경, 2009:19).
	왓슨과 클라크와 텔레전 (Watson & Clark & Tellegen, 1985)	감동은 환기(arousal)과 즐거움(pleasantness)의 조합(박지혜 외, 2009:7).

14) '감동'의 여러 가지 복합감정에 대해서는 차후 더 상세히 다룰 것이다.

마케팅	올리버와 위너 (Oliver & Winer, 1987)	감동(delight)은 만족이 극대화된 상태와는 차별화되며 주로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일치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감동을 경험하게 된다(손보경, 2009:20).
	패터슨 (Paterson, 1997)	감동(delight)은 고객이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야기할 수 있다(박지혜 외, 2009:5).
문학	국어교육학 사전(1999)	감동은 문학 작품이 이를 읽은 독자를 변화시킨다는 효용론적 관점에서 변화의 주요 매개가 되는 정서(최효정, 2007:20).
	이강은(1994)	감동은 소설의 제재들이 상황 속에서 서사의 축척을 통해 치밀하게 동기화될 때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며 독자의 경험, 지적태도, 지위에 따라 감동의 양상이 달라진다.

감동에 대한 철학의 관점을 정리하면, '쾌'와 '불쾌', 즉 긍정과 부정적 감정의 혼합이며, 일반적인 감정을 넘어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혼합 감정을 '이차적 감정(secondary emotion)'이라고 하면서 감동에 대한 혼합 감정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기쁨'과 '놀라움'의 조합 또는 '환기'와 '즐거움'의 조합으로 감동의 감정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delight'를 감동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고객 감동을 'delight', 즉 '큰 기쁨' 또는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마케팅의 연구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고객에게 감동(delight)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과 연결하여 감동을 설명하며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족을 줌으로써 생기는 감정이라고 정의한다.

문학에서 또한 감동의 감정은 중요하다. 문학 작품을 읽은 후의 독자의 변화에 있어서 매개가 되는 것을 감동이라고 하였고, 독자의 여러 가지 변인에 따라 감동의 양상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앞서 유의어를 통해 살펴본 감동의 개념 및 특징에 있어서 '마음속에 새겨질 정도의 감정'이라는 '지속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문학 작품(일종의 자극)을 읽은 후, 독자의 변인에 따라 정도는 다르겠으나 독자의 마음 속 변화와

길게 남는 여운과 같은 감정이 감동이 아닐까 생각된다.

각 학문의 감동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긍정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발생하는 변화와 지속성을 가진 혼합 감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3.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의 유형

‘감동’을 표현하는 어휘를 목록화한 논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감정 어휘의 선행연구들은 ‘기쁨’, ‘슬픔’과 같은 기본감정에 국한하여 논의되었다. 감동 표현의 어휘를 기술한 연구들이 많지 않았으나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었다.

<표 11> 감동 표현 어휘 목록

연구자	감동 표현 어휘
김응모(2002)	감동되다, 선감하다, 예감하다, 촉발하다, 감천하다, 감도되다, 고조되다, 놀라다, 감송되다, 감명하다, 감탄하다, 찬탄하다, 권설하다, 삼탄하다, 감격하다, 동인하다, 감심하다, 감복하다, 탄복하다, 감분(感憤)하다, 감분(感奮)하다, 감기하다, 감발하다
김은영(2009)	감개무량하다, 감격스럽다, 감격하다, 감동하다, 감명되다, 감복하다, 감탄하다, 감흥일다, 경탄하다, 뭉클하다, 벅차다, 열광하다, 전율하다, 찡하다, 탄복하다
차경미(2013)	감개무량하다, 감개하다, 감격무지하다, 감격하다, 감동하다, 감명적, 감복하다, 감사하다, 감읍하다, 감지덕지하다, 감탄하다
정미지(2015)	벅차다, 뭉클하다, 감격스럽다, 뿌듯하다, 찡하다

김응모(2002)의 연구는 정서 자동사의 분절구조를 고찰하는 연구로 ‘감동’의 감정을 ‘감동의 생성’, ‘어떤 원인에 의해 감동’, ‘감탄성’, ‘감동을 행위로 표출’의 4가지로 분류하여 감동 자동사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감동의 내용은 모두 바람직한 긍정적인 내용이며 어종별로 살펴보면 한자어가 22개(95.6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고유어는 ‘놀라다’ 하나뿐이라고 하였다.

김은영(2009)에서는 감정의 범주 중 '좋아함(愛)'의 감정을 어떤 사태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 상태가 내포된 감정이라고 하면서 '감동'은 '좋아함'의 의미를 갖고 이에 속하는 감정이라고 하였다.

차경미(2013)의 연구에서 선정한 감정 군별 어휘들은 특정 형태소를 공유하는 양상을 갖는다고 하면서 '감동'의 감정 군의 어휘들은 '감동'의 한자 '느낄 감(感)'을 공유한다고 하였다. 또한 '감동'은 '기쁨'과 유사한 감정을 나타내고 주로 '감사, 감명, 감탄'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정미지(2015)에서는 감동의 어휘를 기쁨의 한 종류(기쁨2)로 분류하였고 감동의 일차어휘[15]인 '감동적이다'는 목록에서 제외하였는데 기초어휘와 유의관계에 있으면서 더 세분화된 의미를 가지는 어휘 항목의 변별 양상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감동 표현 어휘들은 크게 동사 또는 형용사의 품사를 갖고 있는데 본 연구는 감정형용사를 주제로 상정하였으므로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어휘들을 품사별로 정리하고자 한다.[16]

<표 12> 품사별 감동 표현 어휘

품사	감동 표현 어휘
형용사	감개무량하다, 감격스럽다, 뭉클하다, 벅차다, 찡하다, 감격무지하다, 감사하다01, 뿌듯하다
동사	감동되다, 선감하다, 예감하다, 촉발하다, 감천하다, 감도되다, 고조되다, 놀라다, 감송되다, 감명하다, 감탄하다, 찬탄하다, 권설하다, 삼탄하다, 감격하다, 동인하다, 감심하다, 감복하다, 탄복하다, 감분(感憤)하다, 감분(感奮)하다, 감기하다, 감발하다, 감명되다, 경탄하다, 열광하다, 전율하다, 감개하다, 감동하다,

15) 정미지(2015:339-340)는 일차어휘는 기본어휘라고도 불리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휘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즉, 일차어휘란 동일한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어휘 중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의미를 지니는 어휘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강현화(2005:48-49)에 따르면 일차어휘와 비교하여 이차어휘는 기본 어휘에 의미 근간을 두나 더 세분화되거나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휘이다. 예를 들어 '슬픔' 관련 어휘 중 '슬프다'는 일차어휘이고 '서럽다, 서글프다, 우울하다' 등은 이차어휘에 해당한다.

16) 김은영(2009)에서는 포괄적 의미의 '동사' 개념을 인정하여 '감정동사'는 감정형용사까지 포괄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감정형용사를 연구 주제로 상정한 바, 동사와 형용사의 품사는 분명히 다르다고 간주하므로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한 품사를 기준으로 하여 감동 표현 어휘를 분류하였다.

	감사하다02, 감읍하다, 감지덕지하다
그 외 품사[17]	감흥일다, 감명적

품사 별로 보면 동사가 32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 형용사가 8개로 그 뒤를 이었다. 감동 표현 동사는 '놀라다' 외에 모두 한자어로 나타난 반면 감동 표현 형용사는 '감개무량하다', '감격스럽다', '감격무지하다', '감사하다01', 의 한자어 외에도 '뭉클하다', '벅차다', '찡하다'와 같이 어휘 중 절반이 고유어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감동 표현 어휘를 살펴보았다. 품사별로 정리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들을 토대로 본고의 연구 대상 어휘를 Ⅲ장에서 선정할 것이다.

2. 유의어의 유형과 변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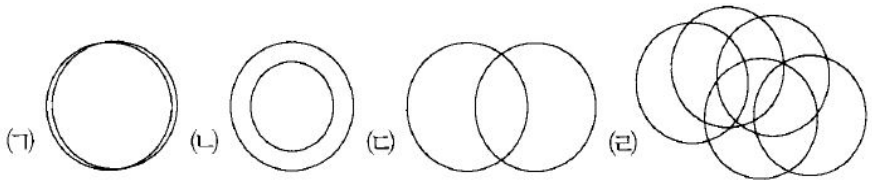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유의어의 의미관계 유형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어 학습자에게 교육해야할 유의어 유형의 범위 문제에 대해 고찰해본다. 더불어 유의어의 의미 변별 방법들을 탐구하고 이를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도출하는 이론적 토대로 삼고자 한다.

2.1. 유의어의 의미관계 유형

의미관계의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나이다(Nida, 1976:17-20)는 의미론적으로 서로 밀접한 어휘들을 포함 관계, 중첩 관계, 상보 관계, 연접 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중 상보 관계는 반의어에 해당하고, 포함 관계, 중첩 관계, 연접 관계는 유의어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나이다(Nida, 1976)의 분류에 더하여 봉미경(2005:101)의 연구에서는 거의 동일한 일치의 유의관계까지 포함하여 네

17)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감흥일다'의 품사는 제시하지 않고 '감흥이 일다'의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감명적'은 관형사와 명사로 표기되어 있다.

가지 형태의 유의어의 의미론적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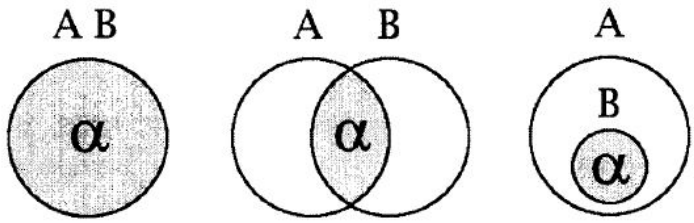
[그림 2] 봉미경(2005:101)의 유의어의 의미관계 유형

봉미경(2005:101-102)에 따르면, (ㄱ)[18]의 경우는 의미 영역이 거의 동일한 일치의 유의관계로 '맏아들-큰아들', '사거리-네거리' 등의 어휘쌍이 해당된다고 하였다. (ㄴ)은 한 어휘의 의미가 더 넓은 범위를 가지는 포함(inclusion)의 유의관계 유형으로 '약하다- 취약하다'를 예로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약하다'가 구조나 능력에 대해서만 쓰이는 '취약하다'[19]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다. (ㄷ)은 중첩(overlapping)의 유의관계로 의미가 일부 겹치는 유형이다. 이 경우에는 두 어휘가 모두 대치되어 쓰일 수 있는 맥락과 어느 한 쪽만이 쓰일 수 있는 맥락이 있다. 예를 들어 '옳다'와 '바르다'에서 '옳은/바른 일'은 두 어휘가 모두 가능하나 '바르게 그리다', '네 말이 옳다'의 경우는 각각의 어휘가 대체될 수 없다. (ㄹ)은 공통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한 상위어의 하위관계를 이루는 어휘들인 연접(contiguity)관계를 나타낸다. 연접관계의 예로 '역/정류장/공항', '(피아노를) 치다/(바이올린을) 켜다/(피리를) 불다' 등이 있는데, 이 어휘들은 서로 대치되어 사용될 수 있는 유의관계는 아니나 의미의 공통성을 지니면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혼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유의관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봉미경(2005)의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좀 더 넓은 범위의 유의어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18) 봉미경(2005:102)은 (ㄱ)에서 의미 차이는 거의 없으나 어휘빈도 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ㄱ)의 그림에 약간의 틈을 두었다고 언급하였다.
19) 예) 경쟁력이 약하다/취약하다

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현경·강현화(2002)에서는 유의어의 관계 양상을 완전 동의관계, 중첩관계 그리고 포함 관계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림 3] 유현경·강현화(2002)의 유의어 관계 양상

첫 번째 그림은 내연적으로나 내포적으로 일치하는 동의어로 학습에 어려움이 없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의 경우, 각각 중첩관계와 포함관계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어려움을 주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유의어의 관계 양상에 따라 유현경·강현화(2002:245)에서는 유의어를 의미적으로 중첩되거나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어휘로 정의하면서 완전 일치 동의어와 부분 동의어인 중첩과 포함의 관계까지 유의어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연구들과 같이 유의어의 의미관계는 의미가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관계뿐만 아니라 상·하위 관계와 의미적으로 포괄하는 포함관계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유의어의 의미관계 유형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어디까지 유의어로 간주하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다. 문금현(2004:67)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어휘에 대해 모어화자와 외국인 학습자의 계열관계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어휘관계의 차이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기에 엄밀히 말하면 상하관계인 단어의 쌍들이 학습자들에게는 유의어 쌍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20] 이에 따라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유의어의 범위는 모

20) 예를 들어 '추억:기억', '청첩장:초대장'의 단어 쌍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이를 유의관계로 보지 않고 상하관계로 쉽게 구분할 수 있으나 외국인들에게는 이 차이가 분명하지 않아서 유의어 쌍이 될 수 있다(문금현, 2004:67).

어 화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달리 좀 더 폭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어휘의 관계 인식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의어는 더 넓은 범위의 개념과 유형을 포괄해야 하며, 단어 쌍의 미세한 차이를 변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2. 유의어의 의미변별 방법

어휘를 양적으로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 많은 어휘 중 하나를 선택해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질적 어휘' 능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김광해(1993:312-313)에서는 어휘소들이 고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어휘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어휘의 유의관계와 같은 의미관계를 학습하는 것이 어휘 질적 능력[21]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내이션(Nation, 2018:98-99)은 단어를 안다는 것은 단어의 문법 구조 및 공기 관계에 관한 지식까지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또한 어휘 능력은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 요소를 포함해야 비로소 어휘 능력을 갖췄음을 뜻한다. 학습자의 어휘 질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어휘의 의미관계 중에서도 특히 유의어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의어가 많은 한국어의 특성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필수적으로 유의어를 학습해야 하지만 모어 화자가 아닌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유의어들 간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직관이 없으므로 혼동을 겪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유의어들을 비교하고 그 의미를 변별하는 것은 유의어 연구의 중심과제이면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핵심적인 방법이다(봉미경, 2005:99).

가장 전형적인 유의어 변별 방법으로는 교체검증(Substitution Test), 배(Componential Analysis method), 결합제약검증(Selectional Restriction & collocation)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울만(Ullmann, 1962), 임

21) 각주 7 참고

지룡(1992), 봉미경(2005)등이 있다.[22]

교체검증(substitution test)[23]은 문맥 속에서 한 어휘소를 다른 어휘소로 바꾸어 보는 방법이다(임지룡, 1992:141; Ullmann, 1962:143-145). 교체검증은 문맥에 따라 대치 가능한 여부가 달라지거나 내포적 의미의 차이가 발견될 때 유의어를 변별할 수 있는 의미 차이를 찾아낼 수 있다(봉미경, 2005:103).

(1)[24] ㄱ. 작은 규모로/*크기로 시작된 모금 운동
ㄴ. 손바닥만 한 *규모의/크기의 인형

그러나 교체검증은 직관이 없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가 '크기'와 '규모'를 유의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각 단어가 어떤 어휘와 문맥에 어울리는지 혼자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배열검증(Arrange est)은 동의성의 정도가 모호한 어휘소들을 하나의 계열로 배열하는 방법이다. 정도성의 차이에 따라 관련된 어휘소들을 하나의 선 위에 배열하게 되면 의미 차이가 드러난다(임지룡, 1992:142-143 ;Ullmann, 1962:143-145).

(2)[25] ㄱ. 큼지막하다-크다-커다랗다-거대하다.
ㄴ. 실개천-개울-시내-내-하천-강-대하

이 방법은 형용사 유의어의 조어적인 특성에 따라 형태적 관계에 따른 유의어의 유형을 확인하게 하지만(봉미경, 2002:104), 정도성을 가지는 유의어군에만 효과적이며, 정도성이 낮은 유의어 쌍에 적용되기 어려운

---

22) 교체검증(Substitution Test), 배열검증(Arrange Test), 대립검증(Opposite Test)은 울만(Ullmann, 1962)과 임지룡(1992)의 연구에서 제시하였으며, 봉미경(2005)에서는 의미성분 분석(Componential Analysis Method), 결합제약 검증(Selectional Restriction & collocation)의 변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23) 봉미경(2005:103)에서는 '대치검증', 박재남(2002:61)에서는 '치환검증'이라고 하였다
24) 박재남 (2002:64) 참조.
25) 임지룡(1992:142), 봉미경(2005:104)의 예문 참조.

한계를 지닌다.

대립검증(opposite test)[26]은 동의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대립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맑다-깨끗하다'의 경우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데, 대립관계에 있는 '흐리다/더럽다'를 대비시키면 '맑은 물-흐린 물', '깨끗한 물-더러운 물'에서 볼 수 있듯이 차이가 드러난다(임지룡, 1992:142; Ullmann, 1962:143-145). 대립관계를 통해서는 의미차이를 뚜렷이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모든 단어들이 명확한 대립어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박재남, 2002:61), 유의어의 미세한 의미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명확한 대립어까지 찾아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의미성분 분석법(Componential Analysis method)은 주어진 하나의 어휘에서 의미성분들을 추출해내는 것으로, 어휘의 의미를 구분하는 데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변별이 되는 어휘의 의미성분을 의미 원소(semantic prime)으로 나타낼 수 있다[27](박재남, 2002:61; 봉미경, 2005:103-104). 예를 들어 '밥-진지', '선생-스승'의 경우, '진지'와 '스승'은 [+공손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결합제약검증(Selectional Restriction & Collocation)은 봉미경(2005:105-16)에 따르면 어휘들이 결합하여 문장을 이룰 때 주어진 위치에서 공기할 수 있는 어휘의 제약을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결합하는 어휘의 의미자질을 나타내는 선택제약(Selectional Restriction)과 어휘 항목들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공기 관계인 연어(Collocation)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문금현(2004)와 강현화(2005) 등이 있다.

문금현(2004:80-81)에서는 결합 구성에 따른 의미 변별 학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결합 구성을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비교 단어가 공통적으로 모두 결합 가능한 구성은 '전 항목 공통 결합 구성'이라고 하고, 비교 단어가 세 개 이상인 경우 두 단어가 공통되는 경우는 '부분 공통 결합

26) 박재남(2002), 봉미경(2005)에서는 '반의검증'이라고 하였다.

27) 임지룡(1992:59)에서는 의미원소로 의미성분을 나타내는 것을 성분정의(componential definition)이라고 하면서, 성분은 [ ]속에 넣고, '+/-' 기호로 된 양분법을 표시하여 나타낸다고 하였다. '성인 남자'의 경우 [+MALE], 그리고 상보관계에 있는 다른 쪽을 [-FEMALE]로 나타내고, 같은 원리로 [+ADULT][-YOUNG]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구성', 그리고 각 단어가 독립적으로 변별 구성을 갖는 경우 '변별 결합 구성'이라고 하였다. 특히 이 변별 구성이 상보적 분포를 보이면 가장 큰 변별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표 13> 문금현(2004)의 결합 구성 차이에 따른 동사 '아끼다' 유의어

<table>
<tr><th>동사류</th><th>변별 의미</th><th>변별 결합구성</th><th>부분 공통
결합 구성</th><th>전 항목 공통
결합 구성</th></tr>
<tr><td>아끼다</td><td>어떤 대상을
귀하게
여긴다는
추상적인
의미를 포함</td><td>가장~/몹시~/
끔찍이~/
생명처럼~</td><td rowspan="2">돈을~/
시간을~/
경비를~</td><td rowspan="4">~살다</td></tr>
<tr><td>절약하다</td><td rowspan="3">-</td><td>에너지를~</td></tr>
<tr><td>검소하다</td><td>~한
생활/밥상/
옷차림</td><td>-</td></tr>
<tr><td>알뜰하다</td><td>살림을 ~게
잘하다/
~한 살림/주부</td><td>-</td></tr>
</table>

<표 13>[28]은 문금현(2004)의 연구에서 동사 유의어 '아끼다', '절약하다', '검소하다', '알뜰하다'의 결합 구성의 차이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변별 결합구성, 부분 공통 및 전 항목 공통 결합 구성으로 나누어 유의어 간의 관계 양상과 포함 중첩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변별 결합구성' 부분인데, 문금현(200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유의어들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독립적 변별 구성이기 때문이다. 이 변별 결합 구성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유의어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현화(2005)의 연구에서도 사전이나 병렬 말뭉치를 활용한 대조는 의미 변별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통합적 관계 정보의 활용이 변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28) 문금현(2004:83)의 연구에서 일부 발췌하였다.

<표 14> 강현화(2005)의 '슬픔' 유의어의 통합적 정보

슬픔	~체언	부사~	~용언	굳은 표현
슬프다	얼굴, 이야기, 일, 표정, 때, 모양, 장면, 영화, 역사, 노래, 전설, 음악	유난히도, 그토록 아주, 무척	슬프게 울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애석하다	애석한 일	정말, 참	애석하게 생각하다, 여기다	애석하게도
애처롭다	애처로운 사연, 소식, 울음소리, 모습	정말	애처롭게 울다, 느끼다, 생각하다, 부르다	애처롭기 짝이 없다./ 애처로운 모습
애타다	마음, 호소, 사랑	-	-	애통한 마음

<표 14>[29]또한 어휘 간의 결합을 정리한 강현화(2005)의 연구이다. 강현화(2005:56)는 같은 유의어군에 속해도 어울리는 어휘는 각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의어를 변별 제시할 때 통합적 관계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굳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고정적인 표현들은 모어 화자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모어 화자와 같은 한국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각 어휘마다 다른 굳은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의어의 변별 기제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위와 같은 연구들은 '결합구성', '통합관계(통합적 정보)', '공기관계[30]' 등의 용어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문금현(2004), 봉미경(2005), 강현화(2005)의 연구들과 같이 각 유의어와 다른 어휘 간 결합관계를 변별 기제로 제시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의어 변별에 있어서 '화용적 정보'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통합관계 및 결합구성의 공기관계를 바탕으로 유의어들이 사용된 담화와 문장의 맥락 및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다. 변별 방법이 되는 화용적

29) 강현화(2005:56-57)의 연구에서 일부 발췌하였다.
30) 김일환 외(2012)에서 '공기관계'로 연구하였다.

정보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31] 같다.

<표 15> 유의어 변별을 위한 화용적 정보에 대한 연구 내용

연구자	화용적 정보 종류	화용적 정보 세부 내용
김광해(1999)	상황·화용적 조건	주제, 상황, 관점, 목적, 대상
유현경·강현화(2002)	화용적 유사관계[32]	지역에 따른 방언에 의한 유사관계 사회계층 간의 방언에 의한 유사관계 성별에 의한 유사관계 연령에 의한 유사관계 존비관계에 의한 유사관계 문체적 변이에 의한 유사관계 금기에 의한 유사관계
봉미경(2005)	문체적 및 화용적 의미차이[33]	입말과 글말, 격식과 비격식 존비관계의 차이 연령별 어휘사용의 차이 어휘의 완곡성
김선영·전후민(2010)	화용적 정보의 유형[34]	대화 참여자 요인(화자의 속성 및 관계) 대화 장면 요인(시간적 및 공간적 정보) 대화 내용 요인(주제) 대화 방식 요인(문체) 대화 의도 요인(태도, 방식 등 표현효과)

31) 기존의 연구들에서 용어가 다르게 쓰였으나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화용적 정보의 내용은 대체로 같음을 알 수 있다. 주제(또는 계층)는 일상어와 전문어, 문체(문체적 변이)는 구어체와 문어체(입말과 글말), 화자의 속성에는 연령, 성별 등의 계층에 따른 차이, 화·청자의 관계에는 높임말과 낮춤말, 시간적 정보는 고어(古語)와 신어(新語), 공간적 정보는 방언, 태도 및 방식에는 속어와 완곡어 등을 포함한다.

32) 지역 방언에 따른 유의어로 '옥수수-강냉이', 연령에 따른 유의어로는 '밥-맘마', 존비관계에 따른 유의어에는 '밥-진지', 문체적 변이에 따른 유의어로 '매우-되게', 금기에 의한 유의어로는 '죽다-돌아가시다' 등이 있다(유현경·강현화, 2002).

33) 봉미경(2005:122)에서는 입말과 입말체는 구별하되, 입말체와 비격식적 문체, 글말체와 격식적 문체는 비슷한 개념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예시로 '춥다-한랭하다'를 들었고, 존비 관계의 차이로는 '아프다-편찮다', 연령별 어휘 사용의 차이는 '배고프다-시장하다'를 예로 들었다. '시장하다'는 점잖은 색채를 더하기에 중년 이상의 대상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34) 대화 참여자 요인의 예로 '과자-까까(통용어와 어린이 말)', '우리-저희(예사말과 높임말)', 대화 장면 요인으로는 '초등학교-국민학교(현재어와 이전 말)', 대화 내용 요인에서는 '갈비뼈-늑골(일상어와 전문어)', 대화 방식 요인의 예로 '피-혈액(구어와 문어)', '대화 의도 요인'의 예로는 '.아버지-아빠(일반어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말)' 등을 제시하였다(김선영·전후민, 2010).

이러한 화용적 정보가 유의어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차이가 있으며,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함에 따라 다른 어휘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나 나이, 성별, 지위, 문맥 상황 등에 대한 화용론적 정보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가 된다(문금현, 2000:33).

한편, 유의어 변별에서 화용적 정보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위의 기준이 모든 유의어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옛말과 현재말의 경우 최근의 과거가 언제까지인가 하는 것이 편찬자의 직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문어와 구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어휘가 문어 또는 구어에서 많이 쓰이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편찬자의 직관에 의존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김선영·전후민, 2010:64).[35] 예를 들어 '부끄럽다', '창피하다', '쑥스럽다', '수줍다'의 경우 모어 화자들이 자주 쓰는 유의어지만 방언이나 문체적 차이, 시·공간적 차이 등 위에서 제시된 화용적 정보를 토대로 변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유의어가 사용된 앞뒤의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변별 기제를 제시한 연구들이 등장했는데, 이소현(2007), 서희정(2010), 이미지(2014) 등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다.[36] 이 연구들은 각 유의어군의 용례 통해 앞뒤 상황 맥락을 분석하고 변별 기제를 체계화 하였는데, 공통적으로 '사용상황'이라는 화용적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각 유의어군에 따라 맞춰진 변별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변별 방법은 각 유의어군에 따라 개별화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논의된 화용적 정보의 변별이 모든 유의어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화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소현(2007)의 연구에서는 '부끄럽다'의 유의어 '창피하다', '쑥스럽다',

35) 김선영·전후민(2010:64)은 연구의 한계점에 있어서 유형화한 기준에 따라 유의어를 분류함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객관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36) 이 밖에도 이미지(2014), 정미지(2015)에서 각 유의어에 맞춰진 변별 기제를 연구하였다.

‘수줍다’, ‘수치스럽다’의 변별에 있어서 상황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었고 부끄러움에 대한 요인을 내적과 외적으로 분류하여 <표 16>[37]과 같은 변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16> 이소현(2007)의 ‘부끄럽다’ 유의어 변별 기준

	단어	상황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			내적-외적 부끄러움	지속성
			사물, 사실	일의 전제 (자신과 관련된)	성격		
부끄럽다	창피하다	긍정적 상황<부정적 상황	O	O	X	내적<외적	X
	수치스럽다	긍정적 상황<부정적 상황	△	O	X	내적>외적	?
	수줍다	긍정적 상황> 부정적 상황	X	X	O	내적>외적	O
	쑥쓰럽다	긍정적 상황>부정적 상황	△	O	X	내적<외적	X

서희정(2010)은 ‘아쉽다’의 감정형용사 유의어 ‘아쉽다’, ‘안타깝다’, ‘아깝다’, ‘섭섭하다’, ‘서운하다’의 변별 정보를 연구하였는데, 용례를 통한 사용상황을 귀납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쉽다’군의 상황 맥락은 ‘기대에 못 미침’, ‘사라짐’, ‘하고 싶은데 못함’, ‘타인의 슬픔 공유’, ‘부족함’, ‘귀중함’으로 분류된다. 다음은 서희정(2010)의 연구에서 일부 발췌하여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37) 이소현(2007:134)에서 발췌하였으며, 형용사 ‘부끄럽다’의 경우 모든 경우에 사용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표 17> 서희정(2010)의 '아쉽다'군의 상황 제시 정보

	아쉽다	안타깝다	아깝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기대에 못 미침	O	O	O	O	O
사라짐	O	O	X	O	O
하고 싶은데 못함	O	O	O	O	O
타인의 슬픔 공유	X	O	X	X	X
부족함	O	X	X	X	X
귀중함	X	X	O	X	X

두 연구 모두 사용 환경, 상황 맥락의 화용적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기존에 제시된 화용적 정보의 기준이 아닌 '부끄럽다'와 '아쉽다'의 각 유의어군이 사용된 각기 다른 상황 및 환경에 맞추어 변별 기제를 도출하고, 유형별로 범주화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아쉽다', '섭섭하다', '아깝다'의 사용맥락을 연구한 이미지(2014)[38]에서는 분석 절차에 있어 감정이 발생하는 '원인'과 '결과'에 초점을 두고 그에 따라 맥락을 유형화하여 분류한 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상황과 맥락이라는 화용적 정보를 이용하고 있지만 감정 발생의 '원인'과 감정을 느끼는 '대상'을 변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화용적 정보 변별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의어를 구별하는 방법들은 각기 다른 한계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가지 방법보다는 이제까지 검토한 유의어 변별 방법들의 장점과 한계점에 따라 여러 방법을 혼합하여 변별 기제를 도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변별 기제의 설정에 있어서 통합관계 및 결합구성, 의미자질 그리고 원인과 대상의 상황 및 맥락 변별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38) 정미지(2014)에서는 '아쉽다', '섭섭하다', '아깝다'의 유의어군의 원인으로 '부족함', '기대/계획대로 안 됨', '헤어짐/사라짐', '소홀한 대접/관계', '가치 있는 것의 사용/낭비', '가치 있는 것을 버림/줌', '가치를 활용 못함, 인정 못 받음' 등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맥락을 제시하였다.

3.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변별 기제

어휘들의 유의관계 활용은 어휘장을 확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며, 다양한 의미차이를 지니는 유의어 중에서 문맥에 보다 적합한 단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어휘 능력을 신장시킨다. 유의어 사이의 유의미한 의미 차이를 정교하게 변별해내기 위해서는 각 단어들이 갖고 있는 개념적 의미, 주제적 의미, 연상적 의미 등 여러 의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며 연어 관계, 용법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다(민현식 외, 2019:127).

김광해(1999:608)에서는 형용사 유의어는 명사류나 동사류와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변별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주장하면서 형용사 유의어는 외연(extension)[39]을 뚜렷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술하기 위해서 유의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들을 모아놓고 비교하는 것은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김광해, 1999:606).

위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의 유의어를 대상으로 크게 형태·통사, 의미, 화용의 세 가지 관점에서 변별 기제[40]를 마련하고자 한다. 유의어들 간의 의미적 공통성과 차이점을 찾아내어 유의관계를 밝히고 변별하기 위해서는 이를 검증하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봉미경, 2005:102-103). 이를 위해서는 유의어의 다양한 사용상황 및 정보를 보여주는 기초자료가 필요한데, 가장 접근성이 크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로 말뭉치를 선택하였다.[41] 따라서 본 연

39) 김광해(1999:609)에서는 외연(extension)을 유의어 변별 기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는데, 그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라고 하였다. 형용사 유의어는 특징적으로 외연이 불투명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40)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기제(mechanism)'는 주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문법 또는 어휘 사용 및 선택의 '인지적 과정'을 살펴보는 것과 관련되어 연구되어 왔다. 신명선(2009)에서는 어휘 사용과 선택의 인지적 과정을 '개념화 과정', '초점화 과정', '언어화 과정'으로 구분하고 이를 '어휘 사용의 기제'라고 하였다. 유의어 교육에서 기제는 유의어들을 변별하는 방법 또는 원리로도 볼 수 있는데, 강현화(2005)의 연구에서 감정형용사의 유의 관계를 변별하는 방법을 밝히고 이를 '유의 관계 변별 기제'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변별 원리와 화자의 사용 및 이에 대한 인식 또한 알아보고자 하므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변별을 위한 체계를 '변별 기제'로 간주하고 연구함을 밝힌다.

구에서는 감동 표현 유의어들의 통사적 결합관계, 의미적 정보 그리고 화용적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민족문화연구원의 SJ-RIKS 코퍼스 확장판[42]을 수집하였고, 말뭉치의 대부분이 문어 중심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43]의 구어체 문어[44] 말뭉치 또한 수집하였다.

우선,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감격스럽다', '벅차다', '뭉클하다', '찡하다', '뿌듯하다'의 다섯 가지 어휘를 선정하였다. 선정에 있어서 유의어 대사전과 앞서 검토한 감동 표현 어휘의 선행 연구에서 목록화한 어휘들을 바탕으로 하였고, 각 유의어들의 교육적 유용성과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4단계)』 보고서와 『한국어 교육 어휘내용 개발 (4단계)』 보고서의 어휘 목록을 참고하였다. 본고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선정 과정은 Ⅲ장의 연구 대상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SJ-RIKS 코퍼스 확장판을 검색[45]하여 수집한 각 유의어들의 빈도수

---

41) 유의어 변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유의어의 정교한 분석에 말뭉치가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주장한 바 있다(문금현, 2004:69, 봉미경, 2005:100, 김선영 외, 2010:65).

42) SJ-RIKS 코퍼스 확장판(SJ-RIKS Extension)은 21세기 세종계획의 말뭉치 구축 분과에서 구축한 전체 현대국어 코퍼스를 형태 분석한 주석 코퍼스(annotated corpus)이다. 텍스트는 문어와 구어의 비율이 94:6 정도로 문어 중심이며, 총 116,065,151 어절로 이루어져 있다(김일환, 2015:75, 77).

4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 인스타그램(Instagram)이 해시태그를 활용한 어휘 검색이 가장 용이하여 선택하였다. 각 유의어마다 50개의 문장으로 총 250개의 문장을 추출하였고 익명성 보장을 위해 추출한 용례는 모두 가명으로 대체하거나 성으로 바꾸어 기술하였다.

44) 민현식(1994:38)에서는 소설 대화문, 시나리오, 희곡, 광고문처럼 대화문의 구어체가 문자화하여 나타나는 문어를 '구어체 문어'라고 하였다. 한편, 말하기 선행연구를 고찰한 장동일 외(2017:212, 214-215)에서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사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타나는 말하기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온라인에서 '글말'보다 '말글' 중심의 소통방식이 일어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장동일 외(2017)의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NS에 나타나는 구어체 문어는 문어지만 짙은 구어체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SNS 말뭉치를 구어 연구 자료로 선택하였다.

45) 말뭉치 검색 방법은 어간을 입력하는 것이었는데, 예를 들어 '벅차다'의 경우, '벅차-'로, '뭉클하다'의 경우도 '뭉클하-'의 형식처럼 나머지 유의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검색이 가능했다. 그러나 '감격스럽다' 검색 시 '감격스럽다' 또는 '감격스-'로 검색이 어려워 '감격'을 검색한 후, 총 3,363개 중 형용사 '감격스럽다'의 형태를 가진 말뭉치 263개를 일일이 추려냈다.

는 다음과 같다.

<표 18>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SJ-RIKS 코퍼스 확장판 빈도수

‘감동’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감격스럽다	벅차다	뭉클하다	찡하다	뿌듯하다
빈도수	263	1,744	745	428	1,008

이와 같이 수집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말뭉치를 중심으로 형태·통사적 정보, 의미적 정보 및 화용적 정보의 변별 기제를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3.1. 형태·통사적 변별 기제

3.1.1. 형태적 분석

프랑스어의 ‘parole’, 스페인어의 ‘palabra’와 같이 몇몇 언어에서는 ‘단어’를 뜻하는 표현이 ‘말’을 뜻하는 표현과 통용된다. 이처럼 단어는 말, 즉 언어에서 매우 중요한 단위가 되며, 또한 단어는 형태론의 마지막 단위이자 통사론을 시작하는 단위이기도 하다(구본관 외, 2015:105). 본 절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 즉 형태를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46]

단어의 짜임새를 밝히는 것을 조어론(혹은 단어 형성론)이라고 하는데, 조어론의 연구는 ‘분석을 중시하는 관점’과 ‘형성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나뉜다. 분석을 중시하는 관점의 연구는 주로 구조주의 문법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존재하는 단어를 분석하여 단어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고 복합어를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눈다(고영근 외, 2018:193).

46) 앞서 선정된 감동 표현 유의어들은 이미 형용사로 통일하여 추출된 바, 품사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합성은 단어(혹은 어근)끼리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 되는 과정으로 통사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면이 있고, 이에 비해 파생은 통사 과정과 달리 단어를 만드는 데에만 쓰이는 파생 접사가 어근에 결합하는 과정이다(구본관 외, 2015:132). 앞서 선정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은 한자어 및 고유어와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유의어 각각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감격스럽다'는 '감격(感激)+ -스럽- +-다'의 형태를 가진다. 한자어 추상명사 '감격(感激)', 형용사 파생 접미사 '-스럽' 그리고 어미 '-다-'로 이루어져 있다. '감격스럽다'는 본 연구에서 선정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중 유일한 한자어이나 사실 한국어 어휘에는 한자어가 수적으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형용사 파생 접미사인 '-스럽-'은 명사나 불완전 어근 또는 명사성 어근과 결합하여 형용사를 형성하는데 형용사 파생 접미사 가운데 공시적으로 가장 생산성[47]이 높은 접미사 중 하나이다(구본관 외, 2015:147; 유현경, 2003:259). 또한 '-스럽-'은 결합된 어근의 속성에 매우 근접함을 나타내는데 유현경(2003:260)에 의하면, 비슷한 의미의 형용사 파생접미사 '-롭-'이 '본질적인 면에서의 평가'를 의미하고 '-스럽-'은 '감각적인 면에서의 평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벅차다' 또한 비자립성 어근 '벅'과 형용사 파생 접미사 '-차-'가 결합한 파생어로 볼 수 있으며, '벅+-차-+-다'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접미사 '-차-'는 동사에서 전용되어 형용사를 형성하는 접미사로 쓰이는데, 원래 의미는 동사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몇몇 어근들과 결합하여 형용사 파생에 관여한다(유현경, 2003:263).[48]

---

47) 파생어 형성에 참여하는 정도를 파생 접사의 생산성(productivity)라고 한다(구본관 외, 2015:132).

48) '-차-'와 결합하는 다른 형용사로 '보람차다', '우렁차다' 등이 있다. 유현경(2003:263-264)에서는 '-차-'와 더불어 '-되-', '-나-', '-지-' 또한 형용사 파생에 관여하는 접미사로 제시하였는데, 합성어로 분류하는 의견도 있으나 합성어와는 다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파생어로 본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합성어의 경우 대부분 '명사+용언'의 꼴인데 명사와 용언 사이에 조사가 결합되며 구 구성에서 온 통사적 합성어이다. 이러한 합성형용사와 달리, '-차-', '-되-', '-나-', '-지-'의 파생 접미사가 결합된 어휘는 어근과 접사를 분리할 수 없으며, '-차-', '-되-', '-나-', '-지-'에 어휘적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합성어 '재미나다'는 '재미가 나다'로

‘뭉클하다’, ‘찡하다’, ‘뿌듯하다’는 파생 접미사 ‘-하-[49]’와 결합하여 파생된 형용사들이다. ‘-하-’는 명사나 명사성 어근뿐 아니라 부사와도 결합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상태성 어근과 결합하면 형용사를 파생하고, 동작성 어근과 결합하면 동사를 파생한다(구본관 외, 2015:147). 따라서 형용사의 의미 및 통사적 특성은 전적으로 결합되는 명사 및 어근의 자질에 달려있으며, ‘-하-’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 않고 이러한 부류의 명사 및 어근들이 용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미와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유현경, 2003:262). 형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뭉클하다’는 부사 ‘뭉클’과 접미사 ‘-하-’로 이루어진 ‘뭉클+-하-+-다’의 형태를 가진다. ‘찡하다’ 역시 부사 ‘찡’과 접미사 ‘-하-’가 결합된 ‘찡+-하-+-다’로 구성되어 있다. ‘뿌듯하다’의 ‘뿌듯’은 비자립성 어근[50]으로 접미사 ‘-하-’와 조합해 ‘뿌듯+-하-+-다’의 형태를 이룬다.

지금까지 살펴본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형태론적 분석을 요약하여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형태론적 분석

유의어	형태 분석
감격스럽다	감격(感激)(한자어)+-스럽-(형용사 파생 접미사)+-다(어미)
벅차다	벅(비자립성 어근)+-차-(형용사 파생 접미사)+-다(어미)
뭉클하다	뭉클(부사)+-하다(파생 접미사)
찡하다	찡(부사)+-하다(파생 접미사)
뿌듯하다	뿌듯(비자립성 어근)+-하다(파생 접미사)

가능하지만, 접미사 ‘-나-’의 파생어인 ‘별나다’는 ‘별이 나다’가 불가능하며, 합성어로 보기엔 ‘-나다’에 의미가 없다.

49) ‘-하-’를 자립성이 있는 어근과 결합하면 합성어로 보고, 자립성이 없는 어근과 결합할 때만 파생어로 보는 의견도 있으나 자립성이 있는 명사와 결합할 때도 불완전 어근과 결합할 때와 마찬가지로 분리될 수 없고, ‘-하-’의 의미가 다른 접사들과 마찬가지로 어휘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형용사를 형성하는 ‘-하-’를 파생 접미사로 보기로 한다(유현경, 2003:262).

50) 실질적 의미를 가지면서 자립성이 없어 품사를 주기 어려운 어근을 ‘비자립적 어근’이라고 한다(구본관 외, 2015:122).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뭉클’과 ‘찡’은 부사의 품사를 가지지만 ‘뿌듯’은 ‘뿌듯하다’의 어근으로 설명되어 있어 품사가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벅차다’의 ‘벅’ 또한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비자립성 어근으로 보았다.

3.1.2. 통사적 결합관계 분석

내이션(Nation, 2018:533)에 따르면, 외국어 학습자들이 모어 화자와 같은 유창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은 말을 할 때 도중에 주저함 없이 발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언어는 모어 화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조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합을 학습해야 모어 화자와 같은 유창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조합들은 어휘화되고 문장의 줄기가 되며, 이것이 기억된 연속체는 유창한 발화의 구성 요소가 된다(Nation, 2018:534). 한국어교육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한 바 있는데, 이러한 조합은 어휘의 '결합관계(또는 결합구성)', '공기관계' 등으로 명칭 되고 있다.[51]

강현화(2005:54)에서는 통합적 관계 정보는 유의어간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 관계 정보는 같은 유의어군에 있는 어휘들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통사적 결합관계가 유의어의 변별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중·고급 단계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최선의 교수는 문법적 교정보다 덩어리로 나타나는 어휘의 통합적 관계에 대한 교수라고 하였다. 문금현(2004:73) 또한 외국인 학습자에게 유의어 쌍을 가르칠 때는 고정적으로 결합하는 구성을 비교 제시해줌으로써 유의어 쌍의 의미차이를 변별하고, 자주 사용되는 문항을 연습시키는 이중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 근거하여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체언 및 용언과의 결합관계와 연어 관계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3.1.2.1. 체언 및 용언 결합관계

본 절에서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와 체언 및 용언의 결합관계를 살펴볼 것이다.[52] 형용사는 보통 형용사의 관형형이나 부사형의 꼴로

51) 본고는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크게 세 가지인 형태·통사적 정보, 의미적 정보 그리고 화용적 정보로 나누어 연구하므로 '통사적 결합관계'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후행명사나 동사와 함께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강현화, 2005:56). 이에 따라 체언과 용언의 결합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체언의 경우 각 유의어들의 형용사 관형형이 수식하는 체언을 추출하였고, 용언의 경우는 각 유의어들이 부사형으로 후행동사와 나타나거나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 또한 함께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비슷한 의미의 유의어들도 체언, 용언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합관계 양상을 보였다. 우선, '감격스럽다'와 '벅차다'의 결합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20> '감격스럽다'와 '벅차다'의 체언 및 용언 결합관계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체언	~용언
감격스럽다	일, 장면, 표정, 얼굴, 낯, 사건, 어조, 마음, 기억, 순간, 첫 승, 우승, 승부, 눈빛, 눈물, 재회, 소식, 시대, 상봉, 대화, 해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다.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감격스럽게 V[53]
벅차다	가슴, 감격, 감동, 감정, 희망, 소망, 마음, 영광, 사실, 마음, 희열, 기대, 환호, 행복, 고마움, 꿈, 설렘, 기쁨, 느낌, 떨림, 환희, 미래, 심정, 그리움, 일, 광경, 목소리, 떨림	벅차오다 벅차오르다 벅차게 좋다

문금현(2004:74)에서는 결합 구성에 나타난 단어 간의 결합 빈도수를 토대로 내포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특히 체

52) 강현화(2005:57)의 연구는 통합관계에서 자주 수식하는 부사는 유의어마다 유사한 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출한 말뭉치 분석 결과에서도 부사와의 결합관계는 크게 변별성이 없음을 확인하여 부사와의 결합관계는 포함하지 않았다.

53) '감격스럽다'의 부사형 '감격스럽게' 뒤에 여러 동사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감격스럽게 말하다/바라보다/맞이하다/들리다/생각하다' 등이 있었다.

언과의 결합에 있어서 의미적 경향 차이를 도출해볼 수 있었는데, ‘감격스럽다’의 경우, ‘첫 승’, ‘기억’, ‘사건’ 등 현재나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과 쓰였다. 반면, ‘벅차다’는 ‘희망’, ‘기대’, ‘미래’ 등 미래 지향적 단어들과의 결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감격스러운 기대’는 문법상 맞으나 결합구성에 있어서 어색한 느낌이 있고 ‘벅찬 기대’의 조합이 더 자연스럽다. 또한 ‘감격스럽다’는 ‘첫 승’, ‘우승’, ‘승부’와 같은 ‘승리’를 의미하는 체언과 함께 쓰이는 것으로 보아 ‘경쟁에서 이기는 상황’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한편, 용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격스럽다’는 부사형 ‘감격스럽게’로 여러 동사들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고, ‘벅차다’의 경우 부사형보다는 동사 ‘오다’, ‘오르다’와 결합하여 ‘벅차오다’, ‘벅차오르다’의 형태로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뭉클하다’와 ‘찡하다’의 결합관계를 살펴보겠다.

<표 21> ‘뭉클하다’와 ‘찡하다’의 체언 및 용언 결합관계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체언	~용언
뭉클하다	감동, 슬픔, 장면, 감정 감회, 그리움, 가슴 사연, 마음, 기억, 친근감, 친밀감, 심정, 순간, 일화, 사연, 기대, 고마움, 친애감, 사랑, 전우애, 기분, 기쁨, 후회감	마음/가슴 뭉클하게 하다/만들다 뭉클하게 느끼다 뭉클하게 마음/가슴에 와 닿다
찡하다	감동, 여운, 엔딩, 슬픔, 아픔, 편지, 기분, 마음, 눈물, 코끝,	마음/가슴/코끝 찡하게 하다. 가슴 찡하게 울리다. 찡해오다 찡해지다

‘뭉클하다’와 ‘찡하다’의 결합관계는 앞서 분석해 본 ‘감격스럽다’, ‘벅차

다'의 결합 양상과 차이를 보였다.

체언과의 조합에서 '벅차다'는 '행복', '기쁨', '환희' 등 대부분이 긍정적인 의미의 체언만 수식하는 반면 '뭉클하다'는 '슬픔', '후회감' 그리고 '찡하다'는 '슬픔, '아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체언과도 결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찡하다'는 부정적인 의미의 명사 외에 긍정적 의미의 체언과는 거의 결합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났다.[54] 더불어 '뭉클하다'는 '사랑', '친애감(親愛感)', '전우애(戰友愛)', '친근감', '친밀감' 등과 어울려 '타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체언과도 쓰였다.

용언과의 결합에서는 '뭉클하다'의 경우, 부사형 '뭉클하게'와 '하다', '만들다', '느끼다'의 동사들이 결합하였다. 이 때 '마음', 또는 '가슴'의 명사들이 부사형 '뭉클하다'의 앞에 쓰여 '마음/가슴 뭉클하게 하다/만들다/느끼다'로 구성된 문장이 자주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마음'과 '가슴'이 부사격 조사 '에'와 함께 쓰여 '뭉클하게 마음/가슴에 와 닿다'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찡하다'는 용언 '-어 오다', '-어 지다'와 결합해 '찡해오다', '찡해지다'의 조합을 보였고, 부사형 '찡하게'는 '찡하게 하다', '찡하게 울리다'의 형태로 나타났다. '뭉클하다'의 경우처럼 '마음'과 '가슴' 그리고 '코끝'이 붙어 '마음/가슴/코끝 찡하게 하다'의 조합을 이루었다. '찡하게 울리다'의 경우에는 명사 '가슴'에만 결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표 22>는 '뿌듯하다'의 체언 및 용언 결합관계이다.

<표 22> '뿌듯하다'의 체언 및 용언 결합관계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체언	~용언
뿌듯하다	마음, 표정, 감동, 보람, 자부심, 자신감, 기분, 행복(감), 기쁨, 미소, 희열(감), 긍지, 만족(감),	뿌듯하게 여기다 뿌듯하게 생각하다 뿌듯하게 느끼다

54) 긍정적 의미의 '감동', '감명' 그리고 부정적 의미의 '슬픔', '아픔'을 제외하고, '편지', '엔딩', '코끝' 등은 부정과 긍정을 알 수 없는 중립적 의미의 체언들로 보인다. 한편, '눈물'의 경우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다'와 같은 문장처럼 기쁜 상황에서도 나타나므로 부정적 의미의 체언에 포함하지 않았다.

	자랑스러움, 책임감, 느낌, 충족감, 감정, 충만감, 감격, 심정, 자신감, 성취감, 우월감, 자만감, 자랑, 가슴, 쾌감, 흥분, 추억, 경험, 모습, 승리감, 얼굴, 결과, 결실	뿌듯해지다 뿌듯해오다

‘뿌듯하다’ 또한 ‘벅차다’와 같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복’, ‘기쁨’, ‘미소’ 등과 같은 단어들과 어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뿌듯하다’의 체언 및 용언의 결합관계에서도 다른 유의어들의 결합과 변별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만족(감)’, ‘충만감’, ‘충족감’, ‘쾌감’의 체언과 함께 쓰이는 것으로 보아 ‘만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감’, ‘자부심’, ‘긍지’, ‘자랑’, ‘우월감’을 수식하는 형태로 ‘자랑스러움’이나 ‘신뢰’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결실’, ‘결과’, ‘성취감’, ‘보람’ 등과의 조합으로, 끝난 일에 대한 ‘긍정적 결과’와 그에 따르는 ‘긍정적 성과’를 의미한다는 것도 나타났다.

용언과의 관계에서는 ‘찡하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지다’, ‘-어 오다’와 결합하고, 부사형 ‘뿌듯하게’는 동사 ‘여기다’, ‘생각하다’, ‘느끼다’와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위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각 유의어들의 체언 및 용언과의 결합관계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체언과의 결합구성에 있어서 나타나는 부분은 첫 번째로 5개의 유의어 모두 ‘마음’, ‘심정’, ‘기분’, ‘감정’, ‘느낌’과 같은 ‘감정’에 관련한 어휘들을 수식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 유의어들이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형용사라는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각 유의어들은 특정 신체부위 및 신체관련 체언들과 결합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얼굴과 관련한 단어들인 ‘얼굴’, ‘눈빛’, ‘표정’, ‘낯’, ‘미소’, ‘코끝’, 가슴과 관련한 단어들인 ‘마음’, ‘가슴’과 결합한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감격스럽다’의 경우에는 ‘가슴’과는 결합하지 않으며, ‘코끝’은 오직 ‘찡하다’와 결합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차후에 논의할 연어 관계와 관련한다. 세

번째, 체언과의 결합에서 추출된 어휘들의 경우 긍정적 의미의 단어들과 부정적 의미의 단어들로 나뉠 수 있었는데 '벅차다'와 '뿌듯하다'의 경우 '행복', '기쁨'과 같은 긍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과 조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찡하다'의 경우는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단어와 주로 결합하고 있었다. '뭉클하다'는 긍정과 부정적 의미의 단어들을 모두 포함하여 수식하고, '감격스럽다'는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단어들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네 번째, '벅차다'는 '희망', '미래', '기대'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가진 어휘들과 사용되는 양상을 보였고, '감격스럽다'와 '뭉클하다'는 '기억', '감회'등과 같이 과거와 관련한 어휘들과 더 사용되고 있었다. 그밖에, '승리'와 관련한 어휘들과의 조합에는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가 있고, '뭉클하다'는 '타인'과의 '관계'에 관련한 어휘들과 함께 결합하며, '뿌듯하다'는 '만족', '자랑스러움', '성취'를 의미하는 어휘들과 어울린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용언과의 결합관계에서는 각 유의어들이 부사형 '-게'의 형태로 후행하는 동사 앞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여 '감격스럽게 바라보다', '뿌듯하게 여기다' 등과 같은 구성을 이루고 있었다. 두 번째로 '찡하다'와 '뿌듯하다'는 공통적으로 '-어 오다', '-어 지다'와 함께 쓰여 '찡해오다', '찡해지다', '뿌듯해오다', '뿌듯해지다'와 같은 결합 형태를 볼 수 있었다.

3.1.2.2. 연어 관계

연어 관계[55]는 관용 관계처럼 단어가 모여 구와 같은 더 큰 구성체를 이루는 관계로서, 규칙적인 통사 관계에 의해 구성되고 어휘적 차원에서 특별히 긴밀하고 제한적인 통합관계를 보이는 두 단어의 연쇄이다(구본

55) 연어 관계는 주로 관용 관계와 자주 비교되는데 관용 관계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단어, 구, 절, 문장을 이루되 구성요소의 의미를 넘어서는 제3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관계를 말한다. 관용 관계는 연어 관계보다 구성의 긴밀성이 더 높다(구본관 외, 2016:159). 본고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은 긴밀성이 있는 어휘의 통합관계를 보이긴 하나 제3의 의미를 가지지는 않으므로 '연어 관계'로 연구를 이어가도록 한다. 연어 관계를 보이는 어휘에는 '머리를 감다', '입이 가볍다' 등이 있다(구본관 외, 2016:159 참고).

관 외, 2016:159). 어휘들의 긴밀한 연어 관계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내이션(Nation, 2018:99)은 어떤 단어를 안다는 것은 그 단어와 전형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단어를 아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언어에는 패턴이 있으며, 이러한 패턴을 앎으로써 특정 단어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단어들의 전형적인 구성과 일정한 패턴을 연어(collocation)라고 하였다.

한편, 감정에 대해 심리학에서는 감정과 신체적 변화가 인과관계와 같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언어에도 반영된다.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연어 관계에서 이러한 감정으로 인한 신체적 반응이 반영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코벡세스(Kövecses, 2000:156)는 감정의 경험에 있어서 신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어떤 상황(감정의 원인)에 대해서 신체 생리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은유적 표현이 나타난다고 하였다.[56] 이것은 인지언어학에서 지향하는 '체험주의(experientialism)[57]'의 관점이다. 임지룡(2006:4-5)이 주장하는 이 관점에서의 '감정'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체험 요소의 하나로 간주되며, 체험주의가 적용되는 가장 전형적인 주제라고 보고 있다. 우리의 몸은 감정을 드러내는 창구이기에 감정은 생리적 반응과 신체적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것은 일상 언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감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신체적 및 생리적 반응과 체험은 '민간 모형(folk model)[58]'에 따라 '인접성'과 '유사성'을 거쳐 '환유'와 '은유'의 언어적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임지룡, 2006:26-27). 이러한 신체적 환유 또는 은유는 한국어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감격스럽다'를 제외한 나머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

56) 코벡세스(Kövecses, 2000:156)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언어의 '화'에 대한 은유적 표현의 양상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데 서로 다른 문화권의 언어에서도 아주 비슷한 은유적 표현(압력이 가해진 용기, pressurized container와 같은)이 사용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서로 다른 언어, 문화권의 사람들일지라도 몸에 대해 매우 비슷한 생각을 가지며, 각기 다른 언어로 가리키는 한 감정의 상태에 있을 때 자신들이 겪는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생리적 과정이 같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57) 체험주의(experientialism)는 우리의 추상적 사고 및 개념화 과정이 신체화된 체험에서 유래한다는 관점으로 체험주의 철학의 핵심은 인간의 몸에 대한 관심이다(임지룡, 2006:4, 19).

58) 주석 17 참고

어의 연어 관계에서 또한 이러한 뚜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23>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연어 관계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연어 관계[59]
감격스럽다	-
벅차다	마음/가슴(이) 벅차다
뭉클하다	마음/가슴(이) 뭉클하다
찡하다	코/코끝(이) 찡하다 마음/가슴이 찡하다
뿌듯하다	마음/가슴(이) 뿌듯하다

'감격스럽다'를 제외한 나머지 유의어들은 대부분 '마음' 또는 '가슴'과 함께 쓰여 연어 관계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찡하다'는 '마음'과 '가슴'뿐만 아니라 신체부위인 '코'와 연관된 '코끝', '콧등', '콧잔등' 등과도 연어를 구성한다.

임지룡(2006:227)에 따르면 감정에 대한 관습적 표현의 구조와 의미는 이른바 '자의성(arbitrariness)'을 띠거나 설명 불가능한 일종의 '숙어(idiom)'가 아니라, 언어 외적 요인, 즉 우리의 신체 생리적 체험이나 문화적 배경 등과 긴밀히 동기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 또한 위의 <표 23>과 같이 연어의 형태로 굳어진 관습적이고 고정적인 표현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들은 신체적 체험과 반응으로부터 비롯된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이론은 '콧등'은 '찡하다'와만 쓰이며 '콧등이 뭉클하다' 혹은 '콧등이 뿌듯하다'가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매우 어색하게 들리는 것처럼, <표 23>의 연어 표현들은 모어 화자들로부터 자주 사용되는 아주 전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유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어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연어 교육의

59)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연어는 말뭉치에서 추출하였고,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4단계)』와 『한국어교육 어휘내용 개발(4단계)』에서 유의어들의 연어 관계를 다시 확인하였다. 위의 보고서에는 '뭉클하다', '찡하다', '뿌듯하다'의 연어 관계만 제시하고 있으나 말뭉치에서 '마음/가슴(이) 벅차다' 또한 자주 쓰이는 결합으로 나타났기에 연어 관계에 포함하였다.

중요성으로 귀결된다.

위와 같은 관점에 근거하면 감정과 신체의 관계가 개연성을 가지고 언어에 반영되므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연어 표현들 또한 그렇게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지룡(2006)에서는 감정의 신체화와 환유 및 은유적 양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신체와 결합된 연어 표현이 없는 '감격스럽다'를 제외한 나머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환유적 양상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기쁨'의 신체 내부적 증상 중 '가슴'이 '기쁨'의 가장 주요한 반응이며, 기쁠 때는 신체 부위가 확장되는데 '가슴'이 부풀고 뿌듯한 팽만감을 느끼며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데서 확인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60] 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로 '가슴 벅차다', '가슴이 뿌듯하다', '가슴이 뭉클해지다'를 들 수 있다고 하였다(임지룡, 2006:230, 244-245, 251-252). 본 연구의 말뭉치 자료 분석에서는 '가슴'과 '마음'이 자주 교체되어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상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은 신체의 일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속', 즉 '심장'이 있는 부분을 가리켜 말하기도 한다. '심장'이 위치하는 곳은 '가슴'이 있는 부분이므로 이 또한 '인접성'에 따라 '가슴'과 '마음'이 서로 호환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찡하다'는 '슬픔'의 감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코'는 '슬픔'의 주요 반응 부위 중 하나로써 슬플 때 '코'에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의 언어 표현으로는 '콧등이 찡해지다', '코끝이 찡해오다' 등이 있다고 하였다(임지룡, 2006:203).

3.2. 의미적 변별 기제

의미적 변별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먼저,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사전을 활용하여 각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각 유의어가 지니는 복합감정을

60) 차경미(2013) 및 정미지(2015)의 연구에서 또한 '감동'을 기쁨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 차경미(2013:27)에서는 '감동'은 '기쁨'과 유사한 감정을 나타내지만 대체로 '가슴이 뻐근해지는' 느낌을 받는 감정들로서 '기쁨'과 어느 정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정미지(2015)는 감정의 분류에 있어 '감동'을 '기쁨2'로 구별한 바 있다.

활용하여 의미성분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의미적 변별 기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3.2.1. 사전적 의미 분석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사전을 활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내이션(Nation, 2018:461, 464)에서 사전은 정보원인 동시에 외국어 학습의 조력자라고 하며, 사전 사용은 학습과 이해에 도움이 되고 특히 문맥 추론에 서툰 학습자에게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양명희(2007:165)의 연구 또한 국어사전은 어휘론 연구의 결과물이 집적된 것이며 어휘 교육에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어휘의 의미를 탐구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써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사전적 의미를 정리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24>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사전적 의미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감격스럽다	마음에 깊이 느끼어 크게 감동이 되는 듯하다	(일이나 사실이) 마음속 깊이 뭉클한 감정을 일으킬 만하다	마음에 느끼는 감격이 크다.
벅차다	①감당하기가 어렵다. ②감격, 기쁨, 희망 따위가 넘칠 듯이 가득하다. ③숨이 견디기 힘들 만큼 가쁘다.	①(무엇이) 넘칠 듯이 가득하다. ②(일이나 행동이) 힘에 겹다	①어떤 일이 감당하거나 견디기가 어렵다. ②(숨이) 힘에 겨울 정도로 가쁘거나 흥분되어 있다. ③생각이나 느낌 등이 넘칠 듯이 가득하거나 가슴 뿌듯하다[61]

뭉클하다	①먹은 음식이 잘 삭지 않아 가슴에 뭉치어 있는 듯하다. ②슬픔이나 노여움 따위의 감정이 북받치어 가슴이 갑자기 꽉 차는 듯하다. ③덩이진 물건이 겉으로 무르고 미끄럽다.	①(사람의 마음이) 어떤 감정이 북받쳐 올라 갑자기 가득차 넘치는 듯한 느낌이 있다. ②(사람의 속이) 먹은 것이 잘 삭지 않아 가슴이 몹시 뭉치어 있는 듯 한 느낌이 있다. ③(조금 크게 덩이진 물건이) 몹시 연하고 무르며 미끄럽다.	(감정이나 느낌이) 북받쳐 가슴이 꽉 차는 듯하다.
찡하다	감동을 받아 가슴 따위가 뻐근한 데가 있다.	(가슴이나 코끝이) 감동을 받아 뻐근한 느낌이 있다.	눈물이 나올 만큼 강한 감정이나 느낌이 있다.
뿌듯하다	①집어넣거나 채우는 것이 한도보다 조금 더하여 불룩하다. ②기쁨이나 감격이 마음에 가득차서 벅차다.	①(마음이) 기쁨 따위의 감정으로 가득차서 벅차다. ②(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로 가득 들어차서 뿔룩하다.	①꽉 들어차서 그득하다. ②마음에 그득하여 벅차다.

유의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면 '마음속 깊이 느끼며 감정이 가득 찬 강한 느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벅차다', '뭉클하다', '뿌듯하다'는 그 밖에 다른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그 중 기본의미를 따로 제시하고 있다. '벅차다'의 기본의미는 '(무엇이) 넘칠 듯이 가득하다' 그리고 '뿌듯하다'는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로 가득 들어차서 불룩하다'의 기본의미를 가진다.[62] '사물이 가득하거나 부풀어 오른 느낌 및 상태'의 기본의미는

61)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가슴(이) 벅차다' 또한 표제어로 제시하고 있었는데 '흥분하거나 설레서 마음이 매우 뿌듯하다'로 정의한다.

62) '뭉클하다'의 기본의미는 '(조금 크게 덩이진 물건이) 몹시 연하고 무르며 미끄럽다'

의미 확장을 거쳐 앞서 언급한 신체반응의 언어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쁠 때 가슴이 부풀고 뿌듯한 팽만감을 느끼는 신체의 반응(임지룡, 2006:251-252)이 언어화되고, '사물'에서 '감정'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마침내 감정이 가득 찬 느낌'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외에 '벅차다'는 '감당하기 어렵다', '숨이 가쁜 상태' 그리고 뭉클하다는 '덩어리가 무르고 미끄러운 느낌'의 다른 의미들도 갖고 있다.[63] 그러나 본고에서 중점이 되는 감동의 감정을 나타내는 의미의 설명은 매우 추상적이고 각 유의어들이 서로 유사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구별이 쉽지 않다. '감격스럽다'의 경우 '마음의 감격이 크다'로 '감격'의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 개념을 알기가 어렵다. '뿌듯하다'는 '마음이 가득차서 벅차다'로 유의어인 '벅차다'를 메타언어로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벅차다'의 개념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의미분석의 한계가 드러난다. 이것을 김광해(1998), 봉미경(2005)에서는 '정의의 순환' 또는 '뜻풀이의 순환'이라고 하였다.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들이 또 다시 정의되어야 하고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무한하게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전 정의의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김광해, 1998:7). 이렇게 뜻풀이에 의존한 정의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정의의 순환을 반복한다면 어휘의 대체적인 의미는 알 수 있어도 유의어간 의미는 변별할 수 없다(봉미경, 2005:99).

한편 의미를 밝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임지룡(1992:69)에서는 의미분석 방법의 효용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의미관계의 성분분석은 다양한 의미관계의 기술과 해명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의어 해석에 대한 순환 정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으로 각 유의어의 의미성분 분석을 통해 의미적 정보 변별 기제를 보강하고자 한다.

로 '가득차다'의 의미는 아니기에 글의 전개상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63) '벅차다', '뭉클하다', '뿌듯하다'는 사전적으로 여러 의미를 갖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감동'의 의미에 주목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2.2. 의미성분 분석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관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성분 분석이론(componential analysis theory)은 단어 사이의 의미의 연관성에 바탕을 둔 의미 파악 방법이다. 또한 성분 분석[64]은 단어를 구성하는 의미성분을 발견하고 조직하여 어휘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구본관 외, 2016:16-17; 민현식 외, 2019:97). 의미성분은 일반적으로 대괄호 [ ]속에 성분을 넣고,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이원적 자질(binary feature)을 이용하여 표현한다[65](임지룡, 1992:59; 구본관 외, 2016:17). 민현식 외(2019:99, 102)에 따르면 성분분석은 단어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 관계를 기술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 성분들을 공통적 성분과 변별적 성분으로 나누면 분명하게 구분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개별 단어들은 공통의 의미성분을 가지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서로 간의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개별 의미 차이를 변별하기 위한 의미성분을 추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어들이 구분될 수 있다. 성분 분석을 위해서는 단어들의 공통 의미성분과 변별적인 의미성분을 나눌 수 있는 해당 언어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 자료로 말뭉치를 활용하였다. 한편 의미성분 분석을 위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공통 의미성분과 변별 의미성분에 있어서는 각 유의어가 가지는 복합감정에 주목하였다.

심리학에서 보는 감정의 특성은 기본 감정과 혼합된 감정이 있다는 것이다. 플러칙(Plutchik, 2003:116)에 의하면 기본 감정을 제외한 나머지 감정은 다른 감정과 혼합된 이차 감정(secondary emotion)이라고 하면서, 둘 이상의 정서가 합쳐지면 새로운 제3의 정서가 발현된다고 주장하였다.[66] 이러한 복합감정의 특성은 언어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황

---

64) 의미성분(semantic component)은 의미 자질(semantic feature), 의미 특성(semantic property), 의미 원소(semantic primitive)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민현식 외, 2019:97).

65) 성분 분석의 예시는 각주 37에 기술하였다.

66) '기쁨'과 '수용'을 섞으면 '사랑', '노여움'과 '혐오'를 섞으면 '증오'와 '적대감'의 혼합정

련미(Huanglianmei, 2019:29-30)의 연구에서는 이것을 '의미의 연접성'이라고 하면서 화자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하나의 어휘로 표현하였을지라도 해당표현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감정형용사의 의미의 연접성은 감정형용사가 유의어를 많이 가지는 이유와 관련한다고 하였다.[67]

앞서 살펴본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감동의 개념에서 이러한 복합감정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플러칙(Plutchik, 1980)은 '감동'은 '기쁨(joy)'과 '놀라움(surprise)'의 조합이라고 하였으며, 왓슨과 클라크와 텔레전(Watson & Clark & Tellegen, 1985)은 '감동'은 '환기(arousal)'과 '즐거움(pleasantness)'의 조합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심리학적 이론과 같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에서 또한 복합감정이 드러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 유의어간 공통 감정과 변별 감정 또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분석을 위한 의미성분을 추출하였다. 각 유의어들의 복합감정들이 나타난 용례를 통해 변별이 되는 의미성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감격스럽다'의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골프의 고향에서 그랜드 슬램을 이룬 것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감격스러워 했다.[68]
(b) 문학 발전에 기여한 작가에게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고 작가는 "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대접해주는 게 불가사의"라며 감격스러워했다.

(a)는 [+자랑스러움]을, (b)는 [+감사함]의 복합감정을 자질을 드러내고 있다. (a)는 골프 그랜드 슬램을 이룬 자신의 성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Plutchik, 1962, 1980).

67)감정 어휘에 복합감정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 외에 한국어의 감정형용사의 특징 중 하나는 두 가지의 감정을 동시에 나타내는 합성어들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시원섭섭하다'의 경우 '시원하다'와 '섭섭하다'가 결합하여 '후련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고 섭섭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이숙진, 2018:501)

68) '감격스러워 하다'는 '감격스럽다'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말하는 '-어 하다'가 붙은 형태로 형태만 다를 뿐 '감격스럽다'의 본질적 의미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의미성분 분석의 용례로 선정하였다. 이후의 다른 유의어들도 이와 같이 형태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춰 용례를 추출하였다.

있고 (b)는 명예문학박사를 수여한 측에 대해 좋은 대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격스럽다'는 [+감사함], [+자랑스러움]의 복합감정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벅차다'를 보도록 하자.

(c) 피아니스트 정명훈이 모스크바의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해 우리 겨레에게 벅찬 감격을 안겨 주었다.
(d) 친구가 보내준 선물. 벅찬 감동. 내가 뭐라고. 고마워.

'벅차다' 또한 '감격스럽다'와 마찬가지로 [+감사함], [+자랑스러움]의 복합감정 자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c)는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한 사람에 대한 자랑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d)는 화자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뭉클하다'의 용례이다.

(e) 아직 일본어가 서툰 나를 위해 한국어 플래카드를 내걸고 박수를 보내는 팬들이 가슴 뭉클하도록 고맙다.
(f) 울엄니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순 김치 담아 택배로 보내셨네요. 늘 바쁘다고 못 내려가서 미안해요. 뭉클한 택배상자.
(g) 해외 공연 때 무대에서 많이 울었는데 원래 잘 안 우는데 고생하신 댄서, 스태프들을 생각하니까 뭉클했어요.
(h) 가장 행복했던 서포터즈 경험 작가 수료식에서. 3개월의 시간이 아쉽기만 했던 뭉클한 서포터즈 활동.
(i) 딸이 명문대 경제학과에 홍일점으로 합격하던 날, 입시전쟁을 이겨냈다는 생각에 더 가슴 뭉클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e)는 팬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말하고 있는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f)에서는 화자가 좋아하는 것을 보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 '뭉클하다'의 용례에서 [+미안함]이 표현된 예문에서는 동시에 [+감사함]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69] (g)는 고생한 사

람들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고 (h)에서는 행복했던 시간의 짧음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i)의 화자는 딸이 힘든 입시경쟁에서 당당히 명문대에 홍일점으로 입학한 사실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위의 용례를 통해 '뭉클하다'는 [+감사함], [+미안함], [+슬픔], [+아쉬움], [+자랑스러움]의 복합감정 의미성분을 지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어서 '찡하다'의 용례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j) 오늘따라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시고 무한 열정으로 가르침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하는 밤. 찡한 마음.
(k) 출근길에 떼놓은 어린 아들의 울먹이는 커다란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너무 찡해요. 미안해서.
(l) 몸이 불편한 부모님과 여동생 뒷바라지로 가고 싶은 대학에도 가지 못했다는 그녀의 이야기에 순간 가슴이 찡하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m)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굳은 악수를 나누던 선수들은 잠시 후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의 뒷모습은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j)에서는 감사한 감정, (k)에서는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l)는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에 화자는 슬픔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찡하다'를 사용하였고, (m)에서는 서로 헤어지는 상황에서 아쉬움이 남겨지는 감정을 '찡하다'로 표현하였다. '찡하다'는 [+감사함], [+미안함], [+슬픔], [+아쉬움]의 복합감정 의미성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뿌듯하다'의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n) 동생을 잘 둔 덕분에 호강하는 뿌듯한 누나. 엄청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o) 마라톤 10km완주 뿌듯한데 쓰러졌다. 내일 휴가 쓸게요.

---

69) 다음과 같이 [+감사함][+미안함]이 동시에 표현된 '뭉클하다'의 용례들이 더 있었다.
(1)늘 바쁘다고 고향에 못 내려갔는데 어머니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를 보내셨다. 늘 감사하다. 정말 뭉클한 내 마음.
(2)엄마가 갖다 주신 두릅. 이거 따느라 가시에 손을 안 찔렸을지. 미안하고 감사해지는 뭉클한 두릅.

‘뿌듯하다’는 다른 유의어들이 가지는 5가지 복합감정 중 [+자랑스러움]만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n)는 동생에 대한 [+자랑스러움]’, (o)는 화자 자신의 성취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모두 ‘뿌듯하다’로 표현하고 있다.

이상으로 분석한 각 유의어의 복합감정 의미성분을 정리하면 다음 <표 25>과 같다.

<표 25> 의미적 정보의 복합감정 의미성분 변별 기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70]	[감사함]	[미안함]	[슬픔]	[아쉬움]	[자랑스러움]
감격스럽다	+	−	−	−	+
벅차다	+	−	−	−	+
뭉클하다	+	+	+	+	+
찡하다	+	+	+	+	−
뿌듯하다	−	−	−	−	+

각 유의어들에서 [감사함], [미안함], [슬픔], [아쉬움], [자랑스러움] 5가지의 복합감정을 찾아낼 수 있었고, 서로 공통 의미성분과 변별 의미성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감격스럽다’, ‘벅차다’는 둘 다 [+감사함], [+자랑스러움]의 의미성분을 지니고 있고, ‘뿌듯하다’는 [+자랑스러움]의 감정만을 내포하고 있다. ‘감격스럽다’, ‘벅차다’, ‘뿌듯하다’는 긍정적인 복합감정만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뭉클하다’와 ‘찡하다’는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들도 복합적으로 띄고 있었다. 이 두 단어는 [+감사함], [+미안함], [+슬픔], [+아쉬움] 4가지의 복합감정을 공통으로 담고 있는데, 똑같은 의미성분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다른 단어들보다 ‘뭉클하다’와 ‘찡하다’의 유사성 정도가 서로 큰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감격스럽다’와 ‘벅차다’ 또한 서로 의미적으로 더 가까운 유

70)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감동’은 ‘기쁨’의 한 종류로 볼 수도 있고, 각 유의어들이 공통적으로 이미 ‘감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쁨’은 복합감정에서 제외하였다.

의어들로 볼 수 있고, [+자랑스럽다]를 공유하는 ‘감격스럽다’, ‘벅차다’, ‘뿌듯하다’ 또한 서로의 유의성이 큰 단어들로 파악된다.

한편 ‘뭉클하다’는 [+감사함], [+미안함], [+슬픔], [+아쉬움], [+자랑스러움]의 5가지 복합감정에 대해 모두 사용되고 있으며 유의어들 중 가장 많은 복합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뭉클하다’가 감정을 나타내는 의미적 스펙트럼이 넓은 단어이며, 사용상황이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3.3. 화용적 변별 기제

동일한 문장이 화자, 청자, 맥락(context)[71]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 일은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이기에 언어 연구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언어 외적 요소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구본관 외, 2016:67). 화용론적 의미는 맥락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사전에서 기술될 수 없으므로(구본관 외, 2016:68)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더욱 학습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화용적 정보는 인지언어학의 ‘백과사전적 지식’과 ‘틀의미론’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낱말과 구는 단지 ‘의미구성을 위한 촉진제(prompt for meaning construction)’로 역할을 할 뿐 그 자체가 완전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Evans & Green, 2006). 청자의 지식 기반은 그 낱말과 구에 명시되지 않은 의미를 구성하는 핵심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청자의 지식 기반이 백과사전적 지식이며 미명시(underspecification)[72]된 화자의 의도를 추론할 때 사용된다(Lee, 2001:206).

인지언어학에서는 같은 단어라도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른 것을 가리키며, 서로 다른 배경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Littlemore, 2009:102).

---

71) 구본관 외(2016)에서는 ‘맥락’에는 해당 발화의 앞뒤 언어 표현 등을 가리키는 ‘언어적 맥락’, 화자 및 청자를 포함한 시간과 공간 등의 물리적 상황인 ‘상황 맥락’, 그 밖에 언어 표현이 속한 ‘사회적 맥락’, ‘문화적 맥락’ 등이 있다고 하였다.

72) 어떤 발화라도 주어진 모든 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어떤 발화든지 전달하려는 상황을 개략적으로 미명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낱말과 구가 완전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 것을 미명시라고 한다(Lee, 2001:206).

이러한 관점은 ‘틀의미론(frame semantics)[73]’에서 출발하는데 이것은 필모어(Fillmore, 1975)가 처음 제안한 이론으로 백과사전적 지식(encyclopedic knowledge)[74] 연결망이 ‘틀’을 중심으로 구조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틀의미론’의 핵심은 한 단어의 의미가 그 의미를 동기부여 하는 틀과 관계하여 정의된다는 것이며,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담화에서 그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에 ‘배경’과 ‘동기’를 부여하는 ‘틀’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함을 가정한다(김동환, 1999:81). 이는 감정이 ‘자극’, 즉 ‘사건(일)’과 ‘대상’에 대한 반응에서 발원한다(Ortony & Clore & Collins, 1988; 김경희, 2004)는 점에서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바라보는 ‘틀’의 ‘배경’ 및 ‘동기’를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화용적 변별 기제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론에 기반하여 정유진(2019:135)에서는 ‘감정 언어’에 대한 ‘틀’을 재정의한 바 있는데, 경험주(Experiencer)는 감정을 야기한 특정 자극(Stimulus)이나 주제(Topic)에 특별한 감정적 상태(State)를 갖는다고 하면서 사건(event)과 주제(topic) 그리고 경험주(experience) 등이 ‘틀’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에 근거하면 모어 화자와 같은 백과사전적 어휘 지식을 학습자가 습득하기 위해서는 ‘틀’을 부여하는 사전(事前)(또는 배경) 지식이 요구되는데, 이 사전 지식은 본고의 연구 주제인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이 사용되는 상황 맥락의 ‘틀’로서, ‘사건’과 주제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의미의 동기가 되는 ‘틀’에 따라 화용적 변별 기제를 가시화하고자 한다. 인지언어학의 ‘틀의미론’을 연구한 김동환(1999:82)에서는 의미구조의 ‘틀’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단어와 그 단어를 담고 있는 문장이 표현하는 현상, 체험, 혹은 시나리오와 같은 ‘틀’을 식별해야 하

73) 리틀모어(Littlemore, 2009)에서는 ‘frame semantics’를 ‘프레임 의미론’이라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번역 식의 ‘틀의미론’을 사용한다.

74) 백과사전적 지식(encyclopedic knowledge)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단어 ‘goal’을 이해하려면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경기가 무엇이며, 어떻게, 어디에서 하는지 등의 많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배경 지식이 백과사전적 지식(encyclopedic knowledge)이 되며 ‘풋볼’, ‘하키’, ‘핸드볼’은 낱말 ‘goal’을 이해하기 위한 가능한 ‘틀’로 간주된다(Littlemore, 2009:99-100 참고).

고, 그 후 그 '틀'에 특정 명칭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같이 말뭉치 수집 및 분석 결과,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은 단어 사용의 배경이 되는 특정 상황 및 맥락 속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각 유의어들 간의 공통적이거나 변별되는 화용적 정보를 범주화할 수 있었다. 크게 '사건'과 '대상'으로 먼저 나눠지고, '사건'은 일어남의 여부에 따라 다시 하위분류되며, '사건'이 일어난 것은 '기대의 여부 및 정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대상'의 경우에는 '외적인 타인'과 '내적인 자신'으로 분류하였다.

3.3.1. 상황 맥락의 사건 분석

각 유의어들의 화용적 변별 기제 중 '사건'에 해당하는 상황 및 맥락을 말뭉치의 용례를 추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건'에 있어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은 공통적으로 '사건의 발생 여부'와 '기대의 여부 및 정도'에 의해 사용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은 '감격스럽다'의 용례이다.

(a) 그는 최소한 3개월이 걸린다는 조종사 자격증 취득을 2개월 안에 따기로 목표를 세웠고,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 마침내 2개월 만에 자격증을 취득하여 너무 <u>감격스러운</u> 나머지 고함을 질렀다.

(b) 한 대표는 추운 날씨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뜻으로 모여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u>감격스럽다고</u> 말했다.

(c) 이 방송국은 너무도 짧은 기간에 개국하였기 때문에 사원들은 별 탈 없이 TV전파를 발사한 자체가 <u>감격스럽다고</u> 했다.

(a)에서는 목표로 했던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감격스럽다'가 사용되었고, (b)는 추운 날씨로 인해 행사의 참여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기대 이상으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진 상황이며, (c)는 짧은 준비 기간으로 TV전파에 이상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무탈하게 진행된 상황이다. 모두 ‘사건이 일어난 상황’이고 (a)는 ‘기대했던 일’, (b)는 ‘기대 이상’ 그리고(c)는 ‘기대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상황으로 ‘기대의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감격스럽다’가 모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벅차다’의 사용상황을 보겠다.

(d) 김 선장은 "어린 시절 목포 앞바다를 오가던 돛단배를 타며 키웠던 요트 세계일주항해의 꿈을 마침내 이루게 돼 여간 가슴 벅차지 않습니다."고 덧붙인다.

(e) 뉴욕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현대미술관 관람. 직접 본 'Starry Starry Night'에 마음이 벅찼다. 여러 매체에서 이미 많이 봤지만 실제의 감동은 그 이상이었다.

(f) 한강의 강폭에 댈 것이 아닌 가느다란 센강에 유람선을 띄워놓은 형국이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어보였다. 그러나 강 양옆으로 즐비하게 늘어선 유서 깊은 건축물들을 보며 유람선이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환희와 만족으로 벅찼다.

(g) 다들 놀기 바쁜 이번 방학에 두 친구는 요리학원을 찾아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울 계획으로 가슴이 벅차다.

(d)는 어린 시절 고대했던 꿈을 마침내 이루게 되는 상황이며, (e)는 간접적으로만 보던 그림을 실제로 보게 된 감동이 기대 이상인 상황에서 ‘벅차다’가 사용되었다. (f)는 한강보다 작은 센강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큰 감동을 받은 경우이고 (g)는 ‘방학’이라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보이고 있다. ‘벅차다’는 ‘사건’에 대한 ‘기대 여부’에 따라 ‘기대했던 일이 일어남’, ‘기대했던 그 이상’ 그리고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남’의 3가지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앞서 4.1절에서 살펴본 ‘벅차다’의 통사적 결합관계에서 ‘벅차다’는 미래지향적 단어들과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상통하듯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 즉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할 때 ‘벅차다’의 사용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뭉클하다’의 용례이다.

(h) 사고의 충격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기다리던 '기적의 생환' 소식은 가뭄의 단비처럼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i) 추천받은 그 영화를 직접 보게 되었고 영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절절하여 영화가 끝나고도 그 여운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j)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직원들이 삼 개월 전부터 봉급의 10퍼센트를 각출했다며 나에게 봉투를 전했는데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콧등이 시큰거려 왔다.
(k)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한 이 러브스토리는 두 남녀가 삶과 죽음이라는 정반대의 길로 갈라져 우리를 가슴 뭉클하게 합니다.

'뭉클하다'는 '감격스럽다'와 마찬가지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기대의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쓰임을 보였다.

(h)는 기다리던 생존자의 소식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상황이 제시되었고, (i)에서 화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던 영화에 뭉클한 감정을 느꼈다. (h)는 '기대하던 일의 발생', (i)는 '발생한 일이 기대 이상'인 사용상황으로 볼 수 있다. (j)는 생각지도 않게 직원들이 어려운 회사 사정을 위해 봉급을 모아 사장에게 전해준 상황으로 '기대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해야할 점으로 '뭉클하다'가 다른 유의어들과 변별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일'에 있어서 다른 유의어들이 사용되는 긍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일에도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것의 용례로 (k)에서 기대와 달리 슬프게 결말을 맞는 영화에 대해 '뭉클하다'가 쓰였다.

이어서 '찡하다'의 사용상황을 보겠다.

(l)교회에 다니는 나는 동생을 위해 주일마다 기도하곤 했고, 옆에서 동생의 힘든 수험생활을 지켜봤기에 마침내 동생의 합격소식을 전화로 들었을 때 코끝이 찡해졌다.
(m)내가 먼저 사과하려고 했는데 누나가 먼저 그런 말을 하자 갑자기 코끝이 찡해왔다.
(n)우아하고 도도해 보여 부잣집 딸인 줄만 알았던 그녀가 아픈 어머니 병

원비를 위해 밤낮으로 안 해본 일이 없다는 말을 하니 갑자기 마음이 찡해졌다.

(l)는 동생의 합격을 위해 기도했던 화자가 마침내 합격소식을 듣는 장면으로 기대했던 일이 일어남을 보여준다. (m)은 생각지도 않게 먼저 사과한 누나의 행동에 코끝이 '찡해진' 상황이고, (n)은 구김살 없는 그녀가 사실은 힘든 가정환경을 겪고 있다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다. 위의 용례에서 본 바와 같이 '찡하다'는 '기대했던 일의 발생'과 '기대하지 않았던 일의 발생' 상황에서 쓰임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찡하다' 또한 '뭉클하다'처럼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양상을 발견하였다. 용례 (n)의 상황은 그녀가 아픈 어머니로 인해 힘들게 살아왔다는 슬픈 부정적인 상황에서 '찡한' 마음을 느꼈고, (m)은 누나가 먼저 사과를 하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찡함'을 느꼈다. 둘 다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긍정과 부정적인 상황에서 모두 사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뭉클하다'와 '찡하다'가 긍정과 부정적인 복합감정에 모두 사용된다는 점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뿌듯하다'를 보도록 하겠다.

(o)친구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어주려고 거짓 심부름을 보낸 적이 있는데 부쩍 가까워진 두 사람을 보니 뿌듯하기만 하다.

(p)아이들 유치원 비에 보탬이 되려고 우유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용돈벌이는 물론이고 새벽에 뛰어다니니 운동이 되어 좋고 신선한 우유로 이웃들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자부심도 생겨 마음 뿌듯하다.

(q)백 회장은 "민간자율의 수출협의회 구성은 선배 섬유인들이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선뜻 실천에 옮기지 못한 일인데 후배들이 해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다."고 격려했다.

(o)은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과 친구를 이어주려는 자신의 행동에 둘이 가까워져 뿌듯해하는 모습으로 '기대했던 일의 발생'이다. (p)에서는 우유

배달 일로 용돈뿐만 아니라 운동도 하고 이웃의 건강을 챙겨준다는 자부심까지 얻어 기대한 것보다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는 화자가 '뿌듯하다'를 사용하였다. (q)는 선배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후배들이 해낸 '기대하지 않은 일의 발생'의 상황을 보여준다. '감격스럽다', '벅차다'와 같이 '뿌듯하다' 또한 '기대한 일', '기대하지 않은 일'의 발생과 '기대 이상의 일'의 발생의 상황에서 용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상황맥락의 사건에 대한 변별 기제를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화용적 정보의 '사건' 변별 기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건				
	발생				발생하지 않음
	기대 없음		기대 있음		
	기대하지 않은 일의 발생		기대한 일의 발생[75]	기대 이상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
	긍정적 일	부정적 일			
감격스럽다	O	X	O	O	X
벅차다	O	X	O	O	O
뭉클하다	O	O	O	O	X
찡하다	O	O	O	X	X
뿌듯하다	O	X	O	O	X

말뭉치 용례 분석을 통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은 주로 '기대'와 관련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기대'에 따른 사건의 결과 혹은 '기대의 정도'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른 '기대'에 대해서도 달리 사용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불어 유의어들은 공통적으로 '기대하지 않은 긍정적인 일의 발생'과 '기대한 일의 발생'의 상황에서 모두 쓰임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감동이라는 감정의 본질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5개의 감동 표현 감동형용사 유의어 말뭉치에 의하면 공통

75) 여기에서 '기대한 일의 발생'은 '예상했던 일'이 아니라 '기대를 갖고 바라던 일의 발생'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적으로 ‘기대하지 않은 긍정적인 일’과 ‘기다리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동을 느낀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말뭉치 분석을 통해 다시 밝혀진 감동이라는 감정의 재정의로 볼 수 있겠다.

‘뭉클하다’와 ‘찡하다’는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 모두에 대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4.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뭉클하다’와 ‘찡하다’가 긍정적 및 부정적 복합감정에 모두 쓸 수 있다는 점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찡하다’를 제외한 나머지 유의어들은 ‘기대’의 정도에 있어서 ‘기대 이상’의 상황에서도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미래지향적 의미를 가지는 ‘벅차다’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도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3.3.2. 상황 맥락의 대상 분석

말뭉치 분석을 통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이 ‘성취 및 보람’, ‘도움’ 그리고 ‘희생 및 역경’에 대해서도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고는 화용적 정보의 변별 기제가 되는 ‘대상’에 있어서 ‘외적 대상’, ‘내적 대상’에 따라 분류하였고, ‘외적’은 ‘타인’을 대상으로 하고 ‘내적’은 ‘자신’을 대상으로 한다. ‘외적 대상’과 ‘내적 대상’에 따라 쓰임이 다르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말뭉치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다.

먼저 ‘감격스럽다’의 용례를 보도록 한다.

(a) 진 씨는 디자인 생활 30년 만에 파리컬렉션에 참가했고 전문가들의 호평에 이어 곧 유럽 진출을 할 수 있어서 더 <u>감격스럽다고</u> 밝혔다.
(b) 박 선수의 부친은 “박 선수가 어렸을 때, ‘이 다음에 내가 성공해서 대통령 만나게 해 드릴게요.’라고 말하곤 했는데, 아들 덕에 오늘 그 소망이 이뤄졌다”며 <u>감격스러워했다.</u>

(a)와 (b) 상황 모두 ‘성취’에 대해 ‘감격스럽다’가 사용되었는데 (a)는 화자 ‘자신의 성취’에 대한 것이고, (b)는 아들인 ‘타인의 성취’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감격스럽다’는 ‘성취 및 보람’에 있어서 ‘외적 대상’

과 ‘내적 대상’에 대해 모두 쓰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벅차다’를 살펴보겠다.

(c) 환자들이 내 덕택에 건강하게 살게 됐다고 작별 인사를 할 때는 저도 가슴이 벅차더군요.

(d)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56년 만에 마라톤 우승을 하는 황 선수의 모습을 보고 벅찬 감격을 누를 길이 없다.

‘감격스럽다’와 같이 ‘벅차다’ 또한 ‘성취’에 대한 상황에서 쓰임을 볼 수 있다. (c)의 경우 환자들의 건강을 찾아준 ‘자신의 성취’를 대상으로 하고, (d)는 마라톤 우승을 한 선수, 즉 ‘타인의 성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뭉클하다’의 사용상황을 보도록 한다.

(e) 8남매를 위해 봇짐을 이고 행상을 다니다 쓰러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다.

(f) 김 대통령이 뜨거운 박수 속에 평화의 메달을 받는 가슴 뭉클한 장면을 우리는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지켜봤다.

(g) 내가 그렇게 쌀쌀맞게 대했는데도 오히려 나를 걱정하며 데리러 온 동생에게 마음이 뭉클했다.

(e)의 화자는 어머니의 고생에 대해 뭉클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f)는 대통령이 메달을 받는 장면에서, 그리고 (g)의 화자는 동생의 도움에 뭉클한 느낌을 받았다. 순서대로 ‘타인의 희생 및 역경’, ‘타인의 성취 및 보람’ 그리고 ‘타인의 도움’을 대상으로 한다. ‘뭉클하다’는 다른 유의어와 달리 ‘타인’이라는 ‘외적 대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찡하다’의 사용을 알아보겠다.

(h) 6.6 현충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립니다. 볼 때마다 찡한 우리 태극기.

(i) 감기 걸렸다는 한마디에 도라지 보내주는 내 활력소. 내 친구야 고마워.

난 참 행복한 사람. 찡한 감동.

(j) 고생한 내 손 뭔가 찡하다. 오늘도 수고했어.

(h)에서는 '타인의 희생' 정신에 태극기를 떠올리면 찡한 마음이 든다고 표현하였고, (i)는 '타인의 도움'에 대해 고마운 마음과 감동을 느끼면서 '찡하다'를 사용하였다. (j)에서는 고생한 자신의 손에 찡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타인의 희생 및 역경', '타인의 도움' 그리고 '자신의 희생 및 역경'을 대상으로 하여 '찡하다'의 쓰임이 드러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뿌듯하다'의 용례를 분석하겠다.

(h) 아마도 어머니는 자식들이 커 가는 것에 뿌듯하고 행복감을 느끼셨던 모양이다.

(i) 신부 헤어부터 웨딩드레스까지 선택에 있어 내가 추천해드린 모든 것들에 만족감을 느끼실 때 뿌듯한 웨딩플래너 직업.

'뿌듯하다'는 '성취 및 보람'을 느끼는 상황에서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h)는 어머니가 자식들의 성장에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타인의 성취'와 관련한다. (i)는 웨딩플래너로서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자신의 성취 및 보람'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듯 '뿌듯하다'는 '내적 대상'과 '외적 대상'의 '성취'에 대해 모두 사용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분석한 대상별 변별 기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 화용적 정보의 '대상' 변별 기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대상				
	외적			내적	
	타인			자신	
	타인의 희생 및 역경	타인의 성취	타인의 도움	자신의 희생 및 역경	자신의 성취
감격스럽다	X	O	X	X	O
벅차다	X	O	X	X	O
뭉클하다	O	O	O	X	X
찡하다	O	X	O	O	X
뿌듯하다	X	O	X	X	O

위의 표와 같이 '대상'에 대한 변별 기제를 크게 '외적 대상'과 '내적 대상'으로 나누고 다시 '타인'과 '자신'에 대한 '희생 및 역경'과 '성취' 및 '도움'의 상황으로 범주화하였다.

'감격스럽다'와 '벅차다' 그리고 '뿌듯하다'는 의미의 인접성이 큰 만큼 둘 다 '타인의 성취'와 '자신의 성취'에 대해 사용되고 있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복합감정에서 세 유의어 모두 [+자랑스러움]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과 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취'와 '자랑스러움'의 감정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뭉클하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 [+자랑스러움]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기에 '타인의 성취'에 대해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주목할 점은 '뭉클하다'는 '내적 대상', 즉 '자신'을 대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적 대상'인 '타인의 성취', '타인의 희생 및 역경' 그리고 '타인의 도움'에 대한 감정을 드러낼 때 '뭉클하다'가 쓰였다. 이는 '뭉클하다'의 변별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찡하다'는 '타인의 희생 및 역경', '타인의 도움' 그리고 '자신의 희생 및 역경'에 대해 사용되었다. '뭉클하다'와는 달리 '내적 대상'에 대해서도 쓰이지만 공통적으로는 '뭉클하다'와 같이 '희생 및 역경'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두 유의어 모두 [+슬픔]의 복합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희생과 역경'을 배경으로 한 상황에서 [+슬픔]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은 ‘찡하다’를 제외한 ‘감격스럽다’, ‘벅차다’, ‘뭉클하다’, ‘뿌듯하다’가 사용된 ‘타인의 성취’의 부분에서 이 ‘타인’은 주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또는 집단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또는 나라의 성과 및 성취에 대해 유의어들이 사용됨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국가’는 ‘자신’을 대표한다는 점과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요컨대, 지금까지 탐구한 바에 따라 변별 기제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고에서는 이를 Ⅲ장 연구의 틀로 상정하고자 한다.

Ⅲ. 한국어 모어 화자와 고급 학습자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 양상

본 장에서는 앞서 Ⅱ장에서 논의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변별 기제를 토대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고급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비교 및 분석할 것이다. 더불어 사용 양상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후 면담을 진행하여 더욱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외국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모어 화자 또한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이유 및 Ⅲ장의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변별 기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분석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 직관에 근거하였기에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직관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보완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구본관 외(2014:579)에서는 문법 학자들이 문법적으로 바른 표현과 원어민의 어휘 사용 방식을 규정한다고 할지라도 실생활에서 원어민이 그 규정에 따라 어휘를 구사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즉 면밀한 연구를 통해 설정한 변별 기제라 하더라도 모어 화자의 실제 어휘 사용이 어떠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모어 화자들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의 경향성을 연구의 기준으로 채택하기 위함이다. 민현식 외(2019:78)에 의하면 단어의 의미가 유동적이라도 일상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근거해 언중이 공유하고 합의하는 일정한 의미가 상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유의어들은 의미적으로 매우 인접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문장에서는 몇몇의 단어가 중복 답이 되기도 하나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에 따르면 유의어마다 사용의 경향성은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사용 양상 조사의 각 항목에서 모어 화자들의 응답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어휘들을 언중이 합의하는 의미로 가정하고 이러한 경향성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의 응답과 비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어휘 사용 양상을 관찰하고 학습자의 그것과 비교하여, 나아가 학습자가 모어 화자와 같은 어휘 사용 능력 및 유창성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본고는 사후 면담을 통해 '왜' 그러한 사용을 보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사용 양상 차이 및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면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한국어 유의어 관련 연구들이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유의어 사용을 단순 비교하는 것에 그쳤다는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목적을 위해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한국어 모어 화자와 고급 학습자들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사용 및 변별 기제 활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2. 두 집단의 사용 양상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변별 기제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 3. 두 집단의 사용 양상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위의 두 가지 연구 문제의 답을 도출하기 위해 유의어 변별 테스트와 사후 면담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세한 연구 설계 및 내용은 다음 절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1. 연구의 설계

1.1. 연구 대상

1.1.1. 연구 어휘 선정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선정에 있어 감동 표현 어휘의 선행 연구들뿐만 아니라 유의어 사전 또한 활용하였다. 유의어 사전의 활용은 첫째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어휘 목록 외에 더 많은 감동 표현 감정

형용사를 확보하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추출한 어휘들의 품사를 확인하고 각 어휘들이 서로 유의 관계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로부터 어휘 선정 과정에서 '형용사'와 '유의어'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 많은 감동 표현의 감정형용사 유의어를 추출하기 위해 1차적으로 『비슷한 말 반대말 사전』과 『넓은 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76] 에서 먼저 '감동'이 들어간 단어를 모두 찾아보았다.

<표 28> 유의어 사전에서 추출한 '감동-' 유의어

사전	'감동-'의 유의어	2차 유의어
『비슷한말 반대말 사전』	감동(명)	느낌, 감격, 감복, 감명, 흥분
	감동하다(형)[77]	느끼다
『넓은 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	감동(명)	느낌, 감격, 감명, 감탄, 자극, 감명적, 감복, 탄복, 감열
	감동하다(동)	느끼다, 감격하다, 뭉클하다, 흥분하다, 감복하다, 감명하다
	감동적(관)(명)	감명, 감명적

공통적으로 '느낌(느끼다)', '감격(하다)', '감복(하다)', '감명(하다)'의 유의어가 나타났는데, 모두 명사 또는 동사로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형용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감동적', '감명적', '감격적' 또한 형용사로 볼 수 없다. 사전에서 표기하는 '감동적', '감명적', '감격적'의 품사는 명사 또는 관형사이며 고영근·구본관(2018:123)에서는 관형사를 용언이 아닌 독립된 품사라고 하였다. '감동적', '감명적', '감격적'과 같은 '-적(的)'은 주로 한자어 추상 명사와 결합하여 명사 내지 관형사를 파생

76) 두 유의어 사전을 선택한 이유는 『넓은 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이 유의어 사전 중 가장 많은 양의 유의어들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두 사전이 감동 관련 유의어를 제시하는 사전으로 유일했다.

77) 『비슷한말 반대말 사전』에서는 '감동하다'를 형용사로 보고 있으나 본고에서 찾아본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넓은 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에서 모두 '감동하다'의 품사를 동사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감동하다'를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로 포함하지 않았다.

한다. '-적(的)'은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구본관 외, 2015:159), '-이다'의 품사에 대해서 구본관 외(2015:182)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다'의 형태론적인 특성은 동사나 형용사처럼 어미를 취하여 활용을 하지만 형용사로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78]가 있으므로 형용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적(的)'과 '이다'의 품사에 관련해서는 많은 지금까지도 많은 논쟁이 있으므로, '감동적이다', '감명적이다', '감격적이다'를 형용사로 간주하기 어려워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뭉클하다'만 선정되었다.

한편 형용사를 형성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생접미사 '-스럽-'[79]과 유의어 사전에서 찾은 '감동'의 유의어 명사들이 조합된 어휘들을 찾을 수 있었다. 1차 유의어 사전에서 검색된 명사 유의어 '느낌', '흥분', '자극', '감복', '탄복', '감열'은 '-스럽-'으로 결합된 어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외되었고, 나머지 '-스럽-'의 파생 형용사인 '감격스럽다', '감명스럽다', '감탄스럽다'를 추출하였다.[80]

더불어 '-스럽-'의 파생 형용사로 추출된 어휘 중, '감격스럽다'의 유의어로『비슷한 말 반대말 사전』에서 '감동스럽다', '(가슴이) 벅차다'를 제시하고 있어 이들 또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로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는 '뭉클하다', '감격스럽다', '감명스럽다', '감탄스럽다', '감동스럽다', '벅차다'이다.

다음으로 김은영(2009), 차경미(2013), 정미지(2015)에서 제시한 감동 표현 어휘 목록에서 형용사의 품사를 기준으로 몇 개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를 선별하였다.

---

78) '이다'를 형용사로 간주하기에는 선행 체언과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점,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흔히 탈락한다는 점, 선행 체언 뒤에 격조사를 붙일 수 없는 점 등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구본관 외, 2015:182).

79) '-스럽-'은 다른 형용사 파생 접미사보다 생산성이 높고 '어근의 속성에 근접함'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스럽-'은 명사나 명사성 어근과 결합하여 형용사를 만든다(구본관 외, 2015:146-147).

80) 구본관 외(2015:146-147)에서는 형용사 파생 접미사로 '-스럽-'외에 '-롭-', '-되-', '-답-', '-하-', '-다랗-'을 제시하고 있는데, '-답-'은 주로 '~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기에 감정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 외 '-스럽-'을 제외한 다른 접미사로 생산된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존재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표 29> 감동 표현 어휘 연구의 어휘 목록에서 선별한 형용사

연구자	감동 표현 어휘 연구의 어휘 목록 중 형용사
김은영(2009)	감개무량하다, 감격스럽다, 뭉클하다, 벅차다, 찡하다
차경미(2013)	감개무량하다, 감격무지하다, 감사하다05[81]
정미지(2015)	감격스럽다, 벅차다, 뭉클하다, 찡하다, 뿌듯하다

<표 29>로부터 '감개무량하다', '감격무지하다', '감사하다', '찡하다', '뿌듯하다'를 추가하였다.[82]. 이로써 1·2차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어휘는 '뭉클하다', '감격스럽다', '감탄스럽다', '감명스럽다', '감동스럽다', '벅차다', '감개무량하다', '감격무지하다', '감사하다05', '찡하다', '뿌듯하다'의 11개이다. 위의 선정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표 30>와 같다.

<표 30>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선정의 1·2차 과정

<table>
<tr><th>1차</th><th></th><th colspan="5">2차</th></tr>
<tr><td rowspan="2">유의어
사전</td><td rowspan="3">+</td><td>명사+'-스럽-'</td><td rowspan="3">+</td><td>'감격스럽다'
유의어</td><td rowspan="3">+</td><td rowspan="2">김은영(2009)
차경미(2013)
정미지(2015)</td></tr>
<tr><td rowspan="2">뭉클하다</td><td rowspan="2">감격스럽다
감탄스럽다
감명스럽다</td><td rowspan="2">감동스럽다
벅차다</td></tr>
<tr><td>감개무량하다
감격무지하다
감사하다05
찡하다
뿌듯하다</td></tr>
</table>

한편, 어휘 사전에 등재된 대다수의 단어들은 현재 잘 쓰이지 않는 유령어(ghost word)이기에(차경미, 2013:61), 어휘 등급이나 빈도수를 고려

81)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감사하다'는 동사와 형용사의 품사를 갖는데, 동사의 경우 '고맙게 여기다', 형용사의 경우 '고마운 마음이 있다'의 뜻이 있다.

82) 김은영(2009)와 정미지(2015)에서 제시한 '뿌듯하다'와 '찡하다'는 유의어 사전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므로 감동의 표현과 의미적으로 유사성이 있는지 재검토하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찾아보았다. '뿌듯하다'는 '기쁨이나 감격이 마음에 가득차서 벅차다', '찡하다'는 '감동을 받아 가슴 따위가 뻐근한 데가 있다'로 앞서 선정한 '벅차다'와 '뿌듯하다'가 의미적 관련성이 있었고, '찡하다' 또한 '감동'을 받아서 나오는 감정이라는 풀이 부분에서 유의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어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선정한 어휘의 교육적 유용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3차 선정 과정으로 국립국어원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4단계)』 보고서와 『한국어 교육 어휘내용 개발 (4단계)』 보고서의 어휘 목록에서 각 유의어들의 등급과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유의어들의 빈도수와 등급을 보면 아래의 <표 31>과 같다.

<표 31>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빈도수와 등급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빈도수[83]	등급
감격스럽다	7	고급
	66	
벅차다	29	고급
	286	
뭉클하다	10	고급
	105	
찡하다	7	고급
	13	
뿌듯하다	12	고급
	167	

조사 결과, '감개무량하다', '감격무지하다', '감사하다05', '감탄스럽다', '감명스럽다', '감동스럽다'는 국립국어원의 두 보고서의 어휘 목록에서 찾을 수 없었다.[84] 이에 따라 위 어휘들은 한국어 교육용 어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제외하기로 하였다. 위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감격스럽다', '벅차다', '뭉클하다', '찡하다', '뿌듯하다'의 5개 유의어를 선별하였다. 유의어들 중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단어는 '벅차다'와 '뭉클하다'였으며, 모두 고급에 속했다.[85] 지금까지의 선정 과정을 정리하면

83)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4단계)』 보고서는 어휘들의 빈도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조남호(2002),『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와 강범모·김홍규(2009),『한국어 사용빈도』를 참고하였다. <표 31>의 빈도수 줄에서 첫 번째 칸은 조남호(2002), 두 번째 칸은 강범모(2009)의 빈도수이다.

84) '감개무량하다', '감격무지하다', '감사하다05', '감탄스럽다', '감명스럽다', '감동스럽다'는 어휘 목록에 명사형만 있거나 어휘가 아닌 문장 차원의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다.

85)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4단계)』는 어휘의 등급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누고 있는데, 선정한 '감격스럽다', '벅차다', '뭉클하다', '찡하다', '뿌듯하다'는 5급-6급으로 고급에 속했다.

다음과 같다.

<표 32>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선정 과정

‘감동’ 검색	⇒	①명사+‘-스럽-’조합 ②‘감격스럽다’유의어 ③김은영(2009) 정미지(2015) 최경미(2013)참고	⇒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및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개발(4단계)』	⇒	감격스럽다 벅차다 뭉클하다 찡하다 뿌듯하다
1차 유의어 사전		2차 선정 유의어 추가		3차 교육용 어휘 판별		최종 선별

1.1.2. 연구 참여자 선정

<표 33> 사용 양상 연구 참여자 정보

한국인 모어 화자	외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86]
80명[87](여성 35 , 남성 45)	52명(여성 28, 남성 24)
20~40대[88]	20~40대[89]
직종 및 전공 분야 다양	직종 및 전공 분야 다양 총 14개 국적[90]

86)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 중 73.1%가 한국어능력시험(이하 TOPIK) 5급 또는 6급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TOPIK 5-6급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이 취득한 경험이 있으며 만료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참여한 외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평균 한국 거주기간은 4년 이상, 한국어 학습 기간은 평균 3년 이상이었다.

87) 한국어 모어 화자의 본래 조사 참여자는 84명이었으나 4명은 응답이 기재되지 않은 허수 응답으로 인해 제외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어 모어 화자가 각 문항별 가장 많이 선택한 답변을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어휘 사용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기에 최대한 많은 수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88) 한국인 모어 화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61.3%(4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8.7%(23명), 40대가 10%(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89)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71.2%(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5%(13명), 40대가 2.5%(2명)였다.

90) 총 14개 국적의 학습자가 참여하였으며 가장 많은 학습자의 국적은 프랑스(14명)였고 그 뒤로 중국(11명), 미국(6명), 대만(5명), 독일(3명), 영국(2명), 미얀마(2명), 우즈베키스탄(2명), 베트남(1명), 뉴질랜드(1명), 러시아(1명), 모로코(1명), 프랑스·모로코(1

본 연구는 외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고에서 선정한 5개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이 모두 고급 수준에 속하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5개 유의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고급 학습자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사한 수준의 감정 표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모어 화자와의 간극이 비교적 좁은 외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가 본 연구의 대상이 되겠다.

셀린커(Selinker, 1972)는 제2언어 학습자들의 언어를 그 자체의 규칙과 특성을 지닌 언어 체계로 보고 이것을 '중간언어(interlanguage)'라고 하였다. 이러한 중간언어의 관점은 제2언어 학습자의 오류를 모국어 습관의 지속이 아닌 그 자체로 발달 단계를 밟는 하나의 독립된 언어로 보았으며 제2언어 학습자의 언어(중간언어)를 언어학적으로 규명하였다(Corder, 1967:9). 이에 근거하면 외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에 대한 학습자 나름의 언어 체계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밝혀내고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체계화하는 것이 Ⅲ장의 목표가 되겠다. 이처럼 학습자는 모국어의 영향보다는 학습자 내적 규칙의 지배를 받아 모어(L1)도 목표언어(L2)도 아닌 학습자가 만들어 낸 독자적 언어 체계의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된다(위햇님, 2009:24-25)는 이론에 입각하여 대조분석적인 관점보다는 중간언어의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특정 언어권의 대조분석 양상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되, 한국어 고급학습자 선정에 있어서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두었다. 먼저, TOPIK 5급 또는 6급[91] 소지자 또는 국내 대학원 과정을 모두 한국어로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졸업자) 혹은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무 중이며 한국어로 모든 업무[92]를 수행

명), 오스트리아(1명), 호주(1명) 순이었다.

91) 본 연구에서 선정한 5개의 유의어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에서 고급 어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TOPIK의 1-2급은 초급, 3-4급은 중급 그리고 5-6급은 고급이라고 하였다.

92)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에서 고급인 5-6급은 자신의 업무나 학업에 관련된 의사소통 기능을 한국어로 수행하며 자신의 직업이나 학문 영역

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본 조사에 참여한 고급 학습자는 총 14개 국적의 학습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국적별로 볼 때 프랑스(14명)가 가장 많았고 언어권별로 살펴보면 중국어권(16명), 프랑스어권(16명) 그리고 영어권(10명) 순으로 많았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인들 또한 어느 특정 집단의 경향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인들을 모집하였고, 연령대 또한 20~40대까지 넓혀서 진행하였다.

다음은 사후 면담[93] 대상에 대한 정보다.

<표 34> 사후 심층 면담 참여자 정보

한국어 모어 화자				외국인 고급 학습자[94]					
참여자	연령	성별	직종 또는 전공	참여자	연령	성별	직종 또는 전공	국적	토픽
가	30대	여	보건	A	20대	남	한국어 교육	중국	6
나	30대	남	법률	B	20대	남	한국어 교육	영국	6
다	30대	남	마케팅	C	30대	남	번역	프랑스	5
라	20대	여	금융						

본 연구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선택에 있어서 일반적인 모

에 대해 유창하게 다룰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TOPIK 급수가 없더라도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한국어를 사용하여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외국인 대학원생 및 졸업생 또한 연구의 고급 학습자로 선정하였다.

93) 김지민·신승용(2012:34, 39-40)에서는 어휘오류 연구에서의 면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어휘의 오류를 판정할 때 학습자가 표현하고자 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무엇의 오류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직접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 어휘가 맥락에서 적절히 사용되었는지의 유무를 알 수 있고, 또한 해당 어휘를 사용하여 다른 표현을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해당 어휘의 사용이 일회적인 잘못인지 아닌지 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사후 면담이 이루어졌다.

94) 외국인 고급 학습자 A와 B는 각각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생과 석사과정생이며 C는 국내에서 번역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다. 세 참여자 모두 한국어 공부 기간이 5년 이상이며, 국내거주기간은 A는 3년 미만, B는 1년 미만 그리고 C는 5년 이상이다.

어 화자의 직관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였으므로 면담 대상의 한국어 모어 화자는 한국어 교육과 무관한 일반인을 선정하였다. 또한 본 조사에서 가장 큰 연령 비율을 차지하는 20~30대로 선정하였으며 외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경우, 사용 양상 조사에서 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언어권별(프랑스어, 중국어, 영어)순으로 중국어권 학습자, 프랑스어권 학습자 그리고 영어권 학습자 각각 1명씩 선정하여 진행하였다.[95]

1.2. 연구 절차 및 방법

Ⅲ장의 연구는 크게 선다형 유의어 변별성 판단 테스트와 사후 면담의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표 35> 조사 및 면담 절차

<예비 조사> 2019년 11월 9일~11월 13일 모어 화자 17명[96]/외국인 학습자 17명[97]
↓
<본 조사> 2020년 02월 26일~03월 13일 모어 화자 80명/외국인 학습자 52명
↓
<사후 면담> 2020년 03월09일~03월 13일 본 조사 참여자 중 모어 화자 4명/외국인 학습자 3명
↓
조사 결과 비교 및 분석

95) 본 연구는 외국인 고급 학습자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를 사용할 때 변별 기제 적용에 있어서 모국어의 간섭보다는 언어 내적 오류가 더 클 것이라는 가설 하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외국인인 학습자들에게 모국어의 영향을 아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본 조사 참여자들 중 참여자 수가 가장 높은 순위의 언어권별(프랑스어, 중국어, 영어)로 사후 면담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누난(Nunan, 2009:201)은 산출과제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둘 이상의 자료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다형(multiple choice form) 유의어 변별성 판단 테스트(Discriminative Ability of Synonym Judgement Test)[98][99]와 사후 심층 면담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연구의 내적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하고자 하는 어휘를 이미 선정하였기에 과제는 폐쇄형 문항[100]의 선다형 방식[101]을 선택하여 응답자들이 반응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히고 수량화와 분석이 쉽도록 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테스트 문항을 일부 수정

---

96) 한국어 모어 화자 예비실험집단의 연령은 20~30대, 남성 6명, 여성 11명이 예비조사에 참여했다.

97) 예비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실험집단의 연령은 20~30대, 남성 10명, 여성 7명이 참여하였다. 10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참여자들로서, 한국체류 평균 기간은 3년, 평균 학습기간은 4.2년이었고 절반 이상이 TOPIK 6급(나머지 5급 3명, 없음 3명)을 소지하고 있었다.

98) 김호정(2018)의 연구에 의하면 문법성 판단 테스트(Grammatically Judgement Test: GJT)는 '문법'에 대한 암시적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다양하게 유형화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일부는 전형적인 GJT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어휘 지식을 묻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방식은 GJT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에 대한 어휘 능력(지식)을 보고자 하므로 GJT를 완전히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고는 GJT를 참고하여 '어휘'에 초점을 두고 유의어 변별을 판단할 수 있는 문항을 제작하였고, 이를 '유의어 변별성 판단 테스트'라고 명명하였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전형적인 유형은 진위형이나, 어휘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안다, 모른다의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기에 질적인 차원의 어휘 능력이 강조되어야 한다(이기연, 2014:187). 더불어 본고에서 선정한 5개의 어휘가 유의어이므로 어떤 어휘가 맞고 틀리는지 진위 여부보다는 어떤 어휘가 문맥에 가장 알맞고 자연스러운지를 보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므로 선다형의 유형을 선택하였다. 또한 유의어의 변별은 통사, 의미, 화용의 측면에서 가능하므로 이들의 정보가 포함된 문항들을 제작하였다.

99) '문법성'이란 '언어 사용자의 내재화 된 능력/직관(Chomsky, 1965:3-4; Kelleman, 1986; Schütze, 2016:21)'을 가리키고 발화자의 '문법 능력' 즉, '문법 지식'을 의미한다(김호정, 2018:433 재인용). 이에 근거하면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변별성'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변별에 대한 직관과 동시에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변별 능력(지식)이다.

100) 누난(Nunan, 2009:205,208)은 폐쇄형 문항은 응답의 범위를 연구자가 결정하여 응답한 것들을 수량화하고 분석하기가 쉬우며, 응답들의 비교가 쉬운 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101) 선다형 문항은 채점하기 쉽고, TOEFL과 같은 표준화 테스트로도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공인된 테스트로 인정을 받고 있다(Nation, 2018:591).

하였고,[102] 수정된 문항들은 다시 한번 S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석사 졸업생 1명과 박사 과정생 2명의 자문을 받아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몇 개의 문항이 최종 수정 및 확인되었다. 테스트는 총 31문항[10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SJ-RIKS 코퍼스 확장판과 SNS 말뭉치 중 앞서 설정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포함한 문장들을 추출하여 작성되었다. 자세한 문항 구성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36> 문항 구성 정보

변별 기제	세부 분류	문항 수[104]
형태·통사 정보	연어 관계	10개
의미 정보	복합감정	25개
화용 정보[105]	사건	18개
	대상	21개

아래의 문항은 본 조사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31개 문항 중 하나이다[106].

102) 테스트 항목의 대부분은 말뭉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는데 SNS의 말뭉치에서 추출한 문장들은 구어체이기 때문에 주어가 빠지고 앞뒤 상황 맥락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어 말뭉치에서 추출한 문장도 너무 길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모두 수렴하여 수정하였다.

103) 일반적으로 좋은 어휘 테스트란 최소 30문항으로 문항수가 많아 신뢰도가 높고(Beglar and Hunt, 1999), 테스트하고 싶은 종류의 어휘 지식을 학습자가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문항 유형을 사용하는 테스트이다(Nation, 2018:588).

104) 변별 기제가 크게 3가지로 나눠지나 한 가지 기제로 유의어를 변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유의어가 사용될 때 여러 변별 기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문항이 많았다.

105) '사건'과 '대상'에서 중복된 문항을 제외하면 화용정보가 포함된 문항 수는 총 18개다.

106) 31개의 전체 문항은 부록에 기재하였다.

<표 37> 유의어 변별성 판단 테스트 문항

15) 드디어 쿠션을 완성했다. 두 달이 걸린 것 같다. 직접 손바느질해서 완성하니까 ( ). 1.감격스럽다 2.벅차다 3.뭉클하다 4.찡하다 5.뿌듯하다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5개가 선택지로 제시되어 있고 테스트 참여자들에게 괄호 안에 가장 적합하다고 선택한 단어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다.[107]

유의어 변별성 판단 테스트를 통해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사용양상을 확인하였고, 이후에는 참여자 중 몇 명과 사후 면담을 진행하여 어휘 사용의 이유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면담은 연구의 주제와 논점 중심으로 진행하기 위해 반구조화(semi-structured)[108] 방식을 채택하였다. 다음 <표 38>은 연구를 위해 진행된 사후 심층 면담 내용의 일부분이다.

107) 본 연구의 테스트 문항들은 5개의 선택지가 정해져 있는 폐쇄형으로 실제 언어 현실에 있어서 응답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개방형 문항과 비교해볼 때 답변이 유도되고 인위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유의어를 5가지로 한정하였다는 점과 연구의 조사 및 분석 용이성을 보았을 때 폐쇄형 문항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108) 반구조화(semi-structured) 면담은 연구자가 면담 계획과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질문 목록을 미리 정해두지 않거나 미리 준비해 둔 질문 목록을 일종의 지침으로 참고하는 형태이다. 연구자가 인터뷰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연구 참여자에게도 융통성이 부여되며 질문보다는 주제와 논점이 면담 방향을 결정한다. 연구자가 거의 통제할 수 없는 비구조적 인터뷰와 형식화된 구조적 인터뷰에 비하여 유연성을 갖는다(Nunan, 2009:213-21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304-305).

<표 38> 사후 면담 내용

연[109])): 이 문항은 어때요?
B): 제가 엄청 열심히 했던 거? 드디어 해내가지고 '뿌듯했다.' '잘했다.' 이런 느낌.
연): 내가 해내서?
B): 내가 해내서. 맞아요.

사후 면담은 본 조사의 문항을 바탕으로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는 먼저 31문항의 유의어 선택 과제에 참여한 뒤, 연구자는 심층 면담에서 참여자의 과제 응답에 따라 질문을 하였는데[110] 기본적으로 '왜 이 어휘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우선되었다. 두 번째로는 응답자의 답변이 아닌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가 질문을 통해 참여자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각각 다른 어휘가 사용되었을 때를 가정해 보게 하고, 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자세히 구술하게 함으로써 유의어에 대한 이해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세 번째로는 참여자들이 어떤 변별 기제를 가지고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를 선택하는지 면밀히 보고자 하였다. 다음은 사후 면담을 실시한 세부 일정[111]이다.

109) '연'은 연구자의 줄임말이고 'B'는 심층면담에 참여한 외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 중 한 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표 34>에 기재하였다.

110) 사후 면담에서는 회상 프로토콜(retrospective protocol)의 기법을 참고하였는데, 사고 구술(think-aloud)의 기법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참여자의 사고 과정을 진술하게 한다는 점에서 참여자에게 부담을 주고 사고 과정을 방해한다는 단점이 있기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306) 이를 피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과제 수행 직후 면담을 통해 과제 수행 과정을 회상하도록 하였고,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Ericsson & Simon, 1993)하였다.

111) 면대면 인터뷰의 경우 면담자와 피면담자가 직접 만나서 실시되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비해 더 자세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신상근, 2014). 이처럼 면담은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면담 당시 전국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대대적으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라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매체로 스카이프(Skype)와 카카오톡(KakaoTalk)을 활용하였다.

<표 39> 사후 면담 참여자별 세부 일정

한국인 모어 화자		외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	
참여자 가	2020년 3월 9일	참여자 A	2020년 3월 10일
참여자 나	2020년 3월 10일	참여자 B	2020년 3월 12일
참여자 다	2020년 3월 11일	참여자 C	2020년 3월 13일
참여자 라	2020년 3월 12일		

사후 심층 면담은 평균 1시간 정도의 질문과 응답으로 이루어졌으며 어휘 선택 과제에 관한 질문 외에도, 외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에게는 5가지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를 학습한 적이 있는지 등 학습 경험 관련 질문을 하였고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는 각 유의어를 생각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상황과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2.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 양상 비교·분석

본 절에서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에 있어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가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한다.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사용양상을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외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한국인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 또한 조사하였다. 요컨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유의어 사용을 기준 삼아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유의어 사용을 비교할 것이다.[112] 둘째, Ⅱ장에서 마련한 변별 기제에 따라 한국인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어휘 사용 선택 비율 및 순위를 정리하여 비교 및

112) 코더(Corder,1981:75)는 어떤 문장이 허용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면 그 문장은 오류의 성격을 띤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이 적절성에 벗어난다면 오류로 간주하여 분석할 것이며, 적절성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한다.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사후 면담을 통해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각 유의어에 대한 사용 이유를 알아보고 이를 비교 및 분석한다. 더불어 두 집단의 유의어 사용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규명할 것이다.

두 집단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본고는 양적 연구 방법으로 통계 프로그램 SPSS의 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활용하였다.[113]

<표 40> 한국어 모어 화자와 고급 학습자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의 문항별 정확 검정 통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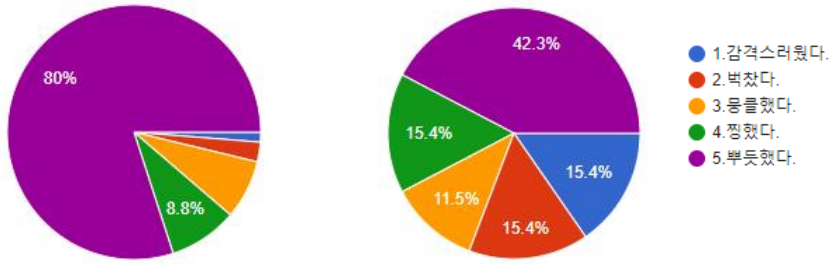
1	P=0	11	P=0.001	21	P=0
2	P=0	12	P=0.013	22	P=0.005
3	P=0	13	P=0.001	23	P=0.04
4	P=0	14	P=0.001	24	P=0.004
5	P=0.0027	15	P=0.002	25	P=0
6	P=0	16	P=0	26	P=0.015
7	P=0.130 (P>0.05)	17	P=0	27	P=0.016
8	P=0.001	18	P=0	28	P=0.004
9	P=0.812 (P>0.05)	19	P=0.001	29	P=0.1 (P>0.05)
10	P=0.062 (P>0.05)	20	P=0.004	30	P=0.253 (P>0.05)
				31	P=0

113) 김석우 외(2007:140)에서는 조사 문항의 수는 처음에 최소 1.5~2배수 이상의 많은 수의 문항을 만든 후 문항 분석을 통하여 줄여 나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는데, 문항이 너무 많으면 참여자가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의 조사는 Ⅱ장의 변별 기제에 따라 문항이 제작되었고 변별 기제가 총 19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문항의 경우의 수가 많았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한 하위요소에 대해 한 문장만 제작하는 것보다 두 세 문항으로 더 물어보아야 더욱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신상근, 2014:121) 예비 조사에서 진행한 31개 문항수를 본 조사에서 줄이지 않았다. 본 조사의 참여자는 한국어 모어 화자 80명과 외국인 고급 학습자 52명으로 모어 화자에 비해 고급 학습자의 표본 수가 작고 조사 문항이 많은 편이므로 기대빈도 5이하인 셀이 많아져 카이제곱(Chi-Square) 검정 값의 신뢰도가 낮아진다(신상근, 2014). 이러한 이유로 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총 31문항 중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던 문항(P>0.05)[114]인 문항 7번, 9번, 10번, 29번 그리고 30번의 5개를 제외한 26개 문항에서 정확 검정 유의확률(P) <0.05로 두 변수 간 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므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

고급 학습자들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에 있어서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일관성이 떨어지는 차이도 보였다.

25) 며칠 전 이사 간 후배에게 내가 직접 그린 꽃 그림을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직접 그린 그림은 처음 받아본다며 예쁘다고 좋아하는 후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뿌듯했다).



<한국어 모어 화자> <외국인 고급 학습자>

[그림 4] 모어 화자와 고급 학습자의 감동 표현 형용사 유의어 사용의 경향 비교

전반적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는 각 문항에서 응답의 50% 이상이 하나의 어휘로 크게 집중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인 반면, 외국인 학습자의 각 문항별 어휘의 선택은 하나로 집중되지 못하고 [그림4]와 같이 분산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후 면담을 통해 더 살펴봐야겠으나 이는 모어 화자와 달리 외국인 고급 학습자가 5개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에 있어서 혼란을 겪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또한 고

114) 이 5개의 문항은 모어 화자와 고급 학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어휘가 같거나 차순위 선택 어휘들의 선택 비율이 매우 비슷했다.

급 학습자가 테스트의 전체 문항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어휘 선택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문항이 18개였으나 한국어 모어 화자는 31개 문항 중 5개에 불과했다. 많은 항목에서 학습자들은 모어 화자와 동일한 어휘를 선택하더라도 선택률에 있어서 큰 격차를 보였다.

이상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전반적인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두 집단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확인하였다. 또한 고급 학습자들은 사용 경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고, 절반 이상의 항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어휘들의 선택 비율이 50%를 넘지 못했으며 모어 화자와 동일한 어휘를 선택하더라도 선택률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고급 학습자들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변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시사한다.

이어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통사, 의미, 화용적 변별 기제에 따라 한국어 모어 화자와 고급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더욱 면밀하게 비교 및 분석할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7번, 9번, 10번, 29번, 30번 문항들은 비교분석하지 않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만 살펴보도록 한다.

2.1. 통사적 변별 기제의 사용 양상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통사적 정보 변별 기제에서 ‘감격스럽다’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유의어가 ‘마음’ 또는 ‘가슴’과 결합하고, ‘찡하다’는 ‘코’와도 결합하는 연어 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연어 관계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통사적 정보이기 때문에 어휘 유창성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음은 한국인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통사적 정보의 사용을 비교한 것이다.

<표 41> 통사적 변별 정보 문항의 사용 양상 비교

문항	문장 및 상황[115]	한국어 모어 화자			외국인 고급 학습자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1	하나의 ()한[116] 감동	벅차다 (92.5)	-	-	감격스럽다 (44.2)	벅차다 (32.7)	뭉클하다 (13.5)
2	가슴도 ( )	뭉클하다 (77.5)	-	-	뭉클하다 (42.3)	벅차다 (25)	뿌듯하다 (13.5)
3	코끝이 ( )	찡하다 (100)	-	-	찡하다 (75)	뭉클하다 (21.2)	-
4	마음 한 구석이 ( )	뭉클하다 (47.5)	찡하다 (40)	-	뭉클하다 (30)	뿌듯하다 (28.8)	찡하다 (19.2)
5	가슴 ( )고 했다	뿌듯하다 (50)	벅차다 (35)	뭉클하다 (11.2)	뿌듯하다 (32.7)	벅차다 (30.8)	뭉클하다 (19.2)
8	가슴 ( )한 일이죠	벅차다 (89.9)	-	-	벅차다 (63.5)	감격스럽다 (13.5)	뭉클하다 (11.5)
18	마음이 ( ).	벅차다 (73.8)	-	-	벅차다 (48.1)	찡하다 (17.3)	뿌듯하다 (13.5)
20	마음이 ( ).	뭉클하다 (56.3)	감격스럽다 (18.8)	찡하다 (11.3)	감격스럽다 (27.5)	뭉클하다 (25.5)	뿌듯하다 (19.6)
21	마음이 ( ).	찡하다 (85)	뭉클하다 (13.8)	-	찡하다 (49)	뭉클하다 (35.3)	-
25	마음이 ( ).	뿌듯하다 (80)	-	-	뿌듯하다 (42.3)	감격스럽다, 벅차다, 찡하다 (15.4)	-

115) 연어 관계에서는 의미적, 화용적 정보를 제외한 단어의 결합만을 고려하므로 상황보다는 연어 결합 부분의 문장만 기재하였다.
116) 본고에서 제시하는 표의 통일성을 위해 각 문항의 모든 답은 기본형으로 기재하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연어 관계 정보가 포함된 문항은 10개였다. 그 중 한국인 모어 화자는 5개의 문항에서 80%의 높은 비율로 하나의 어휘에 집중된 사용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3번 문항에서는 참여한 한국어 모어 화자가 모두 100% '찡하다'를 선택하는 비율을 보였다. 이는 5개의 유의어 중 '코'와 결합될 수 있는 어휘는 '찡하다'만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적 및 화용적 정보보다 이러한 연어 관계 정보가 1차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응답 또한 3번 문항에서 10개 문항 중 '찡하다'를 75%의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했다.

'감격스럽다'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유의어가 모두 '마음' 또는 '가슴'과 연어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나머지 4개 유의어는 연어 관계만으로는 변별이 어려우므로 의미적 또는 화용적 정보에 의해 변별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벅차다', '뭉클하다', '찡하다', '뿌듯하다'의 사용을 보는 것보다는 '감격스럽다'가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면, '감격스럽다'가 '마음', '가슴'과 결합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지 고급 학습자의 연어 관계 파악 정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 '가슴'과의 연어 관계 정보를 담고 있는 문항은 2번, 4번, 5번, 8번, 18번, 20번, 21번 그리고 25번으로 총 8개 문항이다. 이 중 20번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문항에서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감격스럽다'의 사용 비율은 16% 미만이었다.[117] 연어 관계 정보 문항에서 '감격스럽다'의 사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L2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습자들은 원어민들의 전형적인 상투어구 유형과 유사한 표현을 한다(Bardovi-Harling, Rose, Nickels, 2007)는 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사후 면담에 참여한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이러한 연어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 학습자 A는 5개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다. 1번의 정답은 실제로 '벅차다'의 활용형 '벅찬'이지만 '벅차다'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법의 오류를 보고자 하는 연구가 아니므로 문항 작성 시에는 참여자들이 문법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의미적으로 유의어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각 문항 선택지의 활용형을 문장에 맞게 수정하였다.

117)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감격스럽다' 사용 비율은 문항 2번에서 9.6%(5명), 4번 5.8%(3명), 5번 7.7%(4명), 8번 13.5%(7명), 11.5%(6명), 20번 27.5%(14명), 21번 3.9%(2명), 15.4%(8명)이었다.

연어 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며, 학습자 B는 ‘코끝이 찡하다’, ‘가슴이 찡하다’를 알고 있었고 주위의 한국인 모어 화자로부터 배웠다고 언급했다.

B): 이거는 ‘코끝이 찡하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 같아서 골랐어요. 연): 아까 ‘찡하다’를 친구들에게 들어서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코끝이 찡하다’ 이 표현을 들은 거예요? B): 들은 적이 있는 거 같아요. ‘가슴이 찡하다’ 이것도 친구에게 배운 적 있어요.

학습자 C는 ‘감격스럽다’가 ‘가슴’과 결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찡하다’와 ‘뿌듯하다’가 ‘가슴’과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C): 여기도 뭐 제외하면 ‘가슴 찡하다/뿌듯하다’일 수 없고 ‘(가슴) 감격스럽다’일 수 없으니까 ‘벅차다’, ‘뭉클하다’ 남을 때 제일 고민하지.

이처럼 학습자들은 통사·의미·화용 중 통사적 변별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긴 하나 5개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모든 연어 관계를 알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항 20번에서도 드러나는데, ‘마음’과 결합될 수 없는 ‘감격스럽다’ 사용 비율이 27.5%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 1번 문항의 ‘또 하나의 (　　)한 감동’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벅찬 감동’을 높은 89.9% 비율로 선택하였다. 이 또한 모어 화자들이 자주 쓰는 전형적인 표현인데[11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4단계)』 보고서와 『한국어교육 어휘내용 개발 (4단계)』 보고서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사후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벅찬 감동’ 또한 하나의 고정된 표

11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보고서와 『한국어교육 어휘내용 개발 (4단계)』 보고서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말뭉치에서 여러 번 등장하여 연어 결합 표현으로 추출하였다.

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번 문항에서 모어 화자들의 '벅차다'에 대한 선택은 올림픽이 개최될 미래 상황의 화용적 정보뿐만 아니라 연어 관계의 통사적 정보까지 고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1번 문항에서 고급 학습자의 44.2%가 '감격스럽다'를 선택하였고 뒤이어 37.2%만이 '벅차다'를 사용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모두 '벅찬 감동'의 고정적 표현을 알고 있지 않았으며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하였다.

이로써 의미·화용 정보를 제외하고 오로지 연어 관계만 봤을 때 고급 학습자들의 통사적 변별 기제에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사용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사용과 가장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급 학습자들은 통사적 변별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의미적 변별 기제의 사용 양상

의미적 정보에서는 유의어들의 복합감정을 변별 기제로써 활용하였다. 의미적 변별 기제에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이 [감사함], [미안함], [슬픔], [아쉬움], [자랑스러움]의 복합감정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총 31문항 중 25문항의 문장에 복합감정의 의미 변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복합감정별 문항 수 및 번호는 다음과 같다.

<표 42> 의미적 변별 정보 복합감정의 문항 수 및 번호

복합감정의 의미적 변별 기제	[+감사함]	[+미안함]	[+슬픔]	[+아쉬움]	[+자랑스러움]
문항 수	7	3	8	6	13
문항 번호[119]	2, 7, 11, 16, 17, 19, 27	11, 19, 21	3, 4, 9, 10, 12, 13, 14, 21	2, 3, 4, 9, 10, 14	6, 13, 15, 16, 17, 22, 23, 24, 25, 26, 28, 29, 31

복합감정의 의미 변별 정보 중 [+자랑스러움]의 감정이 포함된 문항 수가 13개로 가장 많았으며 [+미안함]이 3개로 가장 적었다.[120]

각 복합감정이 단일적으로 드러나는 문항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문항에서 2개의 복합감정이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어휘 사용의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2개의 복합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에 '긍정+긍정'과 '부정+부정' 그리고 '긍정+부정'의 3가지 감정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서 실시한 유의어 변별 테스트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가 1위로 선택한 어휘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문항[121]의 대부분이 복합감정과 관련한 문항이었다. 그 중에서도 '긍정+부정' 감정의 조합의 문항이 가장 많았다.

테스트 문항 중, 단일 감정이 포함된 [+자랑스러움], [+감사함]의 문항을 먼저 살펴보고, 뒤이어 2개의 복합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문항들을 '긍정+긍정'과 '부정+부정' 그리고 '긍정+부정'의 3가지 감정의 유형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겠다.

1) [+자랑스러움]

[+자랑스러움]의 감정을 담은 문항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유의어 사용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19) 중복되는 문항의 경우는 두 개 이상의 복합감정을 갖는 문항이다. 예를 들어 19번 문항의 경우 [+감사함]과 [+미안함]으로 두 개의 복합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120) 화용적 정보 중 '대상'의 변별 기제에서 '성취'의 항목이 있는데 이는 [+자랑스러움]의 감정과 연결된다. 화자가 감동을 느끼는 대상인 '성취'의 항목은 '자신의 성취'와 '타인의 성취'으로 다시 분류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문항수를 갖게 되었다.

121)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가 1위로 선택한 유의어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6번, 11번, 19번, 20번, 27번이었다. 그 중 20번은 통사적 정보의 문항이었고, 나머지 4개의 문항은 복합감정과 화용적 정보가 혼합된 문항들이었다.

<표 43> 의미적 변별 정보 [+자랑스러움]의 문항 사용 양상 비교

문항	문장 및 상황	한국어 모어 화자			외국인 고급 학습자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6	딸이 처음으로 시험에서 백점을 받음.	감격스럽다 (63.7)	뿌듯하다 (30)	-	뿌듯하다 (78.8)	감격스럽다 (13.5)	-
15	쿠션을 직접 만듦.	뿌듯하다 (83.5)	감격스럽다 (15.2)	-	뿌듯하다 (84.6)	벅차다 (11.5)	
22	방을 청소해 깨끗해짐.	뿌듯하다 (92.5)	-	-	뿌듯하다 (73.1)	-	-
23	노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음.	뿌듯하다 (92.5)	-	-	뿌듯하다 (84.6)	-	-
24	고객한테서 감사인사를 받음	뿌듯하다 (92.5)	-	-	뿌듯하다 (74.5)	감격스럽다 (13.7)	
25	내가 그린 그림을 받고 후배가 기뻐함.	뿌듯하다 (80)	-	-	뿌듯하다 (42.3)	감격스럽다, 벅차다, 찡하다 (15.4)	-
26	남동생이 취업함.	뿌듯하다 (47.5)	감격스럽다 (38.8)	-	뿌듯해요 (71.2)	감격스럽다 (17.3)	
28	운전면허 취득 후 처음으로 혼자 주행함.	뿌듯하다 (47.5)	감격스럽다 (37.5)	벅차다 (13.7)	뿌듯하다 (67.3)	감격스럽다 (13.5)	-
31	우리나라 선수의 금메달 획득	감격스럽다 (66.3)	뭉클하다 (18.8)	벅차다 (11.3)	감격스럽다 (44.2)	벅차다 (25)	뿌듯하다 (15)

외국인 고급 학습자는 [+자랑스러움]의 감정에서 1위와 2위로 사용한 각 유의어의 선택률 격차가 모두 매우 큰 편이었다. 또한 [+자랑스러움]

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뿌듯하다’에 편중된 사용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한국어 모어 화자는 ‘뿌듯하다’뿐만 아니라 ‘감격스럽다’ 또한 비슷한 비율로 사용한 문항이 많았다. 이처럼 고급 학습자들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이 여러 상황에서 유의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면담을 통해 ‘뿌듯하다’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중에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가장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어휘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를 다양한 정보로 변별하는 양상을 보였다.

B): 응. 이거는 좀 자신감이 있는 거 같아요.
연): 그래요?
B): 제가 엄청 열심히 했던 거? 드디어 해내 가지고 뿌듯했다. 잘했다. 이런 느낌.
‘감격스럽다’도 ‘뿌듯하다’는 뜻이 있어서 자랑스러운 느낌 있어서 될 거 같은데 아무래도 ‘뿌듯하다’는 그렇게 그다지 너무 심각하고 격한 그런 느낌 없어서. ‘감격스럽다’는 뭔가 깊은 얘기여야 할 거 같아서 ‘감격스럽다’를 안 썼어요.

학습자 B와 같이 C 또한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를 정도성의 정보로 변별하였고, 학습자 A는 두 유의어의 격식성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다.[122)]

연): ‘감격스럽다’를 썼네요?
A): 여기는 시상식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이고 나는 상을 받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에게 상을 주는 게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감동하고 감사한 일이어서 ‘감격스럽다’를 썼습니다.
연): 그럼 ‘뿌듯하다’는?
A): 나는 어떤 노력을 했으니까 이 상을 받아야 하는데 받고 나서 보람을 느끼고 그 정도인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작아요.

122) 격식성과 정도성은 Ⅱ장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변별 기제에서 제시되지 않은 정보들이다. 한국인 모어 화자들과의 면담에서 이 두 정보를 변별 기제로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은 Ⅲ장 2.3절에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이와 같이 고급 학습자들은 사실상 두 유의어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용 양상에서는 다양한 활용을 보이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뿌듯하다'의 난이도와 의미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많은 학습자들이 '감격스럽다'의 의미를 인식하고는 있으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뿌듯하다'는 '감격스럽다'보다 난이도가 낮은 단어이고 빈도수도 높으므로 '감격스럽다'보다는 '뿌듯하다'의 의미에 대해 더 명확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상황에 따라 '감격스럽다'가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항에서 '뿌듯하다'의 사용만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습자의 현상을 '회피 전략(avoidance strategy)'이라고 한다. 이것은 어려운 단어(또는 문법)의 사용을 고의로 회피하여 오류가 없는 목표어를 생산해 내려는 경우이다. 회피 전략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그 중 '근사어 사용'에 해당되며, 자기가 잘 아는 단어와 유의, 반의, 상·하위 관계를 이루는 단어를 이용하여 동일한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다(JinShuYing 외, 2020:635-636, 643). 이러한 회피 전략은 학습자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다양한 어휘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사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류를 피하기 위해 난이도가 쉬운 단어만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의미적 유사성이 높은 '뿌듯하다'와 '감격스럽다'의 사용 양상에서 이러한 회피 전략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1위와 2위에 사용된 어휘에 있어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31번의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뿌듯하다'와 '감격스럽다'의 사용만 돋보인 반면, 외국인 고급 학습자는 그 외에 '벅차다'도 자주 사용하였고, [+자랑스러움]의 복합감정 변별 기제를 전혀 갖지 않는 '찡하다'도 25번 문항에서 2위로 선택되는 등의 한국어 모어 화자와는 매우 다른 사용을 보였다.

2) [+감사함]

[+자랑스러움] 이외에 한 개의 복합감정만 작용하는 문장은 7번과 27

번 문항이었는데 [+감사함]의 감정을 내포한다. 앞서 실행한 피셔의 정확 검정에서 7번 문항은 P>0.05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어휘 사용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7번 문항에서 두 집단의 사용 양상을 비교할 수 없기에 제외하고 27번 문항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44> 의미적 변별 정보 [+감사함]의 문항 사용 양상 비교

문항	문장 및 상황	한국어 모어 화자			외국인 고급 학습자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27	옛날의 추억이 있으나 요즘엔 접하지 못한 것을 이웃으로부터 선물 받음.	뭉클하다 (50)	감격스럽다 (41.3)	-	감격스럽다 (40.4)	뭉클하다 (30.8)	벅차다 (17.3)

[+감사함]의 감정의 27번 문항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뭉클하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과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나): 감동받았을 때 '뭉클해요'가 떠올라.
연): 어떤 면에서 여기서는 감동 받았어?
나): 뭔가 타인이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을 알았을 때. 이렇게 감동 받았을 때? 고마운 마음도 있고.

한국어 모어 화자 (나)는 [+감사함]을 느껴서 감동을 받을 때 '뭉클하다'로 인식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더불어 면담에 참여한 모든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대체로 [+감사함]의 감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감격스럽다' 보다는 '뭉클하다'가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였고 '감격스럽다'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초점을 둔다고 보고 있었다. 반면 같은 문항에서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감격스럽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감격스럽다'가 [+감사함]을 내포하는 것은 맞으나 '성취'가 전제되고 이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감격스럽다’의 사용이 적절하다. 그러나 고급 학습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 A로부터 ‘감격스럽다’에 대한 이러한 사용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A): ‘감격스럽다’ 약간 소설에서 감정 묘사할 때 ‘~스럽다’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감사하다는 느낌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감격스럽다’를 썼어요. 단순하게 마음이 따뜻한 거 아니고 감사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감격스럽다’를 썼어요.

학습자 A는 ‘감격스럽다’의 의미를 ‘성취’보다는 [+감사함]에 더 초점을 두는 오류를 보였다. 또한 고급 학습자들은 ‘뭉클하다’가 [+감사함]을 가장 잘 나타내는 유의어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밖에 고급 학습자들은 [+감사함]이 내포된 27번 문항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가 선택하지 않은 ‘벅차다’ 또한 17.3%의 비율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어서 2개의 복합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를 ‘긍정+긍정’과 ‘부정+부정’ 그리고 ‘긍정+부정’의 3가지 감정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긍정+긍정’의 복합감정과 ‘부정+부정’의 복합감정이 드러나는 문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다.

3) [+감사함]+[+자랑스러움]/[+미안함]+[+슬픔], [+슬픔]+[+아쉬움]

문항에서 ‘긍정+긍정’의 감정은 [+감사함]+[+자랑스러움]으로 나타났고, ‘부정+부정’의 감정 혼합은 [+미안함]+[+슬픔], [+슬픔]+[+아쉬움]을 내포하였다. 해당하는 문항 중 9번과 10번 문항은 피셔의 검정에 따라 두 집단의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없다($P>0.05$)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45> 의미적 변별 정보 '긍정+긍정'과 '부정+부정'의 복합감정 문항 사용 양상 비교

문항	문장 및 상황	복합감정	한국어 모어 화자			외국인 고급 학습자		
			1위 (%)	2위 (%)	3위 (%)	1위 (%)	2위 (%)	3위 (%)
17	여배우 본인이 상을 받는 상황	[+감사함] [+자랑스러움]	감격스럽다 (80)	벅차다 (17.5)	-	감격스럽다 (59.6)	뭉클하다 (13.5)	뿌듯하다 (11.5)
21	아프고 늙으신 어머니를 보는 상황	[+미안함] [+슬픔]	찡하다 (85)	뭉클하다 (13.8)	-	찡하다 (49)	뭉클하다 (35.3)	-
3	아픈 아버지가 딸의 결혼식에 못 감	[+슬픔] [+아쉬움]	찡하다 (100)	-	-	찡하다 (75)	뭉클하다 (21.2)	-
4	12년지기 친구의 결혼.	[+슬픔] [+아쉬움]	뭉클하다 (47.5)	찡하다 (40)	-	뭉클하다 (30.8)	뿌듯하다 (28.8)	찡하다 (19.2)
14	친구와 공항에서 헤어짐	[+슬픔] [+아쉬움]	찡하다 (67.5)	뭉클하다 (31.3)	-	찡하다 (50)	뭉클하다 (26.9)	벅차다 (11.5)

'긍정+긍정'의 복합감정을 보이는 17번 문항은 수상하는 여배우가 [+자랑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상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감격스럽다'를 80%의 높은 비율로 선택했다. 외국인 고급 학습자 또한 '감격스럽다'를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59.6%의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고 뒤이어 한국어 모어 화자가 선택하지 않은 '뭉클하다'와 '뿌듯하다'를 사용했다. '뭉클하다' 또한 [+감사함]과 [+자랑스러움]의 복합감정을 지니나 '뿌듯하다'는 [-감사함]으로 Ⅱ장에 근거하면 감사한 감정이 표현되지 않는 유의어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 (가) 또한 17번 문항에서 '뿌듯하다'를 사용한다면 오만하고 겸손하지 않은 느낌을 준다고 언급하였다. 고급 학습자들이 세 번째로 '뿌듯하다'를 선택한 것을 봤을 때 이러한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의 공손성[123]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6개 문항은 '부정+부정'의 복합감정을 드러내는 상황 및 문장들이다. 먼저 21번은 [+미안함]과 [+슬픔]의 감정을 복합적으로 표현하는데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 모두 '찡하다'와 '뭉클하다' 순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선택 비율에 있어서 모어 화자는 80%로 '찡하다'를, 고급 학습자는 49%의 비교적 낮은 비율로 '찡하다'를 선택했다.

3, 4, 14번 문항은 모두 [+슬픔]과 [+아쉬움]의 복합감정을 갖는 문항들이다. 3번은 '코끝이 찡하다'의 전형적인 연어 관계 문장으로 앞서 통사적 변별 정보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찡하다'와 '뭉클하다'는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의미적 유사성이 매우 높은 단어인 것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를 보여주듯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4번과 14번 문항에서 모두 1위와 2위를 '찡하다' 또는 '뭉클하다'를 사용하였다.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4번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이 '뭉클하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나 2순위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 전혀 선택받지 않은 '뿌듯하다'를 선택하였다.[124] 14번 또한 고급 학습자들은 3위로 '벅차다'를 선택하였는데 '벅차다'는 '뿌듯하다'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복합감정을 전혀 갖지 않는 어휘이다. 이러한 직관이 있는 모어 화자는 '벅차다'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1.3%, 1명). 이러한 '벅차다'의 사용 오류는 면담에 참여한 학습자 B로부터 또한 발견되었는데, B는 부정적 감정이 내포된 14번과 21번 문항 모두 '벅차다'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

123)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변별 기제에서 공손성의 정보는 2.3절에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124) 12년지기 친구의 결혼이 나타나는 4번 문항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찡하다' 또는 '뭉클하다'를 선택했다. 반면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2순위로 '뿌듯하다'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초점화'로 설명된다. 신명선(2009)에서는 어휘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초점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과정이라고 하였다. 4번 문항에 대해 학습자 A는 "친구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면 '뿌듯하다'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 (가) 또한 "결혼하지 못할 것 같은 친구가 하게 되면 '뿌듯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연): 이거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B): 맞아요. 마음이 아파서. 약간 슬픔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계속 마음에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 아까 말했던 부정적인 슬픔이 '찡하다'도 있잖아요. '찡해요'는 어때요?
B): '찡해요'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어머니의 모습 오래 보면서 '어머니 엄청 힘드시겠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에 빠져드는 거죠. 여기서는 '벅차다' 좀 더 오래 가는 느낌이에요.

늙고 아프신 어머님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21번 문항에서 고급 학습자 B는 '벅차다'를 선택했다. '벅차다'를 선택한 것에 대해 [+슬픔]의 지속성이 '찡하다'보다 길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다음의 면담 내용에서 찾을 수 있었다.

B): 제가 생각했을 때 '벅차다'는 약간 좀 무겁다는 느낌도 들고 약간 부정적인 느낌도 들어요. 어차피 '벅차다'가 그런 뜻도 있잖아요?
연): 아, 그래서요?
B): '어떤 일이 벅차서 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은 '벅차다'가 더 어울릴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형용사로서 '벅차다'는 두 가지의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로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격, 기쁨, 희망 따위가 넘칠 듯이 가득하다'가 있다. '벅차다'는 특이하게도 의미가 완전히 상반되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다의어로서 본 연구에서의 '벅차다'는 후자의 의미로 전혀 부정적인 감정을 담고 있지 않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다. B는 '벅차다'의 전자의 의미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감동 표현의 '벅차다'를 부정적 감정 및 상황에서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벅차다'에 대한 인식 오류는 학습자 C에게서도 나타났는데, 학습자 C는 '벅차다'의 감정이 크다는 정도성의 기제를 잘 인식하고 있었으나 '벅차다'가 슬픈 감정의 큰 느낌인지 기쁜 감정의 큰 느낌에 대해서는 크게 확신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반되는 의미적 특성으로 인한 '벅차다'의 잘못된 의미 확장은 B

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자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이다.

4) [+감사함]+[+아쉬움], [+슬픔]+[+자랑스러움], [+감사함]+[+미안함]

‘긍정+부정’의 상반된 복합감정을 나타내는 문항들은 [+감사함]+[+아쉬움], [+슬픔]+[+자랑스러움] 그리고 [+감사함]+[+미안함]의 감정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두 집단의 사용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6> 의미적 변별 정보 ‘긍정+부정’의 상반된 복합감정 문항 사용 양상 비교

문항	문장 및 상황	복합감정	한국어 모어 화자			외국인 고급 학습자		
			1위 (%)	2위 (%)	3위 (%)	1위 (%)	2위 (%)	3위 (%)
2	한국을 곧 떠나는 외국인 감독의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함] [+아쉬움]	뭉클하다 (77.5)	-	-	뭉클하다 (42.3)	뿌듯하다 (13.5)	-
13	알려지지 않은 영화를 알게 된 뿌듯함과 여운에 남은 내용의 슬픔.	[+슬픔] [+자랑스러움]	뭉클하다 (50)	찡하다 (31.3)	벅차다 (15)	뭉클하다 (26.9)	벅차다, 찡하다 (23.1)	감격스럽다 (17.3)
11	자주 찾아뵙지 못한 어머니께서 맛있는 걸 보내주심	[+감사함] [+미안함]	뭉클하다 (55)	찡하다 (25)	감격스럽다 (13.8)	찡하다 (32.7)	감격스럽다 (26.9)	뭉클하다 (23.1)
19	언니가 적은 월급으로 모은 돈을 내 등록금으로 줌.	[+감사함] [+미안함]	뭉클하다 (57.5)	찡하다 (30)	-	감격스럽다 (32.7)	뭉클하다 (30.8)	찡하다 (25)

위의 문항들에서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상충된 상황에서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을 보고자 하였다.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상황에서는 ‘뭉클하다’와 ‘찡하다’ 모두 사용 가능한데 테스트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4개의 문항 모두 ‘뭉클하다’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Ⅱ장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변별 기제에 따르면 ‘뭉클하다’는 다섯 가지의 복합 감정을 느끼는 상황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는데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듯하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긍정과 부정의 감정이 혼재하는 이러한 ‘뭉클하다’의 의미적 변별 기제를 다음과 같이 직관적으로 인식하였다.

나): ‘뭉클했다’는 너무 슬픈 것도 아니고 너무 기쁜 것도 아닌 둘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연): 슬픔과 기쁨을 같이하는? 나): 그렇지.

반면 외국인 고급 학습자는 ‘긍정+부정’ 복합감정의 문항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는 다른 사용을 많이 보였다. 2번 문항에서 [+감사함]과 [+아쉬움]을 전혀 내포하지 않는 ‘뿌듯하다’를 두 번째로 많이 사용했고, 19번 문항에서는 [+미안함]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미안함]의 감정을 내포하지 않는 ‘감격스럽다’를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후 면담에서 고급 학습자들은 모두 가장 의미가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 단어로 ‘뭉클하다’를 꼽았다는 점이다.

연): 그럼 ‘뭉클하다’는 어때요? A): ‘뭉클하다’는……. 저는 정확하게 뜻을 모르겠어요 사실. 연): 확실하게 모르겠다? A): 네, 맞아요. ‘찡하다’랑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 같고.

학습자 A는 ‘뭉클하다’를 ‘찡하다’와 매우 유사하다는 면에서 혼란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 B는 ‘뭉클하다’의 이러한 ‘긍정+부정’ 감정의 혼합된 의미의 특성을 인식하면서도 ‘뭉클하다’를 배우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생각나지 않아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B): 이럴 때도 약간 그 졸업식에 많은 감정 있잖아요. 뿌듯하기도 하고 근데 약간 학교를 떠나는 거고 친구도 떠나고. 뿌듯하기도 한데 나 계속 울어, 자랑스러우면서 나 슬퍼. 왜 이러지? 감정이 왔다 갔다. 이게 이렇게 뭉클한 건가? 이렇게.
B): 근데 사실 '뭉클하다'는 제가 봤을 때 여기 모든 문장이랑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다는 아닐 거 같은데 그냥 거의 다 '뭉클하다'로 골랐어도 괜찮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습자 B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항의 모든 상황에 '뭉클하다'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 그럼 '뭉클하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C): 그니까 뭐지 설문지 보면서 다른 선택을 제외하면 남은 그런 가능한 한 두 가지 정도? 남은 경우 몇 번 있었어. 그때 뭉클하다가 몇 번 남아서 그렇게 선택할 때 많았어. 뭉클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다른 한국어에 '뭉치다'도 있고. 내가 해석이 안 됐는데.

학습자 C 또한 '뭉클하다'의 의미 이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거법의 전략으로 '뭉클하다'가 보기에서 남으면 그때 선택했다고 답했다. 이로부터 고급 학습자들은 '뭉클하다'의 의미 인지와 다른 유의어들과의 변별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뭉클하다'는 '찡하다'와 의미적 유사성이 매우 높고 감동 표현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어휘 중 하나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직관에 의해 '뭉클하다'의 적절한 사용이 가능하나 외국인 고급 학습자는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고 '뭉클하다'의 감정 스펙트럼이 아주 넓다는 특징으로 인해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이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뭉클하다'에 대한 '긍정+부정' 복합감정의 의미적 정보를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변별 교육내용으로써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2.3. 화용적 변별 기제의 사용 양상

본 절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기술할 것이다. 첫째, 화용적 변별 정보인 '사건'과 '대상' 그리고 그 하위 세부 정보에 따라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둘째, 한국어 모어 화자들과의 면담에서 정도성, 격식성 그리고 공손성의 화용적 변별 기제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정교화 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에 대한 사용 양상도 비교하도록 하겠다.

2.3.1. 사건과 대상의 변별 정보 사용 비교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를 변별하기 위한 화용적 변별 정보는 크게 '사건'과 '대상'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1) 사건

'사건'의 경우 사건의 발생과 기대 여부에 따라 다시 하위 세부 분류된다. '사건'의 변별 정보를 적용한 문항 수와 번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5]

125) 조사한 실제 문항의 수는 31개이나 화용적 정보 변별에서도 '사건'과 '대상'의 기제를 모두 내포하는 중복 문항들이 있었다.

<표 47> 화용적 변별 정보 '사건'의 문항 수 및 번호

화용적 변별 기제	사건				
	발생				발생하지 않음
	기대 없음		기대 있음		
	기대하지 않은 일의 발생		기대한 일의 발생	기대 이상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
	긍정적 일	부정적 일			
문항 수	7	3	4	2	2
문항 번호	7, 11, 17, 19, 24, 26, 27	3, 21, 28	15, 16, 18, 23	13, 30	1, 8

Ⅱ장에서 고찰한 감동의 개념에서 본 연구는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긍정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발생하는 변화와 지속성을 가진 혼합 감정'이라고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이러한 개념과 상통하듯 화용적 정보의 '사건'의 변별 기제에서는 '기대하지 않은 긍정적인 일의 발생'과 '기대한 일의 발생'의 항목은 5개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가 모두 해당된다. 이것은 5개의 유의어가 모두 감동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대하지 않은 긍정적인 일의 발생'과 '기대한 일의 발생[126]'의 항목에서는 '사건'의 정보보다는 다른 변별 기제가 더 중요하게 작용될 것이므로 이 두 부분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1) 기대하지 않은 부정적인 일의 발생

126) Ⅱ장에서 이미 밝힌 바 있는데 '기대한 일의 발생'은 '예상된 일'이 아닌 '기다리고 바라던 일의 발생'을 가리킨다.

<표 48> 화용적 변별 정보 '기대하지 않은 부정적 일의 발생'의 사용 양상 비교

문항	문장 및 상황	한국어 모어 화자			외국인 고급 학습자		
		1위 (%)	2위 (%)	3위 (%)	1위 (%)	2위 (%)	3위 (%)
3	어떤 이픈 아버지가 딸의 결혼식에 못간 상황을 알게 됨	찡하다 (100)	-	-	찡하다 (75)	뭉클하다 (21.2)	-
14	친구와의 헤어짐	찡하다 (67.5)	뭉클하다 (31.3)	-	찡하다 (50)	뭉클하다 (26.9)	벅차다 (11.5)
21	요즘 들어 부쩍 늙으신 어머니를 보는 상황	찡하다 (85)	뭉클하다 (13.8)	-	찡하다 (49)	뭉클하다 (35.3)	-

'기대하지 않은 부정적인 일의 발생'은 <표 48>과 같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유의어는 '찡하다'와 '뭉클하다'뿐이므로 다른 유의어와 변별될 수 있는 화용적 정보이다. 이러한 변별 기제를 입증하듯 한국인 모어 화자의 선택 또한 '찡하다'와 '뭉클하다'로 나타났다. 특히 '찡하다'의 사용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부정적인 상황과 맥락에서는 '찡하다'가 가장 적절한 사용임을 알 수 있다. 외국인 고급 학습자도 같은 경향을 보였는데 면담에 참여한 고급 학습자 A와 C 또한 이러한 화용적 변별 기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21번 문항의 사용 양상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는 달리 '찡하다'와 '뭉클하다'의 아주 비슷한 사용 양상을 보여주었다. 사후 면담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21번 상황에서 '찡하다'가 아닌 '뭉클하다'를 사용하게 되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공손성의 정보와 관련한다. 이는 2.3.2절에서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한편 부정적 상황의 14번에서 고급 학습자들은 '벅차다'를 3위로 선택하는 양상이 드러났는데 이것은 앞서 고급 학습자 B와의 면담에서 분석된 것과 같이 선행 학습한 '벅차다'의 의미를 잘못 확장한 오류로 나타난

것으로 2.2절에서 밝힌 바 있다.

(2) 기대 이상

<표 49> 화용적 변별 정보 '기대 이상'의 사용 양상 비교

문항	문장 및 상황	한국어 모어 화자			외국인 고급 학습자		
		1위 (%)	2위 (%)	3위 (%)	1위 (%)	2위 (%)	3위 (%)
13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고 슬펐던 영화	뭉클하다 (50)	찡하다 (31.3)	벅차다 (15)	뭉클하다 (26.9)	벅차다, 찡하다 (23.1)	감격스럽다 (17.3)
30	기대보다 더 아름다웠던 백두산의 풍경	감격스럽다 (52.5)	벅차다 (36.2)	-	감격스럽다 (38.5)	벅차다 (36.4)	뭉클하다 (11.5)

30번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P>0.05) 한국어 모어 화자의 사용만 보도록 한다. '기대 이상'의 상황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뭉클하다'와 '감격스럽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뭉클하다'와 '감격스럽다' 모두 '기대 이상'인 상황에서 쓰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13번 문항에서 '기대 이상'의 상황에서 사용될 수 없는 '찡하다'가 한국어 모어 화자로부터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았는데 이것은 '기대 이상'의 변별 기제보다는 [+슬픔]의 복합감정이 더 큰 변별 기제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127]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13번 문항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선택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감격스럽다'를 사용하는 등 차순위의 어휘 사용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사실상 '기대 이상'

127) 13번 문항은 화자가 기대 이상으로 슬프고 아름다웠던 영화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으며 남들이 모르는 영화를 알게 되어 뿌듯하고 마지막 장면이 여운이 남았다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영화가 '기대 이상'이라는 정보보다는 [+슬픔]과 '여운'에 초점을 두어 '뭉클하다'를 선택하였다.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 또한 사후 면담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사용 양상을 보였다. 어휘를 선택할 때 상황의 해석과 초점화의 과정을 거치는데(신명선, 2009) 13번 문항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화용적 변별 정보보다 감정에 중점을 두는 초점화 경향을 보였다.

의 변별 기제는 ‘찡하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에서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유의어들의 변별적 사용을 위해서는 사건의 ‘기대 이상’의 화용적 정보와 더불어 다른 변별 정보도 함께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

<표 50> 화용적 변별 정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의 사용 양상 비교

문항	문장 및 상황	한국어 모어 화자			외국인 고급 학습자		
		1위 (%)	2위 (%)	3위 (%)	1위 (%)	2위 (%)	3위 (%)
1	열흘간의 패럴림픽 개막	벅차다 (92.5)	-	-	감격스럽다 (44.2)	벅차다 (32.7)	뭉클하다 (13.5)
8	부모의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	벅차다 (89.9)	-	-	벅차다 (63.5)	감격스럽다 (13.5)	뭉클하다 (11.5)

본 연구 Ⅱ장의 말뭉치 분석에서 ‘벅차다’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벅차다’는 5개의 유의어 중 유일하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의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증명하듯 한국어 모어 화자는 1번과 8번 문항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벅차다’를 사용하였고 이러한 변별 정보는 한국어 모어 화자 (나)와의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의 상황인 8번 문항[128]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 (나)의 면담 내용

128) 8번 문항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의 화용적 변별 정보뿐만 아니라 문장에 ‘가슴’이 포함되어 있어서 통사적 변별 정보 또한 담고 있다. 통사적 변별 정보로 인해 ‘벅차다’가 선택된 가능성도 있으므로 한국어 모어 화자 (나)에게 ‘가슴’이 빠지면 어떤 유의어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 (나)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가슴’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벅차다’가 가장 적합하다고 대답하였다.

이다.

나): 왜냐면 이것도 미래에 일어 날 일이잖아. 아이가 태어날 거는. 연): 그래서 자연스럽다? 나): 왜냐면 일단은 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거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감격스러울 일도 없고 뭘 성취를 한 것도 아니니까 뿌듯한 것도 없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아무래도 '벅찬'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야.

8번 문항에서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 또한 '벅차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나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교해 봤을 때 선택 비율이 현저히 낮았으며 '감격스럽다'와 '뭉클하다'등 한국어 모어 화자와는 아주 다른 어휘 사용 양상도 보였다. 또한 1번의 경우에는 '벅차다'가 2순위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어휘는 '감격스럽다'였다. 8번의 문장은 '가슴'과 결합하는 연어 관계의 문장이므로 '감격스럽다'를 제외하고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벅차다'의 이러한 변별 정보를 모른다면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면담에 참여한 세 명의 고급 학습자들은 모두 '벅차다'의 이러한 화용적 변별 정보를 알고 있지 못했다.

연): '가슴 뿌듯한 일이죠'를 선택했네요. 여기서 어때요? A): 아기를 기다리는 건 부모 입장에서 힘든 일이고 결과는 감사해야 하는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1번이랑 헷갈렸는데. '뿌듯하다' 선택한 거는 따뜻함을 더 강조한 거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설렜다'가 더 정확한 거 같아요. 연): 가슴 설레는 일이다? 이렇게? A): 맞아요.

고급 학습자 A는 같은 8번 문항에서 '뿌듯하다'를 선택했다. 아이를 기다리는 일에 대해 '설레는 감정'[129]을 느낀다는 인식은 한국어 모어 화자

129) '설레다'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내일 배낭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어서 잠이 오지 않는다.', '기다림은 사람을 설레게 한다.' 이 두 예문에서 '배낭여행'과 '기다림'은 미래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고 그에 대한 감정이 '설레다'이다. 따라서 '설레다' 또한

와 같았지만 ‘벅차다’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의 화용적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사용 양상을 보이지 못했다.

연): 왜 ‘뭉클한’이죠? C): 1, 2, 5번일 수 없고 3, 4번 고민했는데[130] 그냥 3번 찍은 거 같아. 왜냐면 ‘찡하다’ 일 수 없지. 너무 부정적이고. 연): 1, 2, 5번은 왜 안 되는 거 같아요? C): ‘벅차다’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가슴이 벅차면 힘들 거 같고. ‘뿌듯하다’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뿌듯한 게 조금 이제 이를 수도 있으니까.

외국인 고급 학습자 C 또한 같은 문항에서 ‘벅차다’를 선택하지 않았다. ‘벅차다’의 감정의 정도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의 화용적 변별 정보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학습자 B는 ‘벅차다’를 부정적 감정과 상황에 사용하는 어휘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학습자들처럼 같은 문항에서 ‘벅차다’를 선택하지 않았다.

2) 대상

화용적 변별 정보의 ‘대상’에서는 ‘희생과 역경’, ‘성취’ 그리고 ‘도움’으 정보를 포함하는데 이 정보들은 다시 외적(타인)’과 ‘내적(자신)’에 따라 분류된다. ‘대상’ 변별 정보가 적용된 문항 수와 번호는 다음과 같다.

미래지향적 감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0) 선택항의 번호와 유의어는 다음과 같다: 1번 감격스럽다, 2번 벅차다, 3번 뭉클하다, 4번 찡하다, 5번 뿌듯하다.

<표 51> 화용적 변별 정보 '대상'의 문항 수 및 번호

화용적 변별 기제	대상				
	외적			내적	
	타인			자신	
	타인의 희생 및 역경	타인의 성취	타인의 도움	자신의 희생 및 역경	자신의 성취
문항 수	2	3	4	1	11
문항 번호	20, 21	6, 26, 31	11, 19, 20, 27	12	5, 15, 16, 17, 18, 22, 23, 24, 25, 28, 29

우선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29번 문항을 제외한 '성취' 문항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성취

① 자신의 성취

<표 52> 화용적 변별 정보 '자신(내적)의 성취'의 사용 양상 비교

문항	문장 및 상황	한국어 모어 화자			외국인 고급 학습자		
		1위 (%)	2위 (%)	3위 (%)	1위 (%)	2위 (%)	3위 (%)
5	산타로 분장해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본 경찰관	뿌듯하다 (50)	벅차다 (35)	뭉클하다 (11.2)	뿌듯하다 (32.7)	벅차다 (30.8)	뭉클하다 (19.2)
15	쿠션을 직접 만듦	뿌듯하다 (83.5)	감격스럽다 (15.2)	-	뿌듯하다 (84.6)	벅차다 (11.5)	-
16	연극인의 꿈이 이루어짐	감격스럽다 (75)	벅차다 (13.7)	-	감격스럽다 (40)	뿌듯하다 (38.5)	벅차다 (17.3)

17	여배우가 기대 못한 상을 받음	감격스럽다 (80)	벅차다 (17)	-	감격스럽다 (59.6)	뭉클하다 (13.5)	뿌듯하다 (11.5)
18	짝사랑하는 그녀가 마음을 받아줌.	벅차다 (73.8)	-	-	벅차다 (48.1)	찡하다 (17.3)	뿌듯하다 (13.5)
22	방을 청소해 깨끗해짐	뿌듯하다 (92.5)	-	-	뿌듯하다 (73.1)	-	-
23	노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음.	뿌듯하다 (92.5)	-	-	뿌듯하다 (84.6)	-	-
24	고객한테서 감사인사를 받음	뿌듯하다 (92.5)	-	-	뿌듯하다 (74.5)	감격스럽다 (13.7)	
25	내가 그린 그림을 받고 후배가 기뻐함.	뿌듯하다 (80)	-	-	뿌듯하다 (42.3)	감격스럽다, 벅차다, 찡하다 (15.4)	-
28	운전면허 취득 후 처음으로 혼자 주행함.	뿌듯하다 (47.5)	감격스럽다 (37.5)	벅차다 (13.7)	뿌듯하다 (67.3)	감격스럽다 (13.5)	-

위의 도표는 ‘자신의 성취’의 문항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이 항목에서는 ‘뿌듯하다’가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로부터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뒤이어 ‘감격스럽다’, ‘벅차다’ 순이었는데 ‘자신의 성취’ 정보에서 [+자랑스러움]의 복합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뿌듯하다’와 ‘감격스럽다’가 모두 ‘자신의 성취’와 [+자랑스러움]의 기제에 있어서 의미적 유사성이 매우 높은데 이 두 유의어는 정도성에 의해 변별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2.3.2절의 정도성에서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자신의 성취’ 부분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1순위 사용 어휘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8번과 25번에서 ‘성취’와 관련 없는 ‘찡하다’가 두 번째로 많은 사용을 보여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다른 사용 양상을 드러냈다.

다음은 ‘타인(외적)의 성취’의 사용 양상이다.

② 타인의 성취

<표 53> 화용적 변별 정보 '타인(외적)의 성취'의 사용 양상 비교

문항	문장 및 상황	한국어 모어 화자			외국인 고급 학습자		
		1위 (%)	2위 (%)	3위 (%)	1위 (%)	2위 (%)	3위 (%)
6	딸이 처음으로 시험에서 백점 맞음	감격스럽다 (63.7)	뿌듯하다 (30)	-	뿌듯하다 (78.8)	감격스럽다 (13.5)	-
26	어린 남동생이 취업함	뿌듯하다 (47.5)	감격스럽다 (38.8)	-	뿌듯하다 (71.2)	감격스럽다 (17.3)	-
31	우리나라 선수의 금메달 획득	감격스럽다 (66.3)	뭉클하다[131] (18.8)	벅차다 (11.3)	감격스럽다 (44.2)	벅차다 (25)	뿌듯하다 (15)

'타인의 성취' 부분에서도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사용 양상은 많은 차이를 보였다. '타인의 성취'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감격스럽다'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외국인 고급 학습자는 '뿌듯하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31번 또한 '성취'의 부분인데 '성취'의 대표 유의어인 '뿌듯하다'가 한국어 모어 화자에 의해 선택된 비율은 매우 낮았다(2.5%). 반면 외국인 고급 학습자는 15%의 비율로 '뿌듯하다'를 사용하였다. '뿌듯하다'와 '감격스럽다' 모두 '타인'과 '자신'의 성취에 사용 가능한 어휘이나 31번에서는 이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양상의 해답으로 '뿌듯하다'와 '감격스럽다'가 세 가지의 전제되는 세부 정보들에 따라 다른 사용 경향성을 가진다는 것을 한국어 모어 화자들과의 면담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었다. 시험에서 백점을 받은 딸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는 6번 문항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면담

131) 31번 문항의 '뭉클하다'에 대해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눈물이 날 것 같은 상황'에 있어서 사용한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복합감정과 관련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뭉클하다', 눈물이 날 것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찡하다'가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을 살펴보자.

가): 5번 보기(뿌듯하다)같은 경우는 내가 기여해서 뭔가를 해서 상대방이 긍정적인 거고 이거는 내가 뭐를 해서 내가 가르쳤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 전제 하에. 연): '뿌듯하다'는 내 자신이 한 것 같아? 가): '뿌듯하다'는 내가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거 같은데. 여기는 내가 뭔가 노력해서 받아낸 결과는 아니라고 해석돼서.

우선, 대상의 내·외적에 따라 기본적으로 '자신'의 성취에는 '뿌듯하다'가 사용되고 '타인'의 성취에 대해서는 '감격스럽다'가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타인의 성취'일지라도 내가 가르쳤다거나 내가 키운 자식의 성취와 같이 자신의 도움 및 기여가 반영된 '타인의 성취'라면 '뿌듯하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6번 문항에서 '뿌듯하다'를 쓴다면 '내가 키운(나의 도움) 딸의 성취'로 볼 때 가능하나 대부분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타인'의 성취에 초점을 두고 '감격스럽다'를 사용하였다. 이와 달리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6번 문항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뿌듯하다'를 선택하였다.

C): 100점 받는 거 자체가 대단한 일 아니지만 엄마 입장에서 좋은 일이니까 뿌듯하지 연): 그리고요? C): 지금 타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상황이니까. 타인과 연결되면 그렇지. 연): 그럼 '감격스러워요'는? C): '격' 있잖아. 격하게 감정. 격한 상황 아니잖아. 100점은

6번 문항에서 외국인 고급 학습자 C는 '감격스럽다'의 정도성 변별 정보에 대해 적절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뿌듯하다'가 '타인'과 연결되면 사용된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이로부터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내·외적 대상 변별 정보 및 자신의 도움 반영 여부의 전제 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세부 정보로 '타인'의 성취에 대해 감동을

나타낼 때 ‘타인’은 나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또는 내가 속한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은 김연아 선수가 한국 피겨 최초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상황의 문항인 31번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면담 내용이다.

연): 그럼 ‘감격스럽습니다’는 어떤 면에서? 나): 어 뭔가 김연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니까. 만약 이게 데이비드 베컴이었으면 전혀 감격스럽다가 안 어울릴 거 같은데. 김연아가 한국인이잖아. 김연아가 잘 했으면 나도 뭔가 잘 한 거 같고. 김연아가 나와 동일시되는 존재? 연): 김연아의 성취가 곧 나의 성취와도 같은? 나): 응. 그렇지. 그래서 막 외국인 운동선수, 호날두가 이랬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감격스럽지 않았을 거 같은데.

한국어 모어 화자 (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김연아 선수의 성취가 곧 나의 성취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감격스럽다’를 가장 적합한 어휘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와 관련 없는 외국인 대표 선수가 좋은 성취를 낸다고 해도 ‘뿌듯하다’는 물론 ‘감격스럽다’의 어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성취’에 대해 ‘감격스럽다’나 ‘뿌듯하다’를 쓸 경우에는 ‘타인’이 나와 관련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와 같은 나와 동일시되거나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감격스럽다’는 ‘가까운 또는 내가 속한 집단 대표인 타인의 성취’ 그리고 ‘뿌듯하다’는 나의 도움으로 인해 이루어진 ‘타인의 성취’의 대상에 적합할 것이다.[132] 따라서 31번 문항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감격스럽다’를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는데,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 또한 ‘감격스럽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나 31번 문항에서 자신의 도움이 반영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뿌듯하다’를 3위로 선택하였다. 사

132) 같은 맥락으로 외국인 선수의 성취인 상황이라도 내가 그 선수의 팬으로서 열심히 응원했다는 전제가 있다면 화자의 입장에서 나의 도움 및 기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문장과 같이 ‘감격스럽다’나 ‘뿌듯하다’의 사용이 가능하다:
‘내가 밤새도록 열심히 응원해서 호날두 선수가 많은 골을 넣었다. 뿌듯하다(감격스럽다).’

후 면담에서도 고급 학습자들은 타인의 전제 정보 및 자신의 도움 반영 여부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

지금까지 정리한 ‘성취’의 대상에 있어서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의 세부 변별 정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54> ‘성취’에서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의 변별 정보 세분화

화용적 변별 정보	성취	
내·외적 분류	내적	외적
	자신의 성취	타인의 성취
대표 단어	뿌듯하다	감격스럽다

⇓

세부 변별 정보	타인의 성취	
	자신의 도움 반영 여부	‘타인’의 전제 정보
감격스럽다	없어도 가능	가족 및 가까운 지인 또는 소속 집단의 대표
뿌듯하다	반영	

기본적으로 ‘감격스럽다’는 ‘타인의 성취’, ‘뿌듯하다’는 ‘자신의 성취’를 대상으로 한다. ‘타인의 성취’에서 ‘타인’은 가까운 사람 즉, 가족이나 친구 또는 내가 속한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또한 ‘감격스럽다’는 본래 ‘타인의 성취’에 사용되는 유의어이므로 ‘자신의 도움이 반영 여부’의 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뿌듯하다’가 ‘타인의 성취’에 사용되는 경우 자신의 도움이 반영된 경우에 해당한다. 고급 학습자들은 ‘성취’에 있어서 ‘감격스럽다’ 또는 ‘뿌듯하다’가 사용 가능함을 알고 있으나 변별되는 그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벅차다’ 또한 ‘성취’의 상황에서 사용 가능함을 말뭉치 분석에서 밝힌 바 있으나 한국인 모어 화자의 사용 및 인식 양상 분석을 통해 ‘성취’와 관련해서는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의 사용 경향성이 더욱 짙음을 확인하였다.

(2) ‘희생 및 역경’

<표 55> 화용적 변별 정보 ‘희생 및 역경’의 사용 양상 비교

문항	내·외적	문장 및 상황	한국어 모어 화자			외국인 고급 학습자		
			1위 (%)	2위 (%)	3위 (%)	1위 (%)	2위 (%)	3위 (%)
20	타인	10년 동안 선행을 실천한 사람에 대해	뭉클하다 (56.3)	감격스럽다 (18.8)	찡하다 (11.3)	감격스럽다 (27.5)	뭉클하다 (25.5)	뿌듯하다 (19.6)
21	타인	나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는 감정	찡하다 (85)	뭉클하다 (13.8)	-	찡하다 (49)	뭉클하다 (35.3)	-
12	자신	고시 준비할 때 고생했던 시절을 회상함	찡하다 (67.5)	뭉클하다 (17.5)	-	찡하다 (38.5)	뭉클하다 (25)	뿌듯하다 (13.5)

‘희생 및 역경’의 화용적 정보를 가진 문장에서는 ‘찡하다’와 ‘뭉클하다’의 사용이 가능하다. 문항 20번과 같이 ‘타인’의 ‘희생과 역경’의 상황에서는 ‘뭉클하다’와 ‘찡하다’ 모두 가능하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에서 ‘뭉클하다’가 가장 높은 사용으로 나타난 것은 ‘부정’ 또는 ‘긍정’의 정도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또한 정도성의 변별 정보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0번은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뭉클하다’가 더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아주 다른 사용 양상을 보였는데 20번 문항에서 ‘감격스럽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약소한 차이로 ‘뭉클하다’를 차순위로 선택하였다. 또한 ‘희생 및 역경’의 정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뿌듯하다’를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였는데 12번 문항에서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거의 선택하지 않은 (8.8%) ‘뿌듯하다’를 3순위로 선택하였다. 이것은 고급 학습자들이 ‘뿌듯하다’의 세부적인 변별 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혼동을 겪는 것으로 해석된다. 20번 문항에서 ‘감격스럽다’를 사용한 고급 학습자 A의 면담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A): 사회에 대한 이러한 봉사 정신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럴 때는 뿌듯하다는 작은 따뜻함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도를 미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단어를 쓰지 않고요. 그 안에는 슬프다는 느낌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서 '뭉클하다'랑 '찡하다'를 뺐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해서 감동하면서도 감사해서 '감격스럽다'를 썼습니다. 연): 뭉클하다는 어때요? A): 뭉클하다는 슬프다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슬프다는 느낌이 없어서.

고급 학습자 A는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의 정도성의 차이 그리고 '뭉클하다'와 '찡하다'의 [+슬픔]의 복합감정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뭉클하다'의 '타인의 희생 및 역경'의 정보와 '감격스럽다'의 [+감사함]은 '성취'의 상황이 전제된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고 있지 못했다.

한편 '자신'의 '희생 및 역경'에 대해서는 '찡하다'가 사용되고 '타인'에 대해서는 '찡하다'와 '뭉클하다'가 사용된다는 것을 Ⅱ장의 변별 기제에서 밝힌 바 있는데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면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 '찡하다?' 나): 이거는 내가 고생을 한 걸 생각하니까. 연): 그럼 '뭉클하다'는 어때? 나): 뭉클하다는 잘 안 어울리는 거 같애. 뭉클하다는 진짜 안 어울리는데? 연): 내 고생을 얘기할 때 '찡하다'가 어울린다? 나): 그렇지.

더불어 한국어 모어 화자 (나)는 '뭉클하다'의 사용은 '타인'과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적합하고 특히 '타인'에게 '공감'할 때 '뭉클하다'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어 모어 화자 (다) 또한 '뭉클하다'는 화자가 해당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때 사용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뭉클하다'는 '타인'과 관련한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 감동 표현 어휘

로 이는 다음 살펴볼 '타인의 도움'과 연관성이 있다.

(3) 타인의 도움

<표 56> 화용적 변별 정보 '타인의 도움'의 사용 양상 비교

문항	문장 및 상황	한국어 모어 화자			외국인 고급 학습자		
		1위 (%)	2위 (%)	3위 (%)	1위 (%)	2위 (%)	3위 (%)
11	자주 찾아뵙지 못한 어머니께서 맛있는 걸 보내주심	뭉클하다 (55)	찡하다 (25)	감격스럽다 (13.8)	찡하다 (32.7)	감격스럽다 (26.9)	뭉클하다 (23.1)
19	언니가 적은 월급으로 모은 돈을 내 등록금으로 줌.	뭉클하다 (57.5)	찡하다 (30)	-	감격스럽다 (32.7)	뭉클하다 (30.8)	찡하다 (25)
20	10년 동안 선행을 실천한 사람에 대해	뭉클하다 (56.3)	감격스럽다 (18.8)	찡하다 (11.3)	감격스럽다 (27.5)	뭉클하다 (25.5)	뿌듯하다 (19.6)
27	요즘 자주 접하지 못하는 것을 이웃으로부터 선물 받음	뭉클하다 (50)	감격스럽다[133] (41.3)	-	감격스럽다 (40.4)	뭉클하다 (30.8)	벅차다 (17.3)

'타인의 도움'이 내포된 모든 문항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는 유의어 사용의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모두 '뭉클하다'를 선택한 반면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감격스럽다'와 '찡하다'를 선택하였다. 27번 문항에서 '감격스럽다' 선택한 고급 학습자 A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33) 한국어 모어 화자 (가)는 27번 문항에서 같이 '감격스럽다'를 선택했다. 그러나 (가)의 선택은 '타인의 도움'이 아닌 '구하기 어려운 것을 먹게 됨' 즉, '성취'에 초점을 두어 '감격스럽다'를 선택하였고 [+감사함]의 측면에서는 '뭉클하다'가 더 적합하다고 언급하였다.

A): 이거는 '뿌듯하다'랑 헷갈렸는데 여기서 감사하다는 느낌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감격스럽다'를 썼어요. 단순하게 마음이 따뜻한 거 아니고 감사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감격스럽다'를 썼어요.
연): 아까 '뿌듯하다'랑 '감격스럽다' 헷갈렸다고 했는데 '뿌듯하다'가 가능한 경우는 '보람', '성취'로 봐서 그런 거예요?
A): 그런 거 아니고요. 이웃 사이에서 따뜻함 나누는 그런 거에서 '뿌듯하다'요.
연): 따뜻함? 정이 느껴져요? '뿌듯하다'에서?
A): 네.
연): 그렇구나. 그럼 '뭉클하다'는?
A): 여기에 슬프다는 감정 전혀 없기 때문에. '뭉클하다'랑 '찡하다'는 일차적으로 제거했어요.

고급 학습자 A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감격스럽다'가 '성취'를 기반으로 한 [+감사함]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정보와 '뭉클하다'가 [+슬픔]의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혼재하는 맥락에서도 사용이 가능함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뿌듯하다'가 '따뜻한 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적절하지 않은 의미적 정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뭉클하다'가 '타인의 도움'이라는 변별 정보를 갖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19번과 20번에서도 나타나 고급 학습자들은 '감격스럽다'에 가장 많은 사용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타인의 도움' 정보를 내포한 '뭉클하다'의 정보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더불어 이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인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 이것도 아까 질문 중에 뭐 그 생일 파티 열어주고 그런 거 있었잖아? 이웃집이 나를 생각해줘서 마치 이것도 생일 선물이나 마찬가지지. 서로 이렇게 연대 의식? 공감대가 형성되는 느낌이라. 남과 관련된?
연): 혹시 여기 '감격스럽다'를 쓰면 어때?
나): '감격스럽다'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웃집에 대한 고마움이 많이는 안 느껴지는 것 같아.

한국어 모어 화자 (나)는 27번 문항에 대해 나를 생각해주는 [+감사함]을 느끼고 특히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황에서 '뭉클하다'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또한 '감격스럽다'는 '타인의 도움'의 맥락에서 [+감사함]의 정도가 떨어져 부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타인의 도움'은 '성취'의 맥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순수 '도움'의 관점에서 볼 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뭉클하다'가 더 적절하다. 더불어 '타인의 도움' 정보가 포함된 문항들이 '나를 도와주는 이웃', '남을 돕는 어떤 사람' 등인 점을 보았을 때 '타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꼭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타인'이 되어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3.2. 정도성·격식성·공손성의 변별 정보 사용 비교

Ⅱ장에서 설정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변별 기제는 연구자의 말뭉치 분석만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된 것이다. 코더(Corder, 1981:104)은 언어학자는 알려지지 않은 언어를 기술할 때 문어 자료(textual data)와 직관적(intuitional)인 자료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이들 자료는 관찰적 타당성과 기술적 타당성이라는 두 층위의 타당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문어 자료에만 기초한 기술은 관찰적 타당성 이상을 획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말뭉치 분석을 통해 문어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사후 면담을 통해 직관적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모어 화자들의 직관적 자료를 통해 연구자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주장할 수 없었던 '정도성', '격식성' 그리고 '공손성'에 따른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도출하였다.

1) 정도성

콜린슨(Collinson, 1939; 김광해, 1998:21 재인용)은 유의어간 의미 차이에 관한 9가지 유형을 연구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 '한 쪽이 더 강하다'라는 '정도성'을 제시하였다. 문금현(1989:16-17)의 연구에서 이러한 '정도'

의 점층적 차이를 유의어의 의미 내용상의 차이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정도성'은 유의어를 변별하는 기준이 되고 특히 감정 관련 어휘에서 정도성은 항상 존재한다. 한국어 모어 화자로부터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간의 '감동의 정도성'을 공통적으로 발견하였다. 사용 양상에서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 그리고 '뭉클하다'와 '찡하다'는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유사성이 아주 높은 어휘 짝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도성'의 정보로 두 유의어 쌍의 변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의미 유사성이 매우 높은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 '뭉클하다'와 '찡하다' 그리고 '감격스럽다'와 '뭉클하다'의 변별 기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1)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

면담에 참여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가 모두 '자신의 성취'의 상황에서 쓰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두 어휘를 성취의 '정도성'으로 변별하였다.

연): 16번도 성취한 건데 '감격스럽다'를 썼네? 가): '뿌듯했다'도 맞긴 한데 그것보다는 좀 더 위의 감정? '내 인생에서' 그런 건데 '감격스럽다'가 더 맞아. 감정이 더 커야 되는 거 같애. 연): '뿌듯하다'를 쓰면 감동의 큰 느낌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가): 응. '뿌듯하다'는 그냥 '기쁘다' 정도 밖에 안 되는 느낌.

한국어 모어 화자 (가)는 연극인이 되는 인생의 꿈을 이루는 상황에서 '감격스럽다'를 사용하였고 '뿌듯하다'보다 성취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인식하였다.

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해내서? 나): 응. 조그만 성취. 연): 여기서 '감격스럽다'를 쓰면? 나): 만약 빌딩 전체를 자기가 다 청소했으면 감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무실 정도는 뿌듯한 거?

한국어 모어 화자 (나) 또한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의 정도성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방을 청소했을 때는 ‘뿌듯하다’, 빌딩 전체를 자신이 다 청소했다면 ‘감격스럽다’를 쓴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성취’에 있어서 성취의 정도가 크면 ‘감격스럽다’, 비교적 작으면 ‘뿌듯하다’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감격스럽다’와 ‘뭉클하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감사함] 복합감정을 ‘감격스럽다’와 ‘뭉클하다’의 두 어휘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정도성에서 차이를 느꼈다.

연): 그럼 여기는 ‘감격스러워요’보다 ‘뭉클해요’가 더 어울리는 건 뭘까?
나): 방금 또 생각해봤는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감동과 고마움은 ‘뭉클해요’가 더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연): 타인의 도움?
나): 응, 고마움을 느낄 때 그게 큰 거 같아.

한국어 모어 화자 (나)는 타인의 도움을 통해 느낀 [+감사함]이 더 강조되는 상황에서 ‘감격스럽다’보다는 ‘뭉클하다’가 더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가): 응 그런 느낌. 근데 그러면서도 이웃이 고마워서.
연): ‘감격스럽다’도 감사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가): 응. 그래도 조금 덜 쓰는 것 같아.
연): 그때는 ‘뭉클하다’가 맞다?
가): 응.

(가)는 [+감사함]의 복합감정이 좀 더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뭉클하다’

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대상의 초점이 ‘성취’에 맞춰진다면 ‘감격스럽다’, 초점이 [+감사함]의 감정에 맞춰진다면 ‘뭉클하다’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뭉클하다’와 ‘찡하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뭉클하다’와 ‘찡하다’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사용 가능함을 인식하는 동시에 부정적 감정의 정도성을 활용하여 두 어휘의 차이를 변별하고 있었다.

가) 음……. ‘뭉클했다’는 좀 아닌 거 같은데? 연): 슬퍼서? 가): 그런 거 같은데. 슬플 때는 ‘찡하다’가 더 맞을 것 같고.

(가)는 [+슬픔]이 강조된 상황에서 ‘뭉클하다’보다는 ‘찡하다’의 사용이 더 알맞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 여기 ‘뭉클해요’를 쓰면 어떨 거 같아? 나): 그나마 ‘찡해요’ 다음으로 어울릴 거 같지만 그래도 안 어울려. 연): 왜 그럴까? 나): 여기에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연): 그게 강조돼야 할 것 같아? 나): 응. ‘마음이 아프다’ 이게 강조돼야 할 것 같아.

(나) 또한 ‘마음이 아프다’는 [+슬픔]의 복합감정이 강조될 때와 더불어 [+미안함]이 작용할 때도 ‘뭉클하다’보다 ‘찡하다’가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연): ‘찡해요’말고 ‘뭉클해요’를 선택한 건 왜 일까? 다): 느낌이 찡하다보다 ‘뭉클해요’에서 더 따뜻한 느낌을 받아서.

한국어 모어 화자 (다)는 ‘뭉클하다’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즉, ‘찡하다’가 ‘뭉클하다’보다 비교적 더 부정적인 감정에 사용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도성’의 정보로 의미적 유사성이 매우 높은 세 쌍의 유의어 쌍들의 변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정도성’의 변별 기제가 적용되는 정보에는 ‘성취’의 정도, [+감사함]의 정도, [+슬픔]과 [+미안함]의 정도가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7> ‘감격스럽다’, ‘뭉클하다’, ‘뿌듯하다’, ‘찡하다’의 정도성에 따른 변별 기제

변별 정보	세부 변별 정보	정도 비교
대상	‘성취’의 정도	감격스럽다 > 뿌듯하다
복합감정	[+감사함]의 정도	감격스럽다 < 뭉클하다
복합감정	[+슬픔][+미안함]의 정도	찡하다 > 뭉클하다

정도성의 정보에서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사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감사함]의 정도에 있어서 ‘감격스럽다’와 ‘뭉클하다’를 변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사함]이 강조되는 27번 문항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뭉클하다’를 많이 사용한 반면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감격스럽다’를 사용하였는데, 고급 학습자들이 ‘감격스럽다’와 ‘뭉클하다’의 [+감사함]의 정도성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감격스럽다’의 [+감사함]의 정보가 성취를 전제한다는 세부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2) 격식성

김광해(1998:21)의 연구에서는 유의어 비교를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인가’에 대한 적용 범위에 따라서 유의어 변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문금현(2004:20)에

서도 유의어에는 공적인 상황이나 격식적인 상황에서 더 쓰이는 말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같은 특징은 한자어에서 더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대체로 한자어나 외래어가 더 전문적이고 유식한 표현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으며 공적인 상황이나 격식적인 상황에서 더 쓰인다고 하였다.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 중에 한자어는 '감격(感激)스럽다' 하나인데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이러한 '감격스럽다'의 격식성을 인식하는 모습이었다.

연): 여기에서 '감격스러웠어요'를 쓰면 어떤지? 다): 위 질문에서도 말했듯이 '감격스럽다'는 말은 뭔가 개인적인 상황보다 공적인 상황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한국어 모어 화자 (다)는 '감격스럽다'가 개인적 상황보다 공적인 상황에 더 어울린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감격스럽다' 외에 '벅차다'에도 그러한 격식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인식했다.

연): '벅찬'을 골랐어? 나): 나는 뭔가 이제 어떤 이런 거대한 행사가 시작할 때 그리고 관용어도 있다고 생각해서 가장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

한국어 모어 화자 (나)는 '거대한 행사', 즉 공식적인 자리에서 '벅차다'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식했다. 한국어 모어 화자 (가) 또한 같은 인식 양상을 나타냈다.

연): '벅찹니다' 선택했어? 가): 왠지 '벅차다'를 시상식에서 쓸 것 같아서. 연): 상황상? 가): 응. '감격스럽다'도 쓸 수 있는데..... 근데 비슷해.

한국어 모어 화자 (가)는 시상식의 상황에서 '벅차다'를 선택했다. 시상식은 다수가 모인 자리로 공식석상의 대표적인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벅차다'와 더불어 '감격스럽다' 또한 적절한 어휘로 인식하였다.

한편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감격스럽다’를 교실 안에서 학습한 적은 없으나 고급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만큼 한자를 추측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한국어의 한자어 특징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러한 특징을 통해 ‘감격스럽다’의 변별 정보들을 추측하였다.

C): ‘감격스럽다’ 왜냐면 한자어 한자 볼 때 ‘감’은 감정이고 ‘격’은 극단적이지. 그러면 격은 뭔가 센 느낌? 나는 ‘격’ 봤을 때 ‘격렬하다’ 그 ‘격’인 거 같기도 해서. 격렬하게 감정이 드는? 그런 의미를 추측했으니까.

연): ‘감격스럽다’를 썼네요? A): 여기는 시상식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이고 나는 상을 받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에게 상을 주는 게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감동하고 감사한 일이어서 ‘감격스럽다’를 썼습니다.

그러나 ‘벅차다’의 격식성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식적인 시상식 상황인 17번 문항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감격스럽다(80%)’와 ‘벅차다(18.5%)’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고급 학습자들은 ‘감격스럽다(59.6%)’의 사용 외에 ‘벅차다’의 사용에 있어서 9.6%의 매우 낮은 비율의 양상을 보였다.

3) 공손성

구본관 외(2016):81-82)에 의하면 한국어 화자들은 각각의 상황에 적절한 높임법을 사용하는 격률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을 ‘공손성의 원리(principle of politeness)’라고 하였다. 이 공손성은 높임법이 복잡하게 발달하지 않은 언어에서도 대화의 격률로서 작동한다고 하였다. 한편 문금현(2017)에서는 높임법보다 더 큰 범주로서 공손성을 정의하였다. 공손성이 실현되는 기제에는 상대방을 높여주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친밀감이나 친근함을 표현하려는 마음,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고 부담을 주지 않으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높임법에 의해 실현되는 공손성을 절대적 공

손성이라 하고 그 외에 화용적 기제에 의해 실현되는 공손성을 상대적 공손성이라고 하였다(문금현, 2017:28, 52-53).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은 높임법을 실현시키는 높임 어휘나 겸양어는 아니나 사용에 있어서 화용적인 상황 및 맥락에 따라 상대적 공손성의 실현이 요구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러한 상대적 공손성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로부터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공손성을 인식하는 양상을 발견하였다. 특히 몇몇의 상황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특정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사용이 공손성을 떨어뜨린다고 인식하였다. 먼저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의 공손성 인식 양상을 보도록 한다.

(1)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

연): 만약에 '뿌듯하다'를 쓰면 어때? 가): 그럼 너무 조금 오만해 보일 것 같아. 연): 그래? 가): '내가 잘해서 성취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 겸손이 덜 들어간 느낌? 열심히 하라고 준 상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뉘앙스니까. 뿌듯한 거는 조금 겸손한 상황과는 덜 맞아 보이는데? 연): 겸손하게 보이려면 '감격스럽다'가 낫다? 가): 응.

위의 내용은 기대하지 않았던 상을 받은 여배우가 모두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시상식의 장면인 17번 문항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가)의 인식 양상이다. (가)는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 모두 '성취'에 쓰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감격스럽다'의 사용에서 더 공손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뿌듯하다'의 사용은 겸손함이 떨어져 부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17번 문항에서 '뿌듯하다'의 사용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뿌듯하다'를 3순위인 11.5%의 비율로 선택하였다.

(2) ‘뭉클하다’와 ‘감격스럽다’

연): 여기 만약에 ‘감격스러워요’를 쓰면 어떨 것 같아? 나): 뭔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언니한테 돈을 받고 ‘감격스럽다’ 라는 표현을 쓴다면 너무 언니 생각을 안 해주는 느낌이야. 연): 아, 고마운 마음이 안 느껴져? 나): 응. 맞아 맞아.

위의 내용은 언니가 적은 월급으로 모은 돈을 내 등록금을 위해 주는 상황인 19번 문항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 (나)와의 면담 내용이다. 앞서 [+감사함]의 정도성에서 ‘뭉클하다’가 ‘감격스럽다’보다 좀 더 큰 정도성을 갖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 ‘뭉클하다’의 공손성이 인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는 [감사함]을 많이 드러내는 상황에서 [감사함]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감격스럽다’를 쓰는 경우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감격스럽다’가 ‘성취’ 기반의 [+감사함]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19번 문항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57.5%로 ‘뭉클하다’를 사용하였으나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32.7%로 ‘감격스럽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여 ‘뭉클하다’와 ‘감격스럽다’의 [+감사함]과 관련한 공손성 인식에 대한 차이를 보였다.

(3) ‘뭉클하다’와 ‘뿌듯하다’

다): ‘뿌듯하다’랑 ‘뭉클하다’는 지극히 개인적 감정만 표현하는 느낌이고, ‘감격스럽다’는 다수의 상대방에게 감사하다는 점까지 내포된 것처럼 느껴져.

(다)는 ‘감격스럽다’를 사용함으로써 모두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뿌듯하다’와 ‘뭉클하다’는 나의 감정만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다)는 ‘감격스럽다’가 ‘다수’에게 [+감사함]을 표현한다고 언급하였는데, 공손성을 느끼는 것은 혼자인 상황에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관계된 상황에서 작용되므로 ‘혼자서 스스로 이룬 자신의 성취’ 상황에서는 ‘뿌듯하다’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인의 도움이 반영된 자신의 성취’에는 ‘감격스럽다’를 사용하여 공손성을 실현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또한 ‘뿌듯하다’가 [감사함]의 복합감정을 내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한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 ‘감격스럽다’와 ‘뭉클하다’를 공손성 정보를 활용해 변별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타인의 도움’이 반영된 상황에서 공손성에 따른 유의어들의 변별 기제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8> ‘감격스럽다’, ‘뭉클하다’, ‘뿌듯하다’의 공손성에 따른 변별 기제

변별 정보	세부 정보	어휘 사용	공손성 실현 결과	
대상	(타인의 도움이 반영된) 나의 성취	감격스럽다	공손성 실현 O	나의 성취에 대한 겸손 표현
		뿌듯하다	공손성 실현 X	겸손이 표현되지 않고 ‘자신의 성취’에 초점
대상	타인의 도움	뭉클하다	공손성 실현 O	타인의 도움에 대한 감사 표현
		감격스럽다	공손성 실현 X	감사함이 표현되지 않고 ‘자신의 성취’에 초점

이상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감동 표현 감정형 용사 유의어 사용 양상을 비교 및 분석해 보았다.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사용 양상과 사후 면담을 통해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외국인 고급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사용 양상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타난 항목은 복합감정의 의미적 변별 정보인 ‘긍정+부정의 감정’, 화용적 변별 정보인 ‘타인의 도움’이 내포된 문항들이었다. 이 문항들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대부분 ‘뭉클하다’를 사용하였는데 ‘뭉클하다’는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에게 가장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유의

어로 밝혀졌다. 둘째,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뿌듯하다’와 ‘감격스럽다’의 세부적인 변별 정보 내용은 인식하지 못했으나 두 유의어 모두 ‘성취’에서 사용된다는 점과 정도성과 격식성에서 변별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성취’의 문항에서 대부분 ‘뿌듯하다’만 사용하고 ‘감격스럽다’의 사용을 피하는 회피 전략을 보였다. ‘뿌듯하다’는 학습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유의어로 꼽힌 바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의미가 가장 명확한 ‘뿌듯하다’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오류를 피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어휘 사용의 다양성을 보이지 못했다. 셋째, ‘벅차다’는 대표 의미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데 이를 학습한 적이 있는 고급 학습자들은 의미가 전혀 다른 감동 표현에서의 ‘벅차다’의 사용에 있어서 오류를 보였다. 넷째, 정도성·격식성·공손성의 변별 정보 중,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공손성의 정보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가장 많은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감사함]에 관련한 공손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양상이었다. 한편 한자어를 통한 추측으로 ‘감격스럽다’의 격식성과 정도성은 파악하고 있었으나 ‘벅차다’의 격식성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특징들을 미루어 보건대, 고급 수준의 학습자라도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변별 기제 활용 및 사용 양상에 있어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나타내는 차이의 원인으로 여러 요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 다음 절에 이어서 면밀히 규명하도록 하겠다.

3.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 양상 차이 원인 분석

앞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사용 양상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이라도 사용 양상에 있어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중간언어(interlanguage)’로 설명될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는 목표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모국어도 목표어도 아

닌 자신 나름의 언어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를 중간언어라고 한다. 중간언어이론에서는 학습자를 불완전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시행착오와 가설검증의 점진적 과정을 거쳐 규범적인 언어 체계에 근접해가는 지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본다(김정은, 2003:31). 따라서 학습자의 오류는 잘못된 것이 아닌 일종의 학습 과정이며(Corder, 1981) 이러한 중간언어에서의 오류는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중간언어의 오류를 분석하는 일은 학습자의 언어가 목표어에 얼마나 근접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중간언어의 개념을 제시한 셀린커(Selinker, 1972)는 중간언어의 과정 중 하나로 언어 전이(language transfer)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브라운(Brown, 2001)의 연구에서는 이것을 언어 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와 언어 내 전이(intra-lingual transfer)로 분류하였다. 또한, 오류를 중간언어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오류가 나타나는 원인을 언어 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 언어 내 전이(intra-lingual transfer), 학습의 장(context of learning)[134], 의사소통 전략(communication strategy)[135]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브라운(Brown, 2001)의 4가지 오류 원인을 적용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 양상의 차이 원인을 언어 간 전이, 언어 내 전이, 부정적 의사소통 전략, 교육의 한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

134) 학습의 장(context of learning)에서 '장'은 교육이 일어나는 교실을 가리키며, 교실 밖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학습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상황을 가리킨다. 이것은 교사가 설명을 잘못하거나, 학습하고자 하는 구문과 낱말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책이 제시되어 있거나, 훈련을 통해 기계적으로 암기하였으나 적절한 상황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직 배우지 못한 문형이 있을 때 그리고 교실 상황에서 학습한 언어는 딱딱한 문어체적 언어로 구어체를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Brwon, 2001:263) 이는 모두 교육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고 본고에서는 명확한 개념 및 설명을 위해 '교육적 한계'로 명칭을 바꾸어 분류하였다.

135) 의사소통 전략에는 회피 전략과 보상 전략이 있는데(Dörnyei, 1995; Brown, 2001:147 재인용) 보상 전략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학습자가 자신의 발화에 보충하는 전략인 반면 회피 전략은 오류를 피하기 위해 목표어의 어려운 항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이러한 회피 전략이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회피 전략을 고급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어휘 사용 양상 차이의 원인으로 분류하고 어휘 사용의 다양화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부정적인 의사소통 전략'으로 간주하여 이와 같이 명명하였다.

3.1. 언어 간 전이

언어 간 전이는 모국어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간섭을 받아 발생하는 오류이다. 본 연구의 사후 면담에 참여한 외국인 고급 학습자 A, B, C는 각각 중국어, 영어 그리고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한다. 5개의 한국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가 각 언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면담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한국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3.1.1. 동일한 한자어에 의한 의미 오해

외국어 학습자는 목표 언어 단어와 자신의 모국어 번역의 짝으로 암기하는 경향이 있기에 모국어와 목표어에서 어휘의 의미 영역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목표어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생각하는 과확장(overextension)이나 지나치게 좁게 생각하는 미확장(underextension)을 보이기도 한다(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외, 2018). 본고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중 '감격스럽다'는 유일한 한자어이다. 중국어에도 같은 한자어 '感激'가 있으나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학습자 A는 모국어와 목표어의 어휘 의미 영역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하여 '감격스럽다'에 대해 언어 간 전이의 양상을 보였다.

A): '감격스럽다'하고 비슷한 거 있는데 '感激'인데요. 연): 그건 무슨 뜻이죠? A): 감동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고맙다는 느낌이 있어요. 감동보다는 고마움을 더 표현하는 거예요.

'감격'과 같은 한자의 중국어 '感激'는 '성취'보다는 [+감사함]에 초점을 두고 있는 어휘로 한국어의 '감격스럽다'와는 다소 다른 의미를 지닌다. 중국어 어휘 '感激'와 한국어 어휘 '감격'의 의미를 확실히 비교하기 위해 본 조사에 참여한 또 다른 중국인 학습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

어에서 ‘感激’는 ‘감사하다’는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성취’에 대한 사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생 원하던 꿈을 이루었을 때 ‘感激’의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 경우에는 쓰이지 않는 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같은 한자를 쓰는 어휘라도 한국어의 ‘감격’은 [+감사함]의 감정이 항상 ‘성취’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중국어의 ‘感激’는 [+감사함]만 내포된 어휘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감사함]이 강조되어야 하는 상황의 문항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뭉클하다’를 사용하였으나 중국인 고급 학습자 A는 줄곧 ‘감격스럽다’를 사용하여 공손성을 떨어뜨리는 오류를 나타냈다. 많은 중국어권 화자들이 사용 양상 조사에서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한 것으로 짐작되며, 이것은 언어 간 전이 중에서도 중국어와 같은 한자어에 대한 의미 오해의 오류로 볼 수 있다.

3.1.2. 감동 표현 어휘의 일대일 비대응

중국어와 영어 그리고 프랑스어에서 공통적으로 감동 표현 어휘가 한국어만큼 다양하지 않은 것 또한 고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B): 우리 ‘I′m touched’ 그리고 ‘I′m moved’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That′s really touching’, ‘That′s really moving’. 이런 식으로? 가슴을 닿았다, 가슴을 움직였다? (생략) 저한테 ‘뿌듯하다’는 어떤 일을 잘 했을 때. 자부심 느낄 때? 근데 그거는 영어로 하면은 ‘I′m proud?’ 그거는 자기 ‘pride’ 느꼈을 때 그런 거고 ‘touched’랑 ‘moved’는 감정을 많이 느껴서 울 수도 있기도 하고.

영어에서 화자의 감동을 나타낼 때 ‘to be moved/touched’으로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감동(感動)’의 한자를 풀이하면 ‘감정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영어에서 또한 '움직이다(to move)'의 의미로 감동을 표현한다. 그러나 면담 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감동의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어휘 및 표현은 한국어보다 훨씬 적고, 영어에서 일대일로 대응되는 어휘를 찾기 어렵다.

C): '뿌듯하다'는 'fier', '찡하다'는 'émouvant', 나머지 넷 다 'émouvant'가 맞는 거 같은데.

프랑스어에서 또한 '뿌듯하다(fier)'외에 나머지 '감격스럽다', '벅차다', '뭉클하다', '찡하다'는 모두 같은 단어 'émouvant'로 쓸 수 있다. 또한 영어와 같은 맥락으로 'Je suis ému/Je suis touché(나는 감동받았다)'와 같은 문장으로 감동을 표현한다. 한국어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과 비교했을 때 대응되는 어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어휘에 있어서는 단일적인 단어로만 표현되기에 프랑스어권 학습자들도 변별에 있어서 혼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C): 한국어에 신체적 느낌으로 표현하는 단어들 있잖아. 가슴이 답답할 때 이런 거 그런데 우리는 가슴이 답답할 때 한 단어 있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쓰지 않지. 연): 표현 방법이 다르다? C): 응. 왜냐면 '뭉클하다'나 '벅차다' 이런 표현들 보통 가슴 쪽에서 느끼는 표현이잖아. 한국어로 '가슴' 표현하면서 그런 단어 많은데. 조금 더 신체 부위랑 의존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지 프랑스어로.

더불어 신체 부위와 결합하는 연어가 많은 한국어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과 달리 프랑스어는 신체 부위와 결합하지 않는 어휘들이 더 많다. 때문에 학습자 C는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할 때 신체 부위와 결합되는 연어 관계의 활용에 있어서 생소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중국어에는 5개의 한국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에 대응되는 단어가 영어나 프랑스어보다는 비교적 많으나 여전히 일대일 대응되는 단어를 모두 찾기는 어렵다.

A): ‘감격하다’는 ‘感激’인데 다른 거는 네 글자 단어 말하자면 있는 거 같고 ‘뭉클하다’, ‘찡하다’는 찾기가 어려운거 같아요. 단어를 찾아서 표현하기 어려워요. 연): ‘뿌듯하다’의 중국어 뭐죠? A): ‘欣慰’라는 말이 있어요.

그밖에 ‘찡하다’와 비슷한 중국어 단어로 ‘心酸’이 있으나 ‘心酸’는 타인의 희생과 역경 그리고 [+슬픔]외에도 타인과 나를 비교할 때 타인이 더 잘돼서 ‘속이 쓰리다’라는 질투와 관련된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의 ‘찡하다’보다는 의미 영역이 다소 넓은 어휘이다. 따라서 중국어 역시 한국어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이 가진 의미와 완전 일치하는 어휘는 찾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어에서는 문장 차원의 표현이 존재하는데, 특히 문학 작품에서 문어체인 사자성어로 감동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벅차다’의 경우 단일적인 어휘 차원에서는 대응되는 것을 찾기 어려우나 ‘心潮澎湃’, ‘令人振奮’과 같은 사자성어로 표현될 수 있다.

이상 면담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모국어에서 비롯한 언어 전이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우 동일한 한자어에서 비롯된 의미 이해의 오류를 발견하였고, 영어와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은 각각 두 언어와 한국어 감동 표현 어휘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원인에서 비롯하여 부정적인 언어 간 전이로 나타냈다. 이러한 어휘 비대칭은 한국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가 다양하다는 특징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3.2. 언어 내 전이

리차드(Richards, 1971)에 의하면 언어 내 전이에서의 오류는 목표어의 불완전한 학습에 기인한 것으로 목표어 규칙의 과잉 적용 및 불완전한 적용 등으로 발생되는 오류를 말한다. 또한 이것은 학습자의 모국어가 무엇인지와는 관계없이 그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보편적인 학습 전

략에 의하여 발생되는 오류이다(원미진 외, 2019). 김정은(2003:46)에서는 중간언어의 바람직한 연구 방향은 학습자들이 모국어 상황이 달라도 그들이 보이는 중간언어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특징과 체제를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고급 학습자들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이 있어서 한국인 모어 화자들과 차이를 보인 원인에 대해 언어 내 전이의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언어 내 전이에서는 고급 학습자들이 사용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하였는데 먼저, 고급 학습자들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변별 기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변별 기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됨을 발견하였다. 두 번째는 선행 학습한 어휘의 의미를 잘못 확장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3.2.1. 변별 기제 활용의 부족

학습자들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통사적, 의미적 그리고 화용적 변별 기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변별 기제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연어 관계에 대한 지식 부족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및 『한국어교육 어휘내용 개발(4단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어 관계는 '마음/가슴(이) 벅차다/뭉클하다/찡하다/뿌듯하다'와 '코끝(이) 찡하다'이다.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사용 조사 및 면담에서 대체로 이러한 연어 관계를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외에 '눈물 나게 감격스럽다', '벅찬 기대', '벅찬 희망' 등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많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고정적인 결합은 인식하지 못했다. 1번 문항의 '또 하나의 (벅찬) 감동'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92.5%의 아주 높은 비율로 '벅차다'를 선택하였으나 외국인 고급

학습자는 결합이 어색한 ‘감격스럽다’를 44.2%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 또한 연어 관계로 결합될 수 없는 ‘감격스럽다’ 또는 ‘뭉클하다’를 선택하였는데 학습자 A는 ‘벅차다’를 선택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면담에서 연어 관계를 인식했다기보다는 격식성을 근거로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136]

2) 복합감정의 변별 기제 활용 부족

고급 학습자들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변별 기제 중 부정+긍정의 상충되는 복합감정 변별 정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부정과 긍정의 감정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의어는 ‘뭉클하다’인데 고급 학습자들은 5개의 유의어 중 ‘뭉클하다’를 가장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단어로 꼽은 바 있다. ‘뭉클하다’는 5개 유의어 중에 가장 많은 감정을 내포하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복합감정 [+감사함], [+미안함], [+슬픔], [+아쉬움], [+자랑스러움]을 모두 담고 있어서 가장 감정 스펙트럼이 넓은 단어이다. 고급 학습자들이 복합감정의 변별 기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뭉클하다’의 의미적 특성과도 관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잘 알지 못하는 학습자들은 두 감정이 복합되는 상황에서 한쪽의 감정에만 근거하여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주 뵙지 못한 화자의 어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보내주신 11번 문항은 [+감사함]과 [+미안함]의 복합감정이 혼재하는 상황이었고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뭉클하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나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미안함]에만 근거하여 ‘찡하다’를 선택하였다. 또는 ‘뭉클하다’를 적절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왜 그런지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면담에 참여한 고급 학습자 C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슷한 ‘뭉클하다’의 사용을 보여주었으나 사용 양상 조사에

136) 연어 관계 결합을 살펴보는 1번 문항에 대한 학습자 A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A): ‘벅차다’는 사적인 얘기가 아니고 약간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아서 올라오는 느낌인 거 같아요. 특히 나라에서 큰 행사, 올림픽에서 같은.

서 변별 기제가 아닌 소거법의 전략을 활용하여 선택항 중 해당 사항이 없는 유의어들을 소거한 후 ‘뭉클하다’가 남으면 그때 비로소 선택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보아 학습자들은 한국어 모어 화자처럼 ‘뭉클하다’의 복합감정 변별 기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사용 양상에서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사건 및 대상의 변별 기제 활용 부족

(1) 사건

‘기대하지 않은 부정적인 일’의 상황인 21번 문항은 늙은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는 화자의 감정을 나타낸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85%가 ‘찡하다’를 사용하였으나 외국인 고급 학습자는 49%의 비율로 ‘찡하다’를 선택했고 이어서 ‘뭉클하다’를 35.3%의 비율로 선택했다. 면담에 참여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21번 문항에서 ‘뭉클하다’를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는데 이는 ‘찡하다’가 ‘뭉클하다’보다 부정적 상황의 정도성이 크기 때문이다. 모두가 부정적으로 인식할 만한 상황에서는 ‘찡하다’가 적절하며 ‘뭉클하다’를 사용할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부정적 상황에서의 공손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였다.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뭉클하다’와 ‘찡하다’의 부정적 상황의 정도성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공손성의 내포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의 상황에서는 ‘벅차다’만 가능한데 이것은 ‘벅차다’가 미래지향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면담에 참여한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 모두 ‘벅차다’의 이러한 화용적 변별 정보를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했다.

(2) 대상

‘성취’의 상황에서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가 사용된다는 것을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인지하고 있었고, 두 유의어의 정도성에 따른 변별 또한 대체로 알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내적 대상(자신)'에는 '뿌듯하다'를 사용하고 '외적 대상(타인)'에는 '감격스럽다'를 사용한다는 것과 '타인'은 반드시 가까운 사람(가족이나 친구)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대표만 가능하며 '자신의 도움이 반영된 타인의 성취'에는 '뿌듯하다'도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성취'의 정도성에 따라 세분화된 변별 정보들을 모두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타인의 도움'에 대한 감동 표현에 있어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모두 '뭉클하다'를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한 반면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뭉클하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다. 학습자 A를 제외한 면담 참여 학습자들은 '뭉클하다'의 '타인의 도움' 정보를 대체로 인식하였으나 사용 양상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앞서 사용 양상에서 분석하였듯 학습자들은 '뭉클하다'의 변별 기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4) 공손성 및 격식성의 변별 기제 인식 부족

(1) 공손성

'자신'의 성취에 대해 감동을 표현하는 유의어로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의 사용이 모두 가능함을 앞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성취에 대해 겸손을 나타낼 때 '감격스럽다'가 사회적 적절성[137]에 부합한다.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17번 문항의 상황인 어떤 여배우가 상을 수상하고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80%가 '감격스럽다'를 사용했으며 '뿌듯하다'는 전혀 선택되지 않았다. 면담에서도 한국어 모어 화자는 '뿌듯하다'의 사용은 겸손을 표현하지 못해

137) 코더(Corder, 1981:74-75)는 오류 분석에 있어서 적절성의 영역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중 하나가 '사회적 적절성(social appropriateness)'이다. 이는 적절한 스타일의 선택 또는 사회적 상황에 맞는 언어의 사용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학생이 교사에게 "잘 지냈어?"라고 인사한다면 그 말은 문법적으로 맞지만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본다.

공손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같은 문항에서 외국인 고급 학습자는 ‘감격스럽다’를 59.6%로 선택했지만 ‘뿌듯하다’도 11.5%의 비율로 3위에 올랐다. 이는 고급 학습자들이 ‘감격스럽다’가 ‘뿌듯하다’보다 ‘성취’의 감동 표현에 있어 공손성을 더 드러낸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면담에서 B학습자를 제외한 A와 C학습자는 같은 문항에서 ‘감격스럽다’를 선택하였으나 공손성의 이유가 아닌 격식성과 정도성을 근거로 하였다.

19번 문항은 언니가 적은 월급으로 모은 돈을 나의 등록금으로 준 상황에서 감동을 느끼는 화자의 문장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고마움]과 [+미안함]의 상황에서 ‘뭉클하다’가 가장 적절한 표현임을 인식했는데 이 문항에서 ‘감격스럽다’의 사용에 대해 [+고마움] 또는 [+미안함]이 표현되지 않아 공손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어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에서 57.5%로 ‘뭉클하다’가 사용되었다. 반면 같은 문항에서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32.7%의 비율로 ‘감격스럽다’를 1위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공손성 변별 기제를 인식하지 못하여 사회적 적절성의 오류를 드러냈다.

(2) 격식성

격식성은 언어 사용역과 관련하는데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에 따라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사용이 달라짐을 앞서 확인하였다. 시상식 상황을 보여주는 17번 문항은 공적인 자리에서의 ‘성취’에 관련한 감동 표현이 요구되는 문장이다. 공적인 자리에서 감동을 표현하는 유의어로 ‘감격스럽다’와 ‘벅차다’가 있는데 한국어 모어 화자는 80%가 ‘감격스럽다’를 선택했으며 ‘벅차다’ 또한 17.5%인 2위로 사용되었다. 면담에 참여한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학습자 A[138]를 제외한 나머지 B와 C는

138) 면담에 참여한 고급 학습자 A는 중국인 학습자로 ‘감격스럽다’가 한자어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로부터 ‘감격스럽다’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인다는 격식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더불어 ‘벅차다’에 대해서도 그러한 격식성의 성격을 띤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감격스럽다’와 ‘벅차다’의 격식성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더불어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에서 ‘감격스럽다’는 59.6%로 사용되었으나 ‘벅차다’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학습자들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격식성 정보를 잘 파악하지 못해 다양한 어휘 사용을 나타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3.2.2. 잘못된 의미 확장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사용 양상에서 먼저 학습한 어휘의 잘못된 의미 확장에서 기인한 오류를 발견하였다.

B): 제가 생각했을 때 ‘벅차다’는 약간 좀 무겁다는 느낌도 들고 약간 부정적인 느낌도 들어요. 어차피 ‘벅차다’가 그런 뜻도 있잖아요? 연): 아 그래서요? B): ‘어떤 일이 벅차서 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은 ‘벅차다’가 더 어울릴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벅차다’는 세 가지의 다른 의미[139]를 갖고 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및 『한국어교육 어휘내용 개발(4단계)』에서 ‘벅차다’의 의미로 ‘감당하기가 어렵다’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학습하는 ‘벅차다’의 의미이기도 하다.[140]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이 의미를 첫 번째로 표기하고 있으나 감동의 감정 표현에서의 ‘벅차다’는 ‘감격, 기쁨, 희망 따위가 넘칠 듯이 가득하다’의 긍정적인 의미로 첫 번째의 부정

139) 1. 감당하기가 어렵다.
2. 감격, 기쁨, 희망 따위가 넘칠 듯이 가득하다.
3. 숨이 견디기 힘들 만큼 가쁘다.

140)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의 어휘 목록에서 ‘벅차다’의 예문으로 ‘생활이 벅차다’를 제시하고 있고 『한국어교육 어휘내용 개발(4단계)』의 어휘 목록에서는 ‘벅차다’의 유의어로 ‘힘겹다’, 예문으로 ‘일하기가 벅차다’, ‘혼자서 벅차다’, ‘벅찬 일’을 제시하고 있다.

적인 의미와 완전히 상반된다. 면담에서 고급 학습자 B가 첫 번째 의미를 먼저 학습한 바 있음을 확인하였고, 선행 학습된 '벅차다'의 부정적 의미를 잘못 확장하여 부정적 감정 및 상황의 문항에서 '벅차다'를 계속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습자 C 또한 '벅차다'의 정도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나 긍정적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부정적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의미 확장의 오류는 학습자 B뿐만 아니라 다른 고급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에서도 나타났는데 가족 같은 친구와 공항에서 헤어지는 상황인 14번 문항에서 '벅차다'가 11.5%의 비율인 3위로 사용되었다.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로서의 '벅차다'는 부정적 감정이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아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이를 증명하듯 한국인 모어 화자는 같은 문항에서 '벅차다'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벅차다'의 의미적 특성에서 비롯하여 학습자들은 잘못된 의미 확장의 언어 내적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3.3. 부정적 의사소통 전략

의사소통 전략이란 언어 출력 자료에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표현하는가, 즉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는가의 문제에 해당한다(Brown, 2001:141). 브라운(Brown, 2001)은 외국어 학습자들은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전략이 오히려 학습자들의 언어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르네이(Dörnyei,1995:58)의 의사소통 전략 유형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전략은 회피 전략(avoidance strategy)과 보상 전략(compensatory strategy)[141]으로 분류된다(Brown, 2001:147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에 있어서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회피 전략을 사용하여 오류를 피하려는

141) 보상 전략은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우회적 화법(circumlocution), 비언어적 신호(nonlinguistic signals), 언어 전환(code-switching) 등의 유형이 있다(Brown, 2001:146-147).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어휘 사용의 다양화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부정적인 의사소통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 양상 차이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회피 전략이란 목표어의 언어적 어려움 때문에 메시지를 끝내지 못한 채로 포기하거나 어려운 화제 또는 개념을 회피하는 학습자의 양상으로 구문적(syntactic) 회피 또는 의미론적 범주 안에 속하는 어휘적(lexical) 회피로 나타난다(Brown, 2001:147-148). 본 연구의 학습자들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에서 어휘적 회피를 보인 바 있다. 복합감정 변별 정보 [+자랑스러움]과 화용적 변별 정보 '성취'에 있어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뿌듯하다'뿐만 아니라 '감격스럽다' 또한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반면 고급 학습자들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뿌듯하다'에 편중된 사용 경향이 나타났다. 고급 학습자들은 사실상 두 유의어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용 양상에서는 다양한 활용을 보이지 못했다. '감격스럽다'가 학습자들의 사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감격스럽다'에 대한 지식의 구조를 갖고 있으나 이 지식이 아직 내면화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구성된 지식을 위한 사용(출력, output)의 기회 제공이 적었던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호정(2015:15)에서는 지식의 내면화는 지식이 암시화되는 과정 중에 이루어지고 출력 행위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주장하면서 출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출력 가설(Output Hypothesis)에 따르면 유의미한 언어 사용의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목표어에 대한 가설 검증이 계속되고 대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학습과 습득이 나타난다(Swain, 1995). 이에 근거하면 학습자들의 부정적인 회피 전략은 학습자들에게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 출력을 실현하여, 변별 기제 지식을 내면화시킴으로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4. 교육의 한계

교육의 한계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 차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면담에 참여한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5개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중 몇몇의 단어는 교실 밖에서 학습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연): 그럼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뭉클하다' '찡하다', '감격스럽다'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A): 그거는 약간……. '감격스럽다'는 예전에 드라마 <감격시대>를 통해 알고요. '찡하다'도 이제 드라마, 예능을 통해서 알게 된 거 같아요.

학습자 A는 '벅차다'와 '뿌듯하다'를 수업에서 배웠다고 하였으며 '찡하다'와 '감격스럽다'는 TV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스스로 나름의 가설을 세워 자신만의 변별 정보를 구축하였다.

연): 어떻게 배운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거 아니면 수업에서? B): '찡하다'는 수업에서 배운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어떤 친구가 그런 말을 쓰고 아 이거는 정말 '가슴이 찡하다' 이렇게 제가 쓰게 됐고.

학습자 B 또한 '벅차다', '뿌듯하다'는 수업 시간에 학습하였으며 '찡하다'와 '가슴이 찡하다' 와 같은 연어 관계를 한국인 친구에게 듣고 쓰게 되었다고 하였다.

C): '뒷모습 찡하다' 아주 클래식한 표현. 연): 그래요? C): 응,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거 같애.

학습자 C 역시 '찡하다'와 관련한 전형적인 표현을 주변의 한국인들로부터 자주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세 명의 고급 학습자들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에 5개의 유의어가 모두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벅차다'와 '뿌듯하다'만 교실에서 학습한

경험이 있었다. 더불어 '감격스럽다', '뭉클하다', '찡하다'를 교실이나 교재를 통해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학습이 아닌 TV 드라마나 주변의 한국인들을 통해서 배우거나 접하여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잘못된 표현을 학습한 것은 아니지만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변별 정보의 구조가 체계적으로 학습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체적인 지식이 내면화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이 몇몇의 유의어를 교실에서 배우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의 한계는 교재에서도 발견되었다. 브라운(Brown, 2001)이 학습자 중간언어의 오류 원인으로 주장한 '학습의 장(context of learning)'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의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원에서 사용되는 4개의 대표적인 한국어 통합교재를 살펴보았다.[142)]

<표 59> 한국어 통합 교재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제시 현황

어휘	서울대 한국어	연세 한국어	이화 한국어	재미있는 한국어
감격스럽다	O(6A)	X	O(5)	X
벅차다	가슴이 벅차다(6A)	O(4-1)	X	O(4, 6)
뭉클하다	X	X	가슴이 뭉클하다(3-1)	X
찡하다	가슴이 찡하다(4A/5B)	X	가슴이 찡하다(3-1), 코끝이 찡하다(6)	X
뿌듯하다	마음이 뿌듯하다(6A)	O(5-1, 6-1)	O(3-1)	O(4)

142) 서울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원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서울대 한국어』로 1A/B, 2A/B, 3A/B, 4A/B, 5A/B, 6A/B로 구성되어 있고 연세대학교의『연세 한국어』는 1-1/1-2, 2-1/2-2, 3-1/3-2, 4-1/4-2, 5-1/5-2, 6-1/6-2, 이화여자대학교의『이화 한국어』는 1-1/1-2, 2-1/2-2, 3-1/3-2, 4, 5, 6 으로, 그리고 고려대학교의『재미있는 한국어』1, 2, 3, 4, 5, 6로 구성되어 있다.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은 중·고급 단계의 교재에 수록되어 있었으며 제시 현황 표의 괄호에 수록된 교재 단계를 기재하였다.

위의 표에서 정리한대로 교재에서는 5개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을 ‘가슴’과 결합하는 연어 관계로 제시하여 단어들의 통사적 결합관계를 교육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마음’과도 결합된다는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더불어 ‘찡하다’의 아주 전형적인 표현인 ‘코끝이 찡하다’를 제시하는 교재는『이화 한국어』뿐이었다. 또한 5개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 교재는 없었으며 특히『연세 한국어』와『재미있는 한국어』에서는 ‘벅차다’와 ‘뿌듯하다’의 두 어휘만 수록되어 있었다. ‘뭉클하다’외에 나머지 유의어들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서울대 한국어』교재에서는 유의어들 간의 변별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았다. ‘가슴이 찡하다’ 그리고 ‘감격스럽다’의 의미 풀이로 두 단어 모두 ‘to be deeply moved’ 라는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두 단어의 비교 내용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의 의미로 ‘벅차다’를 제시하고 있었으나 『연세 한국어』는 ‘감당하기 힘들다’의 의미로 ‘벅차다’를 제시하였다. 『재미있는 한국어』에서는 중급(4권)에서 부정적 의미의 ‘벅차다’가 있었고 고급(6권)에서 긍정적 의미의 ‘벅차다’가 제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벅차다’의 상반된 두 의미에 대해 비교하는 설명이 없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고급 학습자와의 면담 내용과 교재 분석을 통한 교육적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대학 한국어 통합교재에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5개의 유의어를 모두 제시하지는 않고 있었다. 또한 미묘한 차이를 가지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을 함께 비교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러한 교육의 부재가 학습자들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보일 수 있는 ‘벅차다’는 상반되는 의미 비교에 대한 내용이 없어 학습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교육적 한계로 인해 학습자들은 교실에서 배우지 않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을 교실 밖에서 학습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변별 내용을 체

계적으로 내면화시키지 못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들과 사용 양상의 차이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을 위해서는 각 유의어의 통사적, 의미적 그리고 화용적 변별 정보와 더불어 의미적 인접성이 높은 유의어 짝들을 비교하는 교육 내용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별 기제 중심 내용의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감동을 표현할 때 맥락에 따라 다양한 감동 표현 유의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까지 분석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의 차이 원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적 처치들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Ⅳ.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교육 설계

Ⅲ장에서 살펴본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 양상 차이의 원인을 토대로 Ⅳ장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브라운(Brown, 199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 2014:849 재인용)은 제2 언어 교육과정 개발 단계의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학습자가 특정 언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요구를 찾아내어 분석하고 두 번째로 요구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성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반적인 목적(goals)과 구체적인 목표(objectives)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설정된 목적 및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형에 따라 본 장에서는 교육 설계를 위해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Ⅲ장에서 밝힌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 양상 차이의 원인을 바탕으로 체계화하고자 한다. Ⅲ장의 테스트 조사 및 면담에서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는 다른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 양상을 보인 바 있다. 본고는 이것의 원인으로 언어 간 전이, 언어 내 전이, 부정적 의사소통 전략 그리고 교육의 한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 언어 간 전이와 언어 내 전이는 교육의 부족 및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 유의어의 제시 순서와 더불어 각 유의어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기존의 한국어 통합 교재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유사성이 높은 어휘 짝들을 비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의 교육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 제안하는 교육 방법에서는 학습자들의 부정적 의사소통 전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양한 연습과 활동안을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언어 동기화, 의미성분 그리고 문맥과 맥락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

로 나선형 교육 방법을 통해 많은 고급 학습자들이 나타냈던 잘못된 의미 확장을 방지하는 동시에 복습과 심화 학습을 지향하는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1.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목표

민현식(2008:280)에서는 수업의 성패는 교사의 철저한 준비이며 그 준비는 도달 목표가 분명하고 구체적일 때 명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 목표의 상세한 설정은 수업 후 평가 기준이 되도록 하기에 중요하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브라운(Brown, 1995)의 모형에 따르면 학습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목적 및 목표 설정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설계의 첫걸음이 된다.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에 대한 면담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자.

B): 이럴 때는 이 단어를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 왜지? 이런 거 때문에. 이거는 뿌듯하면서 감정 많이 느낄 때 '감격스럽다?' 이런 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 이런 단어 쓴다. 이럴 땐 안 쓴다. 이런 거죠.

외국인 고급 학습자 B는 한국어 수업에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뿌듯하다'와 '벅차다'만 학습한 경험이 있고 '벅차다' 또한 감동 표현의 의미가 아닌 '일이 감당하기 어려움'의 의미를 학습하였다. 나머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는 수업이 아닌 주위의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많이 사용하여 듣고 학습한 경험이 있다. 이에 대해 상황에 따른 적절한 사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C): 다양하게 구사하고 싶고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글까지 쓰고 싶으면 표현할 줄 알아야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고.

학습자 C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학습에 대해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이 다양한 언어의 구사와 고급스러운 표현 능력을 갖추고 싶다는 요구를 나타냈다.

면담에 참여한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음에도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표현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휘 능력의 간극을 좁히고 싶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급 학습자 B의 학습 요구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앞서 살펴본 고급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과 연결되는 접점이 있다. 따라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고급 학습자들로부터 나타난 오류를 최대한 축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한 교육 목적과 목표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표(objective) 설정은 교육 목적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가리킨다. 한편 교육 목적(goal)은 교육 현장의 실제를 고려하여 구체화한 목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수업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최종 도달점이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 편, 2014:852-853). 이와 관련하여 민현식(2008:278-279)에서도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는 구별된다고 언급하면서, 목적은 일반적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는 구체적인 행동 결과를 제시한다고 하였다. 외국어 어휘 교육 연구에서 내이션(Nation, 2018:637)은 다음과 같은 어휘 학습 목표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표 60> 어휘 학습의 목표(Nation, 2018:637)

어휘 학습의 목표(Nation, 2018:637)	
원리1	학습자는 어떤 어휘를 학습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학습해야 하고, 어떻게 학습해야 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원리2	학습자는 자신의 어휘 사이즈를 계속 늘려가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리에 대해, '원리 1'이 학습의 본질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원리 2'는 그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구본관(2011:35-36)의

연구에서도 국어 어휘 교육의 목표를 여덟 가지로 정리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 부합되는 네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1> 어휘 교육의 목표(구본관, 2011:35-36)

어휘 교육의 목표(구본관, 2011:35-36)	
가	어휘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의 어휘 능력 향상에 있다.
나	어휘 능력이란 어휘에 대한 지식, 어휘에 대한 활용을 포함한다.
다	어휘에 대한 지식은 양적 지식과 질적 지식[143]을 포함한다.
라	어휘 사용 능력에는 표현과 이해 양 측면의 능력을 포함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감동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은 변별 기제를 중심으로 5개 유의어의 통사·의미·화용적 지식을 모두 아우르는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다양한 어휘 사용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2>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의 목적과 목표

한국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의 목적과 목표	
목적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통사·의미·화용적 세부 변별 지식을 통해 다양한 감동 표현을 이해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휘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	첫째, 변별 기제를 활용하여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을 변별할 수 있다.
	둘째, 변별 기제를 활용하여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사용을 상황 및 맥락에 맞게 다양화할 수 있다.

2.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내용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내용을 구체화 및 체계화시키기 위해 먼저 유의어들의 제시 순서를 위계화하고 통사, 의미, 화용적 변별 기

143) 음운에서 화용, 어휘 관계 지식, 어원, 단어 형성법 등을 가리킨다(구본관, 2011:36).

제를 중심으로 한 각 유의어별 교육 내용과 의미적 유사성이 높은 유의어 짝들을 변별하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2.1. 위계화의 원리에 의한 제시 순서

구본관(2011:53)에서는 교육내용으로 선정된 어휘를 언제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는 위계화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한국어 어휘 항목의 선정과 위계화는 가르치고 배울 어휘 항목을 등급별로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절차이며, 어떤 항목을 선정하고 위계화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구본관 외, 2014:589, 592). 내이션(Nation, 2018:628-629)은 어휘 항목의 위계화에 있어서 특정 항목이 교수요목에 언제 포함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빈도라고 하였다(Sinclair and Renouf, 1988). 매카시(Mcarthy, 2003:123-138; 구본관 외, 2014:592 재인용) 또한 어휘 항목을 선정하는 연구에서 빈도가 높은 낱말이 학습자에게 이해 및 산출을 위한 생존 차원의 목록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기준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항목의 위계화에 있어서 빈도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SJ-RIKS 코퍼스 확장판과 국립국어원의『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를 통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빈도수를 살펴본 바 있는데 이를 모아 빈도 순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3>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빈도수

빈도수 연구 출처		유의어 및 빈도수				
SJ-RIKS 코퍼스 확장판		벅차다 (1744)	뿌듯하다 (1008)	뭉클하다 (745)	찡하다 (428)	감격스럽다 (263)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조남호 (2002)	벅차다 (29)	뿌듯하다 (12)	뭉클하다 (10)	감격스럽다 (7)	찡하다 (7)
	강범모·김홍규 (2009)	벅차다 (286)	뿌듯하다 (167)	뭉클하다 (105)	감격스럽다 (66)	찡하다 (13)

SJ-RIKS 코퍼스 확장판과『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의 빈도수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어휘는 '벅차다'이며 그 다음으로 '뿌듯하다'로 나타났다. 한편 구본관(2014:592)에서는 빈도의 기준을 적용할 시에는 어떤 어휘들이 다른 어휘들보다 더욱 중핵적(core)인지 또는 중심적(central)인지 판단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중심의미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서 고급 학습자들의 오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고급 학습자들이 먼저 학습한 '벅차다'의 '감당하기가 어렵다'의 의미를 잘못 확장하여 감동 표현에 있어서 '벅차다'의 의미를 오해하는 오류를 보인 바 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의 어휘 목록에서 제시하는 '벅차다'의 의미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로 위의 표에서 정리한 빈도수에서 사용된 '벅차다'의 의미가 모두 감동 표현의 '감격, 기쁨, 희망 따위가 넘칠 듯이 가득하다'라고는 볼 수 없다. '뿌듯하다'의 예문은 '마음이 뿌듯하다'로 감정 표현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사후 면담에 참여한 모든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벅차다'와 '뿌듯하다'를 수업에서 학습한 경험이 있었으며 '뿌듯하다'의 사용 및 인식에 가장 큰 자신감을 보였다. 이처럼 고급 학습자들에게 '뿌듯하다'의 난이도는 '벅차다'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현화(2007:19)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문법 항목 배치에 있어서 단순한 것, 난이도가 낮은 것, 빈도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정리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상을 종합하면 감동 표현의 중심의미가 확실하고 난이도가 낮은 ‘뿌듯하다’가 ‘벅차다’보다 먼저 배열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감격스럽다’와 ‘찡하다’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연구마다 다소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SJ-RIKS 코퍼스 확장판에서는 ‘찡하다’의 빈도수가 높았으나 강범모·김홍규(2009)의 연구에서는 ‘감격스럽다’의 빈도수가 더 높았으며 조남호(2002)에서는 두 유의어의 빈도수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감격스럽다’와 ‘찡하다’의 빈도수만으로는 제시 순서를 위계화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에서 제시한 세부 등급 목록을 다시 확인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에서 제시하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은 모두 고급에 해당하나 세부 등급을 살펴보면 ‘감격스럽다’를 제외한 나머지 어휘들이 모두 5급이고 ‘감격스럽다’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6급으로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찡하다’가 ‘감격스럽다’보다 난이도가 낮으므로 먼저 제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어휘 교육의 위계화 원리에 근거하여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을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64>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제시 및 교수 순서

어휘	1.뿌듯하다 ⇒ 2.벅차다 ⇒ 3.뭉클하다 ⇒ 4.찡하다 ⇒ 5.감격스럽다

본 연구에서 위계화의 원리를 통해 제시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수 순서는 ‘뿌듯하다’, ‘벅차다’, ‘뭉클하다’, ‘찡하다’, ‘감격스럽다’순이다. 이어서 다음 절에서는 변별 기제를 중심으로 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2.2. 변별 기제 중심의 교육 내용 구성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사용에 있어

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 언어 간 전이와 언어 내 전이 그리고 교육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원인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교육적 처치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의 구성에 있을 것이다. 특히 학습자들은 변별 기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을 서로 비교하며 변별하는 내용이 교재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는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유의어들의 통사, 의미, 화용적 정보를 학습하고 더불어 의미적 유사성이 높은 유의어 짝들을 비교 및 변별 하여 어휘 사용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변별 기제를 중심으로 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2.2.1. ‘뿌듯하다’의 교육 내용

‘뿌듯하다’는 Ⅲ장의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사용 및 인식 양상에서 살펴보았듯 학습자들이 의미적으로 가장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단어이며 난이도 또한 비교적 낮은 어휘이다. 이에 따라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 중 가장 먼저 교수되어야 할 어휘이기도 하다. ‘뿌듯하다’는 화용적 변별 정보인 ‘성취’와 의미적 변별 정보인 [+자랑스러움]의 복합감정만을 포함한다.

<표 65> ‘뿌듯하다’의 교육 내용

복합감정 변별 정보	[+자랑스러움]			격식성	공손성	정도성
대상 변별 정보	‘성취’					
	내적(자신)	외적(타인)	+	낮음 (사적)	낮음	낮음
	자신의 성취	나의 도움이 반영된 경우				

‘뿌듯하다’의 화용 및 의미적 변별 정보는 ‘성취’에서 나타나는 [+자랑스러움]의 감정이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성취에 대한 감동을 표현하지만 ‘타인’의 성취에 대해서도 나의 도움이 반영된 경우라면 ‘자신의 성취’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사용될 수 있다. ‘자신의 성취’에 기반을 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사적인 상황 및 자리에서 사용되고 이에 따라 성취의 정도성도 비교적 낮을 때 나타난다. 격식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하게 되면 공손성이 떨어지고 겸손하지 않은 표현이 될 수 있다. ‘성취’의 대상과 관련하여 ‘뿌듯하다’는 ‘감격스럽다’와 의미적 유사성이 큰 어휘로 나타나나 기본적으로 가리키는 성취의 내·외적(자신 또는 타인)의 대상이 다르고 격식성, 공손성, 정도성 또한 ‘감격스럽다’가 더 높은 자질을 갖는다. 이에 대한 비교 교육 내용은 ‘뿌듯하다’를 먼저 학습한 후, ‘감격스럽다’의 교육 내용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2.2.2. ‘벅차다’의 교육 내용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벅차다’는 전혀 다른 두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이다.『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에서 ‘벅차다’ 의미를 ‘어떤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로 제시하고 있듯이 학습자들이 ‘벅차다’를 학습할 때 대체로 이 중심의미를 가장 먼저 배우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고급 학습자들은 감동 표현에 있어서 ‘벅차다’의 의미를 인식할 때 의미 확장의 오류를 보였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의미 확장을 하지 않도록 ‘벅차다’의 양면적인 의미를 비교하여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144)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기초사전에는 ‘벅차다’의 의미로 ‘기쁘거나 희망에 차서 가슴이

<표 66> ‘벅차다’의 교육 내용

사전 의미	의미1 : 어떤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 <u>부정</u>		격식성	정도성
	의미2 : 기쁘고 희망에 가득 차다.[144] → <u>긍정 (감동 표현의 의미)</u>			
복합감정 변별 정보	[+감사함], [+자랑스러움]	+		
사건 변별 정보	기대 이상		높음	높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			
대상 변별 정보	타인의 성취			
	자신의 성취			

‘벅차다’의 대표적인 변별 정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의 사건 정보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벅차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변별 정보를 알지 못해 ‘벅차다’의 알맞은 사용을 나타내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벅차다’의 대표 변별 정보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사건’에 있어서 ‘감격스럽다’와 더불어 ‘기대 이상’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을 표현하므로 정도성에 있어서 큰 감동을 나타낸다. 또한 사적인 상황보다는 공적인 상황에서 더 자주 쓰인다. 한편 ‘벅차다’는 [+감사함]의 복합감정과 더불어 [+자랑스러움] 또한 내포하는데 이는 ‘성취’의 대상 변별 정보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성취’에 관해서는 ‘벅차다’보다는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가 더 빈번하게 쓰인다.

2.2.3. ‘뭉클하다’의 교육 내용

‘뭉클하다’는 어떤 감동 표현의 상황에서도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어휘인데 이것은 ‘뭉클하다’가 넓은 감정 스펙트럼을 내포하는 의미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뭉클하다’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된

뿌듯하다.’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슴이 뿌듯하다’는 메타언어로 ‘정의의 순환’의 문제가 되풀이 되므로 ‘가슴이 뿌듯하다’의 부분은 본 연구 교육내용의 의미에 제시하지 않았다.

복합감정 및 상황에 사용된다. 더불어 ‘뭉클하다’가 다른 유의어들과 변별되는 또 다른 정보로는 대상에 있어서 ‘타인(외적 대상)’에 중점을 두는 의미가 강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뭉클하다’는 ‘자신(내적 대상)’의 상황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뭉클하다’의 변별 정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 내용으로 구성한다.

<표 67> ‘뭉클하다’의 교육 내용

<table>
<tr><td rowspan="2">복합감정
변별 정보</td><td>[+감사함], [+미안함],
[+슬픔], [+아쉬움],
[+자랑스러움]</td><td rowspan="3">⇒ <u>‘긍정’</u> + <u>‘부정’</u></td><td rowspan="3">＋</td><td rowspan="2">공손성</td></tr>
<tr><td rowspan="2">사건 변별
정보</td></tr>
<tr><td>기대하지 않은 긍정적인 일</td></tr>
<tr><td rowspan="2">대상 변별
정보</td><td>기대하지 않은 부정적인 일</td><td rowspan="2"><u>‘타인’</u>에 중점</td><td rowspan="2">높음</td></tr>
<tr><td>타인의 희생 및 역경</td></tr>
<tr><td></td><td>타인의 도움</td><td></td><td></td></tr>
</table>

‘뭉클하다’의 의미는 대표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은 상황에서 감동을 표현할 때 기능한다. 이에 따라 [+감사함]의 복합감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이다. ‘타인의 도움’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할 때 ‘뭉클하다’의 공손성은 가장 높으며 이 경우 ‘감격스럽다’와 ‘뿌듯하다’를 쓰게 되면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감사함]의 감정이 표현되지 못하고 공손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또한 ‘타인’의 대상에 있어서 ‘뿌듯하다’와 ‘감격스럽다’는 가까운 타인이나 소속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만 가능하지만 ‘뭉클하다’를 표현하는 ‘타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뭉클하다’는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에게 사용에 있어 가장 어려운 어휘로 나타난 바 있다. 위의 교육 내용을 통해 ‘뭉클하다’의 변별 정보를 이해하도록 하고, 특히 학습자들이 ‘타인의 도움’의 상황에서 [+감사함]을 내포하는 감동을 표현할 때 사회적 적절성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정보도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2.4. ‘찡하다’의 교육 내용

‘찡하다’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 중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휘이다.

<표 68> ‘찡하다’의 교육 내용

<table>
<tr><td>복합감정 변별 정보</td><td>[+감사함], [+미안함], [+슬픔], [+아쉬움]</td><td rowspan="4">⇒ ‘<u>부정</u>’ 강조</td><td rowspan="4">＋</td><td>공손성</td><td>정도성</td></tr>
<tr><td rowspan="2">사건 변별 정보</td><td>기대하지 않은 긍정적인 일</td><td rowspan="3">높음</td><td rowspan="3">높음</td></tr>
<tr><td>기대하지 않은 부정적인 일</td></tr>
<tr><td>대상 변별 정보</td><td>자신의 희생 및 역경</td></tr>
<tr><td></td><td>타인의 희생 및 역경</td></tr>
</table>

‘찡하다’ 또한 ‘긍정+부정’의 감정 및 상황 정보를 내포하지만 부정적 감정을 더욱 강조하게 하는 변별 기제가 있다. 이 때문에 정도성에 있어서 [+슬픔]이나 [+미안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희생 및 역경’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하고자 할 때 ‘찡하다’는 높은 정도성을 가진다. 또한 ‘늙고 아프신 어머니를 바라보는 화자의 감정’과 같이 부정적 감정이 강조되어야 할 상황에서 ‘찡하다’가 아닌 ‘뭉클하다’를 사용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표현되지 않아 공손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부정적 상황에서의 공손성 또한 ‘찡하다’가 ‘뭉클하다’와 변별될 수 있는 정보가 되므로 교육 내용에 함께 포함한다. ‘뭉클하다’와 ‘찡하다’를 비교하는 변별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9> ‘뭉클하다’와 ‘찡하다’의 비교 교육 내용

교육 내용	뭉클하다	찡하다
초점	[+감사함] 복합감정 ⇒ 긍정	[+슬픔], [+미안함] 복합감정 ‘희생 및 역경’ 대상 ⇒ 부정
정도성	**긍정**의 정도: **뭉클하다**>찡하다	**부정**의 정도: **찡하다**>뭉클하다 ⇒ <u>부정적 상황에서 공손성 실현</u>

언급한 바와 같이 ‘뭉클하다’와 ‘찡하다’는 초점과 정도성에 따라 변별될 수 있는데 두 유의어 모두 긍정과 부정적 상황에서 쓰일 수는 있으나, 긍정적 감정이나 상황의 정도성이 높다면 ‘뭉클하다’, 부정적 감정이나 상황의 정도성이 높다면 ‘찡하다’가 주로 사용된다. ‘뭉클하다’와 ‘찡하다’는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어 모어 화자들에게도 의미적 유사성이 높은 만큼 두 유의어의 변별 정보를 비교 정리하여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2.2.5. ‘감격스럽다’의 교육 내용

‘감격스럽다’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중 유일한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어를 활용한 어휘 교육이 가능하다. 한국어 학습자의 수준이 고급에 이를수록 학습하게 되는 한자어의 비중이 많아지는데(마금선, 2012) 본 연구는 외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한자어를 활용한 ‘감격스럽다’의 교육 내용이 적절하다고 본다. ‘감격’에서 ‘감(感)’이 ‘감정’을 나타내고 ‘격(激)’이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는 것과 더불어 ‘기대 이상’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큰 감동을 표현한다는 것을 제시하여 ‘감격스럽다’의 정도성이 높다는 것을 확장시켜 교육할 수 있다.

<표 70> ‘감격스럽다’의 교육 내용

한자어 풀이	감(感): 감정 격(激): 정도가 심하다	⇒	정도성			격식성
사건 변별 정보	기대 이상		높음	+		
대상 변별 정보	자신의 성취		**‘성취’** 초점			높음
	타인의 성취	⇒				
복합감정 변별 정보	[+감사함], [+자랑스러움]					

또한 ‘감격스럽다’는 ‘성취’를 대상으로 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성취’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때 다수의 언중에게 [+감사함]을 나타낸다. ‘뿌듯하다’와 비교하여 ‘감격스럽다’는 정도성이 높으며 공적인 상황에서 더 빈번히 사용된다. 의미적 유사성이 높은 ‘뿌듯하다’와 ‘감격스럽다’를 비교한 교육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구성될 수 있다.

<표 71> ‘뿌듯하다’와 ‘감격스럽다’의 비교 교육 내용

‘성취’ 초점 ⇒	정도성	**감격스럽다**>뿌듯하다	
	격식성	**감격스럽다**>뿌듯하다	
	공손성	**감격스럽다**>뿌듯하다	
	‘성취’ 대상		
	유의어	감격스럽다	뿌듯하다
	기본 대상	타인 성취	자신 성취
	경우에 따라	정도성이 큰 경우 자신의 성취에 가능	‘나의 도움’이 반영된 경우 타인 성취에 가능
	‘타인’ ⇒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또는 소속된 집단의 대표자(국가대표 선수 등)		

정도성, 격식성, 공손성에 따라 ‘뿌듯하다’와 ‘감격스럽다’가 변별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성취’의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차이점과, 공통적으로 ‘성취’에 초점을 두고 ‘뿌듯하다’와 ‘감격스럽다’가 ‘타인’을 대상으로 할 때 ‘타인’이 가리키는 바가 같음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한편 대상과 공손성 기준으로 ‘감격스럽다’는 ‘뿌듯하다’ 및 ‘뭉클하다’와도 변별되는 정보를 지닌다.

<표 72> ‘뿌듯하다’, ‘뭉클하다’, ‘감격스럽다’ 비교 교육 내용

대상	공손성	공손성 실현 결과
‘자신의 성취’	**감격스럽다**>뿌듯하다	**공적**인 상황에서 겸손 표현 ⇓ **격식성** : 감격스럽다 > 뿌듯하다
‘타인의 도움’	**뭉클하다**>감격스럽다	[+감사함] 강조 ⇓ [+감사함]의 **정도성**: 뭉클하다 > 감격스럽다
		‘타인’ ⇒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또는 소속된 집단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도 가능.

‘자신의 성취’를 표현할 때 ‘뿌듯하다’보다 ‘감격스럽다’를 사용하면 공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성취’에 대한 겸손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는 ‘감격스럽다’의 격식성도 나타낸다. 또한 ‘타인의 도움’은 [+감사함]의 정도성이 보다 높은 ‘뭉클하다’를 사용함으로써 [+감사함]을 드러내 공손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제시함으로써 세 유의어의 변별 교육을 꾀할 수 있다. 더불어 ‘타인’이 가리키는 범위로도 ‘뿌듯하다’, ‘뭉클하다’, ‘감격스럽다’를 변별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뿌듯하다’와 ‘감격스럽다’가 사용될 수 있는 ‘성취’ 대상에서 ‘타인’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어야 하지만 ‘뭉클하다’의 ‘타인의 도움’에서 ‘타인’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또는 소속 집단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이 되기도 한다.

한편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언어 간 부정적 전이로 ‘감격스럽다’에 대해 동일한 한자어에서 비롯한 의미 오해를 보인 바 있다. 중국어의 ‘感激’은 ‘성취’나 [+자랑스러움]이 아닌 [+감사함]의 감정에 더 초점이 맞춰진 어휘인 반면, 한국어의 ‘감격스럽다’는 [+감사함]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으나 ‘성취’에 기반한 것으로 같은 한자어라도 두 언어에서의 의미 범주가 다르다. 따라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두 언어의 의미

를 비교 및 설명하여 의미를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3.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방법

2절에서는 변별 기제를 중심으로 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학습자들이 나타낸 언어 간 부정적 전이, 언어 내 부정적 전이, 그리고 교육적 한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급 학습자들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사용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보인 바 있다. 특히 학습자들은 의미적 유사성이 높은 두 어휘 '뿌듯하다'와 '감격스럽다'의 사용에 있어서 '감격스럽다'를 회피하는 어휘적 회피 전략을 나타냈다. 이것은 지식의 구조가 내면화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김호정(2010:23)에 의하면 지식의 내면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량의 연습이라는 출력 과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모어 화자처럼 의식하지 않고도 필요시에 생산해낼 수 있는 지식의 암묵적 실현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어서 기술하게 될 교육 방법에 있어서 연습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출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에 대한 지식 내면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3.1. 변별 기제 교육을 위한 방법

3.1.1. 언어 동기화의 활용

김호정(2010:10)에서는 한국어 문법 '지식'을 '정보'와 비교한 바 있는데 정보가 체계와 구조를 벗어나고 맥락을 떠나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존재한다면 지식은 체계와 구조로서 존재하며 맥락 안에서 존재한다고 하

였다. 앞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 양상에서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보여준 것은 지식이라기보다는 체계화되지 않은 정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에 대한 정보가 지식으로 발전하려면 '의미화'와 '구조화'[145]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중 '의미화'는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문법 정보가 인식의 주체자인 학습자에게 진정으로 이해되는 과정을 뜻한다(김호정, 2010). 이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교육이 학습자에게 이해가 가능하고 쉽도록 이루어진다면 의미화의 과정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설명 가능한 문법'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지언어학의 동기화 이론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 이론은 무조건적 암기식으로 이루어지는 연어 관계나 통사 결합 관계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다.

1) 신체화된 인지의 언어 동기화

본 연구 Ⅱ장에서는 신체와 결합하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연어 관계에 있어서 인지언어학의 신체적 반응과 경험이 언어로 표현된다는 경험주의적 관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은 '신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가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언어는 신체화된 인지의 경험으로 동기화(motivated)되고 은유로 확장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는 주장을 반영한다(Littlemore, 2009). 이러한 언어 동기화 관점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기계적인 암기를 강요하지 않고 특정 표현이 왜 지금과 같은 의미를 갖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학습자들에게 의미를 탐구해보도록 할 수 있기에 깊은 학습과 더 오랜 기억으로 이어지는 심오한 인지적 처리를 지니게 된다(Craik & Lockhart, 1982, Littlemore, 2009:203 재인용). 이와 같은 인지언어학적 관점과 그것의 교육적 효과성을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연어 관계 교육 내용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

145) '구조화 과정'에 대해서는 3.2절의 나선형 교육 방법에서 더 자세히 기술하였다.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연어 관계는 신체와 관련되어 있기에 신체 반응에 따라 동기화된 연어 표현을 제시할 수 있다. ‘감동(感動)’의 어원인 한자를 활용하여 ‘감정(感)’이 움직이는(動) 것’이라는 설명으로 시작하여 감정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있는 곳은 심장이 있는 ‘가슴’이라는 의미적 인접성을 활용하여 ‘마음/가슴(이) 뿌듯하다/벅차다/뭉클하다/찡하다’의 연어 관계를 제시한다.

또한 ‘찡하다’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 중 ‘슬픔’의 감정을 가장 대표하는 어휘이다. ‘슬픔’의 신체적 반응 부위 중 하나인 ‘코’를 활용하여 ‘코/코끝이 찡하다’의 연어로 나타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신체화된 인지의 언어 동기화를 적용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연어 관계 교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3> 동기화를 활용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연어 관계 교육 방법

감정 제시		신체 반응 설명		연어 제시
감동	⇒	감동을 느낄 때 **‘마음’**이 움직인다. ↓ (‘심장’) **‘가슴’**	⇒	마음/가슴(이) ‘뿌듯하다’ ‘벅차다’ ‘뭉클하다’ ‘찡하다’
감동과 슬픔	⇒	슬픔을 느끼고 눈물이 나려고 할 때 **‘코’**가 아프다.	⇒	코/코끝이 ‘찡하다’

위와 같이 감정에 따른 신체 반응의 개연성을 따라 연어 관계를 교육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이해와 기억을 향상시켜 효과적이다.

2) 통사론의 의미적 동기화

리틀모어(Littlemore, 2009:223)는 문법에도 이러한 동기화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동기화의 초점을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에 두어 낱말을 초월하여 관용구 층위에서도 작동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영어에서 이중타동구문과 전치사적구문의 차이를 가르치는 데 적용된 용례를 통해 동기화 개념의 교육적 효과가 예증된다(Littlemore, 2009:238-239).

Alex gave him the book (이중타동 구문)
Alex gave the book to him (전치사적 구문)

이 두 구문은 매우 비슷하지만 인지적 설명을 사용하면 이런 차이가 설명된다. 이중타동 구문은 과정의 '결과'에 초점을 두지만, 전치사적 구문은 '이동'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목적어(또는 '수동자')는 어떤 면에서 단순히 직접목적어가 이동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수령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으로 'Bob taught me all I know'은 가능하지만 '*Bob taught all I know to me'은 가능하지 않는 이유가 설명된다. 이외에 다양한 문법이 동기화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146] 이러한 예들은 의미론과 통사론의 긴밀한 동시성을 예증하며 통사론이 어떻게 의미적으로 동기화되는지 보여준다. 이는 이러한 구문과 패턴이 동사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관점이며 구문문법을 통해 언어를 검토하는 것은 제2언어 교사들에게 수천개의 관련 없는 표현들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에 의존하는 '어휘적 접근법'의 중도를 제공한다. 더불어 '왜' 어떤 낱말이 다른 낱말보다 특정 구문에 더 자연스러운지를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기억하기 쉬운 입력 방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목표언어에서 의미적 유사성이 매우 높은 유의어 간의 미묘한 차이를 가르치는 데 사용된다(Littlemore, 2009:231,240-241).

---

146) 구문문법의 또 다른 분야는 '상태변화' 동사와 관련이 있다(Littlemore, 2009:240)
1) They cleared the road of debris.
2) They emptied the shelves of chocolates.
3)*He mopped the floor of milk.
Levin & Rappaport Hovavs(1991)에 따르면, 'clear'와 'empty'는 '상태변화 동사'이므로 특별한 사태를 유발하는 과정을 가리키며 과정이 아니라 초래된 상태에 초점을 둔다. 'mop'은 행동 자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므로 상태변화 동사가 아니다. 따라서 세 번째 문장은 어색하다.

본고 Ⅱ장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통사적 결합관계 분석에서 각 유의어들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더 자주 결합되는 어휘들이 있는 것을 연구한 바 있다. 인지적 설명을 통한 각 유의어들의 의미적 특성을 교육함으로써 위의 연어 관계 외에 더 자주 결합되는 통합 관계를 가르칠 수 있다.

<표 74> 동기화를 활용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결합관계 교육 방법

어휘	의미적 특성		통사적 결합관계
벅차다	미래 지향적	동기화	**벅찬** + 기대/희망/설렘…
뭉클하다	타인 관계 지향	⇒	**뭉클한** + 사랑/우정/인류애…
찡하다	부정적 감정 초점		**찡한** + 슬픔/아픔…
감격스럽다	성취의 큰 정도성		눈물 나게… + **감격스럽다**

‘미래지향적’ 의미를 가지는 ‘벅차다’는 미래와 관련한 단어들과 결합되고, ‘뭉클하다’는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단어들과 더 자주 결합한다. ‘찡하다’는 부정적 감정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슬픔’, ‘아픔’과 같은 관련 단어들과 빈번히 구성되며 ‘감격스럽다’는 성취의 정도성이 큰 의미적 특성으로 큰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 부사 ‘눈물 나게’와 자주 결합된다. 이러한 의미적 특성으로 ‘눈물나게 감격스럽다’는 빈번히 쓰이지만 ‘눈물나게 뿌듯하다’는 덜 어울리게 된다. 이와 같이 ‘설명 가능한 언어 동기화’를 활용하여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연어 관계와 자주 구성되는 통사적 결합관계를 교육할 수 있다.

3.1.2. 의미성분의 활용

의미성분 분석은 유의관계에 있는 어휘들을 변별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의미적 변별 기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 복합감정의 의미성분 분석을 활용한 바 있다. 의미성분 분석법은 교육적 방법으로도 그 효과가 높다. 주세형(1999)의 연구에 따르면 의미자질 분석법[147]은 학습자의 흥

미를 북돋을 수 있고 의미상 차이점을 변별하는 과정에서 성분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자가 의미를 변별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지식[148]의 증진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교육적 효용성에 근거하여 의미성분을 활용한 복합감정 변별 기제[149]를 교육 내용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한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을 위한 의미성분 분석표이다. Ⅱ장에서 설정된 복합감정의 의미성분 분석에 한국어 모어 화자의 면담을 통해 도출된 [공손성], [격식성], [정도성]을 추가하여 도표화 하였다.

<표 75>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을 위한 의미성분 제시

유의어	감사함	미안함	슬픔	아쉬움	자랑스러움	공손성	격식성	정도성
감격스럽다	+	−	−	−	+	+	+	+
벅차다	+	−	−	−	+	−	+	+
뭉클하다	+	+	+	+	+	+	−	−
찡하다	+	+	+	+	−	+	−	+

147) '의미자질 분석법'은 원문에서 사용된 용어 그대로 기술하였으며 의미성분 분석법과 같은 의미이다.

148) 주로 선언적 지식과 함께 논의되는 절차적 지식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것'(Anita E. Woolfok, 1995:259)이며 학습자가 언어활동에 대해 생각하고 찾으며, 조절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노명완, 1994:23)이다(주세형, 1999:24 재인용).

149) Ⅱ장 3.2.2 참고.

뿌듯하다	−	−	−	−	+	−	−	−

신명선(2008)에서는 유의어에 대한 소집단 토의 등을 활용한 메타언어 활동[150]은 학습자의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언어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는데, 이에 대해 민현식 외(2019:108))에서는 단어에 대한 사전적 지식을 바탕으로 성분을 분석하고 다양한 성분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단어들 간의 의미를 비교하고 정교화 하는 성분분석 활동은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타언어 활동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성분 분석을 활용한 그룹 활동을 통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의미 차이와 공통 의미를 탐구하도록 할 수 있겠다. 주세형(1999:39)에서는 의미성분표를 보고 어떤 단어인지 유추하게 하거나 메타언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유추하게 하는 등 수업에서 의미성분 분석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는데[151] 이러한 활동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주어진 유의어들의 개념을 변별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주세형(1999) 그리고 신명선(2008)의 논점에 근거하여 의미성분 분석법을 활용한 활동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그 교육 방법에 대해 기술하겠다.

150) 메타언어 활동은 언어에 대한 상위 인지 활동을 포함하여 자신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점검하고 조절하며 반성하는 인지 활동이다(민현식 외, 2019:108).

151) 주세형(1999:39)에서 제시한 수업에서 의미성분 분석표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질은 모두 채워지고 몇 개의 단어만 채워진 표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에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유추하도록 한다. 둘째, 메타언어에 해당하는 칸을 비워두고 채우도록 한다.

<표 76> 의미성분 분석을 활용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활동안

뿌듯하다, 벅차다, 뭉클하다, 찡하다, 감격스럽다		
1) 내 친구 민아는 요즘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데도 내 생일을 챙겨주었다. 친구의 따뜻한 마음에 내 마음이 _____.	[감사함]	
	[미안함]	
	[슬픔]	
	[아쉬움]	
	[자랑스러움]	
	[공손성]	
	[격식성]	
	[정도성]	

먼저 <표 75>의 의미성분표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표 76>의 활동안을 준다. 먼저, 활동안의 왼쪽 문장을 읽고 오른쪽의 빈칸에는 문장의 상황에 해당하는 의미성분에 '+' 또는 '-'로 표시하게 한다. 활동지에 표시한 의미성분과 <표 75>를 보고 알맞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를 골라 활동지의 빈칸에 써넣는다. 이 과정은 짝활동으로 이루어지며, 토의를 통해 절차적 지식을 얻는 과정은 학습자로 하여금 의미 차이를 탐구하게 한다. 이러한 활동을 몇 번 거친 후에는 의미성분 표를 보지 않고 복합감정 및 [공손성], [격식성], [정도성]의 차이에 따라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를 적절히 변별하여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1.3. 문맥에서의 상황 맥락 활용

앞서 제안한 의미성분을 활용한 교육 방법은 문맥이 주어지지 않아도 활성화가 가능한 문맥독립적인 교수법이다(주세형, 1999). 그러나 '감정'이 발생하는 상황은 항상 원인이 존재하므로 맥락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감정의 특성에 따라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은 문맥독립적인 자질들뿐만 아니라 문맥에서 주어지는 상황 맥락의 정보들까지 고려해야 비로소 적절한 의미 변별이 이루어진다.

‘맥락’의 개념은 담화 연구에서 ‘상황’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 언어 연구는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며 의미는 맥락에서 기능한다(Firth, 1957)는 이론과 언어 체계는 텍스트 형식으로 실현된 사회적 의미이며 상황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Hymes, 1971)는 논의에 힘입어 오늘날 언어 연구에서 상황 맥락은 언어와 분리되어 언급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맥락은 텍스트 즉, 문맥 속에서 제시될 수 있다.

내이션(Nation, 2018:389,400)은 ‘문맥 학습’이란 학습자의 주의가 텍스트의 메시지에 놓여있는 동안에 읽기나 일상적인 언어 사용의 듣기를 통해 우연적으로 어휘를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어휘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다양하고 풍부한 예시들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어휘 교육에서 문맥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김호정(2010:17)의 연구 또한 의미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분리된 사실이나 명제 형태로 단순하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상황 맥락 속에서 제시되어야 학습자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어휘 교육에서의 상황 맥락의 중요성과 문맥의 유용성에 따르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은 사용 상황이 제시된 문맥을 배제하고는 의미 변별이 적절히 교육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문맥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 맥락을 활용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77> 문맥에서의 상황 맥락을 활용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방법

상황 맥락 정보와 유의어가 포함된 문맥 제시

⇓

의미 변별 정보에 대해 유추

⇓

화용적 변별 기제 명시적 제시

⇓

문맥이 제시된 빈칸 넣기 과제 활동

우선 학습자들에게 변별 기제가 되는 상황 맥락 정보와 교육할 유의어가 포함된 문맥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뿌듯하다'와 '감격스럽다'의 교육에서 변별 기제인 '성취의 정도성'과 '성취의 대상'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장이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뿌듯하다'와 '감격스럽다'의 차이점을 생각해보세요.
1) 오늘 열심히 청소해서 방이 깨끗해졌다. 마음이 **뿌듯하다**. 2) 한 시민 단체가 몇 년의 시도 끝에 국외에 있는 한국의 문화재 반환 성공을 이루었다는 뉴스를 보니 **감격스럽다.** 3) 내 평생 꿈꾸고 준비해온 나만의 호텔을 마침내 열게 되어 **감격스럽다.**

그 다음 학습자들로 하여금 의미 변별 정보에 대해 토의하게 하고, 각 유의어가 쓰이는 상황 정보가 어떻게 다른지 적어보게 한다. 이후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화용적 변별 기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유추한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문맥이 제시된 빈칸에 해당되는 유의어를 넣는 과제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한 변별 정보를 연습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무리한다.

<표 78> 문맥에서의 상황 맥락을 활용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활동안

뿌듯하다, 뭉클하다, 감격스럽다		
문장	변별 정보	
	타인 정보	성취 정보
1) 한 학기 동안 성실하게 공부한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　　).		
2) 불길에 자신의 몸을 던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분들을 생각하면 (　　).		
3) 우리나라의 음악을 알린 방탄소년단의 미국 빌보드 수상 장면을 보니 (　　).		

<표 78>은 문맥에서의 상황 맥락을 활용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활동안을 제안한 것이며 이것은 <표 77>의 4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뿌듯하다', '뭉클하다', '감격스럽다'의 사용이 '타인의 범위', '성취의 대상'에 따라 변별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교수한다. 그 후 <표 78>의 활동안으로 유의어 '뿌듯하다', '뭉클하다', '감격스럽다'의 차이를 변별 정보에 적고 왼쪽의 각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유의어를 골라 쓰게 하는 방법으로 활동 과제를 활용할 수 있다.

3.2. 올바른 의미 확장과 복습·심화학습을 위한 나선형 교육 방법

나선형 교육과정(spiral curriculum)[152]은 브루너(Bruner, 1966)에 의해

처음 제기된 것으로 전후 교육 내용 간의 관련성, 확대성, 심화성이 강조되는 교육을 말한다. 나선형 교육과정의 핵심은 '반복'에 있는데 선행 교육된 내용을 반복하지만 단순 반복이 아닌 심화 확대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육 내용은 변질되지 않도록 하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정도나 수준만 다르게 하여 내용이 점차 심화되어 나가도록 조직 및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흡사 달팽이의 집이 위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넓어지는 나선형의 모습을 본뜬다(전인숙, 2014:15-16).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나선형 교육과정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에 있어 다음 세 가지 측면에 활용될 수 있다.

첫째,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통사·의미·화용적 정보의 교육을 점진적으로 교육함과 동시에 이전 학습 내용과 연결시켜 심화시킬 수 있다. 어휘의 통사·의미·화용적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비로소 해당 어휘에 대한 지식 및 사용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개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통사·의미·화용적 변별정보를 모두 학습해야 각 유의어들을 변별하고 나아가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사·의미·화용적 정보를 모두 한 번에 학습하기에는 학습자에게 인지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153] 따라서 한 번에 하나씩 개별 교수하되 선행된 학습 내용을 반복하여 심화해나가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적용해볼 수 있다.

둘째, 앞서 연구한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사용 양상에서 '벅차다'의 잘못된 의미 확장이 나타난 바 있는데 이것은 '벅차다'의 중심의미를 먼저 학습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벅차다'의 상반된 두 의미를 모두 제시하면서도 두 의미를 비교하는 내용

152) 나선형 교육은 주로 선형 교육과정과 대조된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선형 교육과정은 선행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내용을 계속해서 직선으로 확장시키는 것으로 선생 교육 내용이 반복되지 않는다. 반면 나선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수준과 교육 목적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확장시켜 나가는 동시에 선행 학습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Huanglianmei, 2019:113).

153) 하나의 문법 연습에는 하나의 문법 항목(기능)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나의 문법 항목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더라도 의미별로 나누어서 한 번에 하나씩 제시하는 개별 교수가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외, 2018:331)

을 수록한 국내 대학교의 한국어 통합교재는 없었다.[154] 특히 『재미있는 한국어』에서는 '벅차다'에 대해 부정(4권)과 긍정(6권)의 두 의미를 모두 수록하고 있었으나 단계가 다른 교재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습자가 혼동을 겪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기존의 의미를 반복하면서도 새로운 의미를 학습하여 심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나선형 교육의 방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나선형 한국어 교육과정 구성 방안에 대해 연구한 김재희(2008:65)에서는 나선형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원리 9가지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학습한 기능과 형태라도 반복해서 제시할 수 있다. 2) 하나의 문법 형태가 다양한 상황에서 새로운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 기능과 형태 간에는 일대일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학습한 기능을 새로운 형태로 다시 제시하거나 학습한 형태를 새로운 기능으로 반복해서 제시한다. 그러면 학습자들이 하나의 문법으로 한 가지 기능만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

이 원리를 하나의 형태에 다른 두 기능을 가진 '벅차다'의 교육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먼저 '벅차다'의 중심의미인 '어떤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을 학습한 후[155], 감동 표현 어휘 교육에서 '벅차다'의 두 번째 의미인 '기쁘고 희망에 가득 차다'를 교육한다. 더불어 선행 교육된 첫 번째 의미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둘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의미가 다르게 쓰인 문맥을 제시하면서 구별하도록 심화 학습을 진행한

154) 한국어 통합교재에서는 '벅차다'의 부정적 의미만 제시하거나(연세한국어) 긍정적 의미만 제시하는 경우(서울대한국어)가 있고, 또는 부정적 의미가 먼저 제시되고 다음 급에서 긍정적 의미를 제시하는 경우(재미있는 한국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두 의미를 모두 제시하여 비교하는 교육 내용이 없다는 한계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의미를 복습하고 새로운 의미를 학습하여 심화할 수 있는 나선형 교육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155)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및 『한국어교육 어휘내용 개발(4단계)』에서 '벅차다'의 부정적 범주의 의미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한국어 통합교재에서 또한 '벅차다'의 부정적 의미만 수록하거나 긍정적 의미보다 부정적 의미가 먼저 등장한다. 이에 따라 '벅차다'의 부정적 의미가 좀 더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의미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먼저 학습한다는 가정 하에 나선형 교육 방법을 적용하였음을 밝힌다. 『서울대 한국어』와 같이 긍정적 의미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벅차다'의 교육에 대해서는 4.2.1에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다. 이와 같은 '벅차다'의 나선형 교육 적용 방안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79> '벅차다'의 나선형 교육 적용 방안

1단계		2단계		3단계
중심의미 (부정적 의미)		감동 표현 의미 (긍정적 의미)		반복 + 심화
'어떤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의 의미 제시	⇒	1) '기쁘고 희망에 가득 차다'의 의미 제시 + 2) '벅차다'의 중심의미 반복 제시	⇒	1) '벅차다'의 중심의미 및 감동 표현 의미 상기 + 2) 의미가 다르게 쓰인 용례가 제시된 수업 활동을 통해 심화 학습

이와 같은 '벅차다'의 나선형식 교육은 전혀 다른 '벅차다'의 두 의미를 반복 심화 학습하여 의미 확장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학습자들의 장기 기억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나선형 교육이 적용된 '벅차다'의 교육 방안 중 3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업 활동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표 80> 나선형 교육이 적용된 '벅차다'의 심화학습 활동안

'벅차다'가 쓰인 문장	긍정/부정 의미, 사전적 의미
1. 월급이 너무 적어 생활하기가 **벅차다.**	
2. 이번 여름휴가로 해외여행을 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벅차다.**	

위와 같은 활동안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각 문장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적어보게 하는 것은 선행 학습한 '벅차다'의 의미들을 회상하게 하고, 문맥을 통해 '벅차다'의 다른 두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여 반복 학습

을 심화해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선형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에 대한 '정보'를 '지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김호정(2010)에서는 학습자가 갖고 있는 문법 '정보'를 체계화된 '지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조화'의 과정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구조화 과정이란 새롭게 들어온 정보를 기존의 정보와 새롭게 통합하는 과정을 가리키며 이러한 과정은 한번에 일시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걸쳐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구조화는 기존의 정보를 반복하고 새로운 정보를 심화 확대하는 점에서 나선형 교육과 닮아 있다. 나선형 교육을 적용한 구조화 과정은 학습자로 하여금 목표어와 자신의 중간언어의 간극에 주목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간언어에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해 가는 과정을 겪게 하며(김호정, 2010:19), 여러 차례에 걸쳐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변별 기제에 대한 지식을 비로소 구성할 수 있게 한다.

4.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수 모형 및 실제

4.1.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수 모형

지금까지 한국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을 위한 목표, 내용 그리고 방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마지막으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 및 실제적인 수업 구성과 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날까지 논의되고 있는 외국어 교수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문법교육에서는 P-P-P 모형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어휘교육에서는 O-H-E의 모형이 효과적이라는 논의가 있었다(이지영, 2006). P-P-P 교수 모형은 교사가 가르치기 쉽게 설계된 방법으로 주입식이고 통제적인 방법이지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육법(Thornbury, 1999)으로 언어 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한편 O-H-E 교수 모형은 귀납적

접근을 강조하는 모형으로 담화 속에서 학습자가 알고 있는 어휘, 문맥, 상황 맥락과 함께 새로운 문법 구조와 어휘의 의미를 관찰하여 그 의미와 규칙을 발견하도록 한다(Lewis, 1993). 이지영(2006)과 이종은(2005)에서 제시한 각 교수 모형의 특징을 정리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81> P-P-P 모형과 O-H-E 모형 절차 및 특징 비교

교수 모형		특징	
P-P-P	제시(Presentation)	교사의 제시와 설명	·교사 중심 ·학습 결과 중시 ·언어 지식과 정확성에 초점.
	연습(Practice)	통제된 연습	
	생성(Production)	의사소통 과제를 통한 활용 단계	
O-H-E	관찰(Observation)	인지·인식을 위한 과제	·학습자 중심 ·학습 과정 중시 ·언어 사용과 유창성에 초점
	가설(Hypothesis)	관찰·발견을 위한 과제	
	실험(Experiment)	탐구·시도를 위한 과제	

두 모형의 절차와 특징을 살펴보면 교육의 초점이 매우 상이하고 그에 따른 장·단점 또한 다르다. P-P-P 모형은 학습자의 언어 정확성 교육에 유리하고 O-H-E 모형은 학습자의 언어 유창성 교육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교육에서는 정확성이나 유창성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없고 두 요소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P-P-P 모형과 O-H-E 모형의 장점들로 구성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을 위한 새로운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관찰·가설-일반화-연습-생성'으로 이루어진 교수 모형이며 의사소통 중심 접근방법(CLT: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156]을 바탕으로 한다. 관찰 단계는 입력 자료를 통

156) 의사소통 중심 접근방법(CLT)에서는 실제적이고 유의미한 과업 수행을 위한 언어 사용이 학습을 촉진시킨다는 학습이론을 주장한다. 또한 대화자 간의 이해를 위한 상

해 목표 문법의 특징에 주목하고 관찰하도록 유도하며 가설 단계에서는 목표 문법의 규칙을 발견하고 가설을 형성하도록 한다(Lewis, 1993).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단계를 하나로 묶어 관찰하는 동시에 감동 표현 감정 형용사 유의어들의 변별 정보를 발견하도록 할 것이다. 이로써 학습자들의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리고 나름의 가설을 세우는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 그 다음 학습자들은 스스로 세운 지식을 일반화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관찰 및 가설에서 도출한 지식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명시적인 설명의 효과를 얻게 된다. 그 후 연습을 통해 정확성을 기르고 생성 단계를 통해 유창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특히 생성 단계는 출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정적 의사소통의 전략인 어휘적 회피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스웨인(Swain, 1995)의 출력 가설(Output Hypothesis)에서 학습과 습득을 위해 유의미한 언어 사용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연습은 유의미한 연습이 되어야 하며 교실에서의 대부분의 활동은 짝이나 그룹으로 이루어져 학생과 학생 또는 학생과 교사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마지막 생성 단계에서의 과제는 실제적인 것으로 한다.

4.2.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의 실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적용하여 교육의 실제를 구성하고자 한다. 교육의 실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교실 현장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통합교재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였다. 또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에 맞춤화된 전용 교안도 구성하여 어휘 교육을 도모하였다.

호작용을 중시하며 추측과 실수를 통한 학습 및 전략을 강조한다(Jack C. Richards & Theodore S. Rodgers, 2014).

4.2.1. 한국어 통합교재에 적용한 수업의 실제

한국어 통합교재를 활용하여 실제 교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앞서 분석한 한국어 통합교재 중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를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서울대 한국어』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1) '찡하다'의 연어 관계 학습 (서울대 한국어 5B)

대상	외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
주제	'찡하다'의 연어 관계 학습
교재 단원	서울대 한국어 5B/ 13-2과/ 듣고 말하기 (p.222)
학습 목표	1) 선행 학습한 '찡하다'의 의미를 복습한다. 2) '가슴(이) 찡하다'외에 '코끝(이) 찡하다'의 연어 관계를 학습한다.

'찡하다'는 『서울대 한국어』4B에 이미 제시된 단어이며 5B의 듣기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찡하다'의 연어 관계로 '가슴(이) 찡하다'만 제시되어 있고 가장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코끝(이) 찡하다'의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찡하다'의 의미와 '가슴(이) 찡하다'를 상기하면서 학습을 반복하는 동시에 '코끝(이) 찡하다'의 새로운 연어 관계를 제시하여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나선형 교육 방법을 적용해볼 수 있다. 더불어 언어의 동기화를 활용한 <표 73>에서 제시한 '눈물이 날 때 코가 아프다'의 설명으로 '코끝(이) 찡하다'라는 연어를 교수할 수 있다.

2) '감격스럽다', '벅차다', '뿌듯하다'의 구별 (서울대 한국어 6A)

대상	외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
주제	감동 표현 어휘인 '감격스럽다', '벅차다', '뿌듯하다'의 구별과 사용
교재 단원	서울대 한국어 6A/ 2-1과/ 어휘와 문법 (p.55)

학습 목표	1) ‘벅차다’의 두 가지 의미를 학습한다. 2) ‘감격스럽다’, ‘벅차다’, ‘뿌듯하다’, ‘찡하다’를 구별하고 다양하게 사용한다.

『서울대 한국어』6A에서는 ‘감격스럽다’, ‘벅차다’ 그리고 ‘뿌듯하다’를 제시하고 있다. 이 교재에서는 감동 표현인 긍정적 의미의 ‘벅차다’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부정적 의미의 ‘벅차다’는 좀 더 중심의미가 되므로 함께 교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66>에서 제시한 ‘벅차다’의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벅차다’의 상반된 의미를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한편, 교재의 ‘어휘와 표현’ 항목에 ‘찡하다(4B)’와 ‘감격스럽다(6A)’는 각각 ‘to be deeply moved to a point of heartaching’ 그리고 ‘to be moved deeply’로 풀이되어 있다. ‘찡하다’가 ‘마음이 아프다(heartaching)’는 의미가 붙어 [+슬픔]을 나타내나 단계가 다른 교재에서 ‘to be moved deeply’라는 비슷한 의미 풀이로 학습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찡하다’와 ‘감격스럽다’의 의미 비교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표 82> ‘감격스럽다’와 ‘찡하다’의 비교 교육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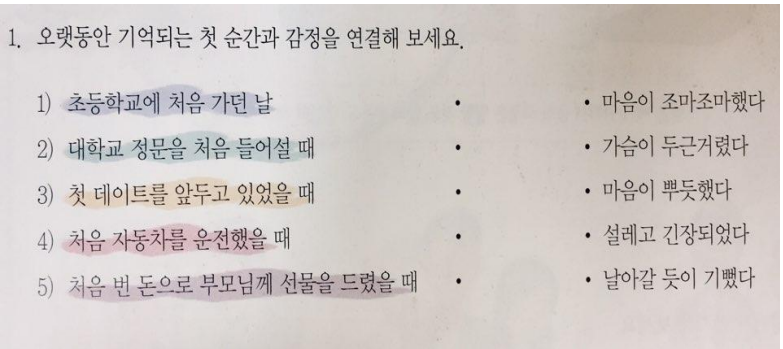
변별 기제와 어휘	감격스럽다	찡하다
연어 관계	X	가슴, 마음, 코/코끝
복합감정	[+자랑스러움], [감사함]	[+슬픔],[아쉬움], [감사함],[미안함]
사건 및 대상	성취	기대하지 않은 부정적인 일 희생/역경

‘감격스럽다’와 ‘찡하다’는 사실상 의미적 유사성이 아주 높은 유의어짝은 아니므로 ‘감격스럽다’는 ‘성취’에, ‘찡하다’는 부정적 감정과 상황에 초점을 두고 교수하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격스럽다’와 ‘벅차다’는 연어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변별이 가능하고, 또한 ‘벅차다’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미래지향적 성격의 변별 기제를 설명해줌으로써 구별하게 할 수 있다. 시간이 가능

하다면 『서울대 한국어』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뭉클하다’를 <표 67>을 활용해 따로 제시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표 72>를 활용하여 ‘감격스럽다’, ‘뭉클하다’, ‘뿌듯하다’를 비교하는 변별 정보를 교수한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한국어』6A의 ‘어휘와 문법’ 항목에서 상황에 맞는 어휘를 고르도록 하는 연습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랫동안 기억되는 첫 순간과 감정을 연결해 보세요.

1) 초등학교에 처음 가던 날 •	•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2) 대학교 정문을 처음 들어설 때 •	• 가슴이 두근거렸다
3) 첫 데이트를 앞두고 있었을 때 •	• 마음이 뿌듯했다
4) 처음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	• 설레고 긴장되었다
5) 처음 번 돈으로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을 때 •	• 날아갈 듯이 기뻤다

[그림 5] 『서울대 한국어 6A』의 2-1과 어휘 연습 문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중 ‘뿌듯하다’외에 ‘감격스럽다’와 ‘벅차다’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적인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위의 연습 문제에 뒤이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연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7) 친구가 홀로 한국에 온 나를 항상 도와줄 때 •	•가슴이 벅찼다
8) 제주도로 여행을 앞두고 •	•뭉클했다
9) 평생 꿈꾸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	•감격스러웠다

이와 같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이 통합교재를 활용하는 실제 수업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통합교재를 활용하는 수업 현장에서는 어휘만 교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어휘 교육을 위한 실제 수업을 구성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절에 이어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4.2.2.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을 위한 어휘 수업의 실제

본 장에서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업 절차를 구성하였다.

대상	외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	
주제	‘감격스럽다’와 나머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를 변별하기	
수업 구성	총 60분	관찰·가설(15분) - 일반화(15분) 연습(15분) - 생성(15분)
학습 목표	1) ‘감격스럽다’와 나머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2)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절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사용을 다양화하여 감동을 표현한다.	

5개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중 ‘감격스럽다’는 가장 마지막으로 교수할 단어이므로 나머지 4개의 유의어들은 이미 학습하였다는 가정하에 ‘감격스럽다’와 나머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변별 기제를 학습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선행 학습된 유의어 변별 정보들을 나선형 교육 방식으로 복습해볼 수 있다.

1) 관찰·가설 (15분)

관찰 및 가설의 단계에서는 교사가 준비한 입력 자료를 관찰하여 ‘감격스럽다’와 나머지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의미 변별 정보를 발견하도록 한다. 관찰과 가설의 단계는 짝활동으로 이루어지며 학습자들이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토의한 내용을 다음 입력 자료의 빈칸에 적도록 한다. 다음은 입력 자료의 예시이다.

다음 문장을 읽고 짝과 함께 **'뿌듯하다'**, **'뭉클하다'**, **'감격스럽다'**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칸에 써보세요.	
1) 오늘 열심히 청소해서 방이 깨끗해졌다. 마음이 **뿌듯하다**. 2) 시민 단체가 몇 년의 시도 끝에 국외에 있는 한국의 문화재 반환 성공을 이루었다는 뉴스를 보니 **감격스럽다.** 3) 내 평생 꿈꾸고 준비해 온 나만의 호텔을 마침내 열게 되어 **감격스럽다.** 4) 10년간 크리스마스마다 빠지지 않고 선행을 베풀었던 어떤 사람에 대한 뉴스를 읽으니 마음이 **뭉클하다.**	

2) 일반화(15분)

'감격스럽다'는 '뭉클하다', '뿌듯하다'와 [공손성], [정도성] 그리고 '성취 여부', '성취 대상', '타인의 범위'의 정보로 변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이 관찰·가설 단계에서 이러한 변별 정보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교사는 <표 75>의 의미성분 표를 활용하여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변별 정보를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더불어 <표 72>을 활용하여 '뭉클하다'와 '뿌듯하다'의 변별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복습의 효과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관찰·가설 단계에서 본인이 쓴 내용과 실제 내용이 같은지 비교하게 하고 본인들이 쓴 내용과 다른 부분은 다른 색깔의 펜으로 고치게 함으로써 지식의 일반화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질문 및 답변하는 시간도 함께 제공한다.

3) 연습 (15분)

연습 단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기계적 연습을 통해 학습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변별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 짝과 대화하여 변별 정보들을 대화 속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연습을 한다. 이러한 유의미한 과제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실현시킬 수 있다.

◆ 연습 1 (5분) - 개인 연습: 알맞은 단어 고르기 과제(기계적 연습)

연습 1에서 제시되는 연습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장	변별 정보
1) 첫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세운 모든 계획을 실천해서 굉장히 (뿌듯하다/뭉클하다/감격스럽다).	
2) 코로나 19(Covid-19)의 최전선에서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낸 어느 할머니의 편지는 저의 마음을 대신 전해준 것 같았어요. 정말 마음이 (뿌듯했어요/뭉클했어요/감격스러웠어요).	
3) 20년 전 저는 물감을 좋아하던 평범한 어린 소녀였어요. 이제는 갤러리를 설립하고 젊은 예술가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루어진 꿈과 제가 도운 젊은 예술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뿌듯합니다/뭉클합니다/감격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족들의 든든한 응원 덕분이었지요.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학습자들은 문장을 읽고 해당되는 변별 정보를 오른쪽 칸에 적는다. 이에 따라 왼쪽의 각 문장에 적절한 유의어를 골라 O 표시를 한다. 연습

1은 개인 활동으로 진행되고 이 단계에서는 의미 변별 정보의 정확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반복과 훈련으로 구성된다.

◆ 연습 2 (10분) - 짝 활동: 보고 대화하기(유의미한 연습)

연습 2에서는 읽기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담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이야기하도록 한다.[157] 이것은 듣기와 동시에 말하기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연습으로 구성된다. 시청각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황과 시청각 자료[158]	감동 표현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1) 한 여배우가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소감을 말하려는 상황[159] (https://www.youtube.com/watch?v=Q6CZ1v-FTkU)	◆ 만약 여러분이 그 여배우라면 어떻게 수상의 감동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2) 목숨을 잃을 뻔한 주인을 구한 동물들의 이야기[160]	◆ 동물들의 이야기를 보고 어떻게 느꼈나요?

157) 내이션(Nation, 2018)에 의하면 문맥 학습은 읽기나 듣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관찰·가설 단계에서 연습 1까지 주로 읽기 자료를 통해 학습 및 교수가 구성되었기에 듣기 자료를 통한 연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자료는 실제 학습자들이 많이 접하는 유튜브(YouTube: https://www.youtube.com)에서 검색하였다. 한편 감정 표현은 말뿐만 아니라 표정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도 포함되기 때문에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iOPk6fZzJB0)	
3) 자신이 만든 음식을 잘 먹는 아기의 모습을 보는 엄마[161] (https://www.youtube.com/watch?v=2c__Xl-2w3o)	◆ 만약 여러분이 영상 속의 엄마라면 아기를 보고 어떤 감정일까요?

먼저 학습자들은 각 시청각 자료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를 생각하도록 한다. 자료를 모두 시청한 후 각 상황에 대해 학습자들은 짝을 지어 대화하도록 한다. 상황별 변별 정보에 따라 적절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를 사용하여 감동을 표현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한다.

4) 생성 (15분)

마지막 생성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학습하고 연습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변별 기제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과제를 수행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유의미한 과제는 가장 실제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학

158) 상황들은 참고용으로 수업안에 제시하였다. 실제 수업에서는 동영상만 시청하도록 하고 자료로 오른쪽 질문들을 주고 이야기하도록 한다.
159) '자신의 성취', [+자랑스러움], [+감사함], [+격식성], [+공손성], [+정도성]의 상황이다.
160) [+감사함], '타인의 도움', '타인의 희생'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161) 자신의 성취, [+자랑스러움], [정도성] 및 [격식성]이 비교적 낮은 상황이다.

습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과제가 주어진다.

다음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5개의 질문 중 2개를 골라 짧은 글을 써보세요.
1) 언제 가장 **뿌듯하다**고 느끼나요? 2)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벅찬** 미래는 무엇인가요? 3) 가장 **뭉클했던** 경험이 무엇인가요? 4) 너무 **찡해서** 눈물이 났던 경험이 있나요? 5) **감격스럽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인가요?

위의 다섯 가지 질문은 학습자들의 실제 경험을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를 활용해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학습한 내용의 실제적인 생성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각 유의어들의 사용에서 연어 관계, 복합감정의 의미적 정보 그리고 대상 및 사건의 화용적 정보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학습한 내용을 모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생성 단계에서는 기능을 통합한 활동이 효과적이므로 대화 후 각 질문에 대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쓰도록 하는 쓰기 활동으로 마무리한다.

이상의 수업안은 '관찰·가설-일반화-연습-생성'으로 이루어진 교수 모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유의미한 과제를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중심 접근 방법(CLT: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을 바탕으로 하였다. 또한 실제적 자료와 유의미한 과제를 활용하여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변별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다양한 감동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본 연구의 교육 설계가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모어 화자의 직관에 가까운 감동 표현과 나아가 감정 표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Ⅴ. 결 론

본고는 한국어 교육의 선행 연구들이 ‘기쁨’, ‘슬픔’과 같은 기본적인 감정 표현의 교육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점과 유의어 변별 교육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한국어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어휘 사용 양상을 단순 비교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고, 면담을 활용한 사용의 이유와 차이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배제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유의어 변별 능력과 사용의 다양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유의어 사용 비교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찾고 사용 차이의 원인을 면밀히 탐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로부터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교육적 처치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급 학습자들은 ‘슬픔’이나 ‘기쁨’ 같은 기본적인 감정 표현을 넘어서서 다채로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방면에서 빈번히 쓰이는 ‘감동’의 감정 표현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한국어 감정형용사는 유의어가 많다는 특징에 따라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감격스럽다’, ‘벅차다’, ‘뭉클하다’, ‘찡하다’, ‘뿌듯하다’를 선정하여 이 유의어들의 변별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변별 기제를 중심으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를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Ⅱ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한국어학 및 한국어 교육학에서의 개념 탐구가 이루어졌다. 감동과 감정형용사의 개념을 고찰하였고 유의어의 의미관계와 변별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변별 기제를 설정하는 전제가 된다. SJ-RIKS 코퍼스 확장판 및 구어체 문어 말뭉치를 활용하여 형태·통사적, 의미적 그리고 화용적 측면에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의 변별 기제를 도출하였고, 각각 연어 관계, 의미성분 분석, 상황 맥락의 사건 및 대상을 중심으로 하였다.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토대로 Ⅲ장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고급 학습자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

용 양상을 조사하였다. 기존의 유의어 연구들이 단순한 사용 조사에 그쳤다면 본 연구는 사후 면담을 통해 '왜' 이러한 어휘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이를 통해 두 집단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 차이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대상은 한국어 고급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로 하여 두 집단의 사용 양상을 비교 및 분석하였고, 나아가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면담을 통해 Ⅱ장에서 밝혀낸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변별 기제를 더욱 정교화 하였다. 두 집단의 사용 비교 결과,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이라도 한국어 모어 화자와 사용 양상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통사, 의미, 화용적 변별 기제를 활용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사적 변별 기제보다 의미 및 화용적 변별 기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5개의 유의어 중 '뭉클하다'의 사용에 가장 혼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모어 화자에 비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두 집단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사용의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범주화하였고 언어 간 전이, 언어 내 전이, 부정적 의사소통 전략, 교육의 한계에서 비롯한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두 집단의 사용 양상 차이의 원인을 바탕으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방안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활용하여 유의어들을 변별하고, 상황 및 맥락에 따른 유의어 사용을 다양화하여 풍부한 감동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뿌듯하다', '벅차다', '뭉클하다', '찡하다', '감격스럽다' 순의 제시 순서를 빈도와 등급 그리고 중심의미를 근거로 위계화하였다. 더불어 변별 기제를 중심으로 각 유의어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고 몇몇의 의미적 유사성이 아주 높은 어휘 짝들을 비교하는 내용 또한 도표화하여 제시하였다. 고급 학습자들이 혼동을 보인 통사, 의미, 화용적 변별 기제 교육을 위해 인지언어학의 동기화, 의미성분 그리고 문

맥 속 상황 맥락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나선형 교육과정의 적용을 통해 학습자들의 의미 확장 오류를 보완하고 복습 및 심화 학습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의 실제 수업안을 제시하기 위해 P-P-P 모형과 O-H-E 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관찰·가설-일반화-연습-생성'의 교수 모형을 구성하였고, 유의미한 과제와 학습자 중심의 학습 이론을 반영하는 의사소통 중심 접근방법(CLT)을 바탕으로 하였다. 실제 교안에는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의 네 가지 기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나선형 교육을 적용하여 선행 학습 내용을 복습 및 심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실제성이 있는 교실 상황에서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통합교재를 활용한 교안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 감정에서 벗어나 그동안 거의 연구된 바 없는 감동 표현을 주제로 하여 그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탐구하였다는 점, 그리고 유의어 사용 양상 조사와 면담을 활용하여 외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 차이의 원인을 탐구하고, 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직관에 가까운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구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용 조사 참여자에 비해 면담 참여자가 적었다는 점과 중국어권, 영어권, 프랑스어권 학습자의 모국어 간섭에서 비롯한 사용 차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본 연구가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감동 표현과 나아가 유의어 변별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한국어 감정 표현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국내 논저】

강현화(2005),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감정 기초 형용사의 유의관계 변별 기제 연구 - 기쁨슬픔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통합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17, 한국어의미학회, pp. 43-64.

강현화(2011), 한국어 교재의 문형유형 분석, 한국어 교육 18(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1-21.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08-2010), 재미있는 한국어(1, 2, 3, 4, 5, 6), 교보문고.

고영근·구본관(2018), 우리말 문법론(개정판), 집문당.

고정희(2010), 시의 정서(emotion)와 기분(stimmung)에 대한 연구, 문학치료연구 14, 한국문학치료학회, pp. 239-271.

구본관 외 20인(2014), 어휘교육론, 사회평론아카데미.

구본관(2011), 어휘 교육의 목표와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pp. 27-59.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2016), 한국어 문법 총론Ⅱ, 집문당.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Ⅰ, 집문당.

국립국어원(2015), 한국어교육 어휘내용 개발(4단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국립국어원.

김경희(2004), 정서심리학, 박영사.

김광해(1989), 현대국어의 유의현상에 대한 연구: 고유어 대 한자어의 일대다 대응 현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김광해(2009), 비슷한 말 반대 말 사전, 도서출판 낱말.

김동환(1999), 틀의미론과 의미구조, 언어과학연구 16, 언어과학회, pp. 73-101.

김석우·최태진(2007), 교육연구방법론, 학지사.

김선영·전후민(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유의어 사전에서의 화용적 정보 기술 방안, 한국사전학 16, 한국사전학회, pp. 30-68.

김세중(1989), 국어 심리형용사문의 몇 가지 문제, 어학연구 25(1), 서울대학교 어학 연구소, pp. 151-165.

김영주(2009), 국어 감정 어휘의 습득, 언어 34(3), 한국언어학회, pp. 441-472.
김은영(2004), 국어 감정동사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응모(2002), 한국어 정서 자동사 낱말밭, 세종출판사.
김일환·양경용(2015), 세종 현대국어 코퍼스의 재발견: SJ-RIKS 코퍼스 확장판, 언어와 정보 사회 24,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pp. 73-94.
김일환·이승연(2012), 형용사 유의어의 공기어 네트워크와 활용 - '안타깝다'류의 형용사를 중심으로, 언어정보 14,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pp. 61-81.
김자랑(2013),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심리형용사 유의어 의미 변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희(2008), 나선형 한국어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남(2001), 국어 형용사의 의미 구조, 한국어 의미학 8, 한국어의미학회, pp. 171-199.
김정남(2005), 국어 형용사의 연구, 역락.
김정은(2003), 한국어교육에서의 중간언어와 오류 분석, 한국어 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29-50.
김정현(2007), 한국어 감정형용사의 유의어 교육 연구: 고빈도 감정 어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채현(2017), 한국어 형용사 교육 방안 연구: 감정형용사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호정(2010),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 지식 의미 재고, 언어과학연구 55, 언어과학회, pp. 1-28.
김호정(2018),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 지식 측정을 위한 문법성 판단 테스트 개발의 쟁점과 과제, 국어교육연구(4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 417-455.
김홍수(1988), 현대국어의 심리동사 구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남지순(1993), 한국어 형용사 구문의 통사적 분류를 위하여: 심리 형용사 구문, 어학연구 29(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pp. 75-105.
마금선(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금현(1989), 현대 국어 유의어의 연구: 유형 분류 및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금현(2000), 구어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한국어 교육 11(2),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pp. 21-61.
문금현(2004), 한국어 유의어의 의미 변별과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5(3),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pp. 65-94.
문금현(2017), 한국어 공손성 표현의 생성 유형별 특징 - 공손성의 강도와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학 82, 국어학회, pp. 27-66.
민현식 외 25인(2019), 국어 의미 교육론, 태학사.
민현식(1994), 개화기 국어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 (111), 국어국문학회, pp. 37-61.
민현식(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과정 구조화 방법론 연구, 국어교육연구 2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 261-334.
박지혜·안재우(2009), 감동 측정을 위한 척도의 개발, 마케팅연구 24(1), 한국마케팅학회, pp. 1-27.
봉미경(2005), 국어 형용사 유의관계의 유형, 언어 사실과 관점 14,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pp. 99-13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4), 한국어교육학 사전, 하우.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주)낱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 공저(2009), 넓은 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 낱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서울대 한국어(1A/B, 2A/B, 3A/B, 4A/B, 5A/B, 6A/B), 문진미디어.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공편(2017),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2(개정 3판), 아카넷.
서희정(2010), 한국어교육에서 감정형용사의 제시 방안 - '아쉽다', '안타깝다', '아깝다', '섭섭하다', '서운하다'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4, 한국언어문학회, pp. 31-59.
손보경(2009), 영화의 욕구분석을 통한 수용자의 감동요소 연구: 영화 <워낭소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영상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명선(2008), 의미, 텍스트, 교육, 한국문화사.
신명선(2009), 국어 표현 과정에서 작용하는 어휘 사용 기제와 그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어의미학 29, 한국어 의미학회, pp. 91-131.

신상근(2014), 외국어교육 연구방법론, 한국문화사.
신순자(1996), 형용사의 분류, 어문논집 6, 숙명여자대학교 어문학연구소, pp. 19-40.
신은주(2008), 국어 감정용언의 양상 고찰: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찬원(2014), 문법교육: 공기 관계를 이용한 심리형용사 교육 방안 연구, 문법교육 20, 한국문법교육학회, pp. 167-195.
안찬원(2016), 정서의 이해와 표현을 위한 감정 어휘 교육 연구, 문법 교육 27, 한국문법교육학회, pp. 123-149.
안찬원(2018), 초등학생 일기에 나타난 심리형용사 사용 양상 연구, 문법 교육 34, 한국문법교육학회, pp. 163-194.
양명희(2007), 국어사전의 유의어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22, 한국어의미학회, pp. 165-184.
연세대 한국어학당(2007, 2008), 연세한국어(1-1/1-2, 2-1/2-2, 3-1/3-2, 4-1/4-2, 5-1/5-2, 6-1/6-2), 연세대 출판부.
원미진 외(2019), 한국어 학습자 언어 자료 분석의 방법과 실제, 한국문화사.
위햇님(2009),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변이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현경(1997), 심리형용사 구문에 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2(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p. 87-119.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유현경(2003), 국어학의 이해: 형용사 Ⅱ, 새국어생활 13(3), 국립국어원, pp. 255-275.
유현경·강현화(2002), 유사관계 어휘정보를 활용한 어휘교육 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p. 243-269.
이강은(1994), 현실의 감동성과 소설의 감동성 - 김하경 『눈뜨는 사람』 심산 『사흘낮 사흘 밤』,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pp. 439-449.
이기연(2014), 어휘 능력 평가의 지평 확대를 위한 소고, 한국어의미학 44, 한국어의미학회, 171-197.
이미지(2014), 말뭉치 분석을 활용한 감정 표현 어휘 교육 연구: '아쉽다', '섭섭하다', '아깝다'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1(38), 동남어문학회, pp. 383-402.

이숙진(2018),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감정형용사 선정과 분류, 한국어문교육 24,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pp. 479-511.
이정목(2008), NSM을 이용한 한국어 '기쁘다'류 심리형용사의 의미 분석과 기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은(2005), 어휘적 접근법을 통한 한국어 의존용언 교육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지영(2006),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담화 능력 배양을 위한 담화 정보 활용, 한국어 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301-331.
이지영(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감정 표현 연구, 한국어 의미학 29, 한국어 의미학회, pp. 201-227.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이화 한국어(1-1/1-2, 2-1/2-2, 3-1/3-2, 4, 5, 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효정(2016), 한국어 감정 어휘의 교육 방안 연구: 유의어 "외롭다, 쓸쓸하다, 고독하다"의 교육 정보 구축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4,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pp. 281-308.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임지룡(2006), 말하는 몸: 감정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장동일·김연종(2017), '말하기 연구'의 경향과 특징-1958년~2014년까지 국내 학술지 논문 분석, 언어와 문화 13(4),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 189-218.
전인숙(2014), 나선형 교육과정을 활용한 이유·원인 연결어미 교육 방안 연구: '-아서',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미지(2015), 유의관계에 있는 감정형용사의 변별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어 고급 학습자와 모국어화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2,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pp. 333-358.
정유진(2019), 감정형용사 'HAPPY' 개념에 대한 어휘적 접근, 국제언어문학 42, 국제언어문학회, pp. 129-150.
주세형(1999), 의미 자질 분석법을 활용한 어휘 교수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경미(2013), 감정 어휘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가진(2017), 초등 국어과 감정 표현 지도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홍열(2005), ‘불쌍하다’ 유의어의 의미고찰, 한국어 의미학 17, 한국어의미학회, pp. 95-124.

최효정(2007), 감동을 주는 말하기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혜정(2018), 한국어 중급 학습자 대상 감정형용사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uang Lianmei(201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감정형용사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Jin ShuYing·이주희(2020),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동 접미사 회피 전략 사용 양상 분석: 말하기 과제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5),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pp. 635-651.

【국외 논저】

Bardovi-Harling, K., & Rose, M., & Nickels, E. L. (Eds.). (2008). The use of conventional expressions of thanking, apologizing, and refusing. Selected Proceedings of the 2007 Second Language Rasearch Forum, 113-130.

Beglar, D., & Hunt, A. (1999). Revising and validating the 2000 word level and university word level vocabulary tests. *Language Testing 16(2)*, 131-162.

Brown, H. D. (2007).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 이흥수 외(역). Pearson Education Korea.

Collinson, W. E. (1939). Comparative synonymics: principles and illustrations.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38(1)*, 54-72.

Corder, S. P. (2011). 중간언어와 오류 분석. 신승용 외(역). 도서출판 박이정.

Corder, S. P. (1967).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5*, 161-170.

Ellis, R. (1993).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structural syllabus. *TESOL Quarterly 27*, 91-113.

Ericsson, K. A., & Simon, H. A. (1993). *Protocol Analysis Verbal Reports as Data.* MIT Press.

Evans, V., & Green, M. (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Jack, C. R., & Theodore, S. R. (2017). 언어 교육의 접근방법과 교수법(3판). 전병만 외(역). 케임브리지.

Jackson, H. (1988). *Words and Their Meaning.* Longman.

Kasper, G. (1992). Pragmatic transfer. *Second Language Research* 8, 203-231.

Kövecses, Z. (2003). *Metaphor and emotion: language, culture, and body in human feel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e, D. (2001).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Lewis, M.(1993). *The Lexical Approach.*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Littlemore, J. (2012). 인지언어학과 외국어 교수법. 김주식 외(역). 소통.

Nation, P. (2018). 외국어 어휘의 교수와 학습(2판). 김창구 외(역). 소통.

Nida, E. A. (1990). 의미분석론. 조항범 역. 탑출판사.

Nunan, D. (2009). 외국어 학습 연구 방법론. 안미란 외(역). 한국문화사.

Ortony, A., & Clore, G. L., & Collins, A. (1988). *The Cognitive Structure of Emo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lutchik, R. (1962). *The Emotions: Facts, Theories, and a New Model.* Random House.

Plutchik, R. (1980). *Emotion: A psychoevolutionary synthesis.* Harper & Row.

Plutchik, R. (2004). 정서심리학. 박권생(역). 학지사.

Richard, J. C. (1971). A Non-contrastive approach to error analysis. *Journal of ELT 25*, 204-219.

Schwarz-Friesel, M. (2014). *Sprache und Emotion.* UTB.

Selinker, L. (1972).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IRAL) 10(3)*, 209-231.

Takahashi, T., & Beebe, L. (1987). The development of pragmatic competence by Japanese learners of English. *JALT Journal 8(2),* 131-155.

Thornbury, S. (2004).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관규(역). 한국문화사.

Ullmann, S. (1995). 의미론(의미과학입문). 남성우(역). 탑출판사.

Watson, D., &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Wilkins, D. A. (1972). *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ing.* Edward Arnold.

【참고 사이트】

(주)낱말, 유의어 대사전 : https://natmal.com
SJ-RIKS 코퍼스 확장판(SJ-RIKS Extension): http://riksdb.korea.ac.kr/
네이버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main
연세한국어사전: https://ilis.yonsei.ac.kr/yonseidic/
유튜브(YouTube) :https://www.youtube.com/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부 록

1. 선다형 유의어 변별성 판단테스트

(1) 기초 정보[162]

한국어 모어 화자
Ⅰ. 기초 정보 :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거나 기입해주십시오. Q1. 성별 Q2. 연령 Q3. 직업(전공 또는 근무분야에 대해 적어주십시오)

외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
Ⅰ. 기초 정보 :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거나 기입해주십시오. Q1. 성별 Q2. 국적 Q3. 연령 Q4. 한국에서 총 거주 기간 Q5. TOPIK을 보유하고 있다면 몇 급을 소지하고 계십니까? Q6. 한국어 공부기간 Q7. 직업(전공 또는 근무분야에 대해 적어주십시오)

(2) 선다형 유의어 변별성 판단테스트 내용

선택항[163]
1. 감격스럽다

162) 선다형 빈칸 채우기 과제를 시행하기 전에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에게 기초 정보에 대한 조사 또한 실시하였다. 두 그룹의 기초 정보 조사 내용은 다소 다르게 진행되었는데 외국인 고급 학습자에게는 국적, 국내 거주 기간, 토픽 보유 여부(몇 급인지), 한국어 공부기간이 포함되었다.

2. 벅차다 3. 뭉클하다 4. 찡하다 5. 뿌듯하다

선다형 유의어 변별성 판단테스트
Ⅱ. 다음에 제시된 문장의 괄호 안에 가장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십시오. 1) 또 하나의 (　　)감동,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열흘간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2) “내 마음은 한국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터키와의 경기 후에 곧 떠나야 하는 히딩크 감독이 한 말입니다.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에 취재진의 가슴도 (　　). 3)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읽을 땐 코끝이 (　　). 4) 부산에서 동거동락한 12년지기 친구가 시집갑니다. 마음 한 구석이 (　). 5) 휴일인 크리스마스에 ‘산타 경찰관’으로 순찰에 나선 순경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　)”고 했다. 6) 우리 작은 딸이 처음으로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왔네요. 너무나 (　　). 7) 출근했는데 동료들과 팀장님께서 몰래 제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놓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줬어요. 너무 고맙고 감동 받아서 이 마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네요. 정말 (　　). 8) 태어날 아이를 설레는 마음으로 몇 달 동안 기다리는 건 부모에게 가슴

163) 부록에 제시한 선택항은 5개 유의어의 기본형이며 각 문항의 괄호에 들어갈 실제 선택항은 각 문맥에 맞는 활용형으로 제시하였다. 각 유의어가 제시된 선택항 번호는 문항 모두 같게 하였다.

(　　) 일이죠.

9)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학교생활을 잊지 못할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울컥하네요. 졸업식이 원래 이렇게 (　　)건가요?

10) 벌써 3번째 공연이 끝나고 마지막 공연만 남았다. 아쉬운 마지막 무대 위에서 인사할 때, 눈물이 날 듯 (　　).

11) 늘 바쁘다고 고향에 못 내려갔는데 어머니께서 어제 우리집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를 보내주셨다.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늘 감사하다. 정말 (　　) 내 마음.

12) 내가 고시 준비를 할 때였다. 그 때 나는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나 여행은 꿈도 못 꿨고,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만 했다. 나는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

13) 영화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슬퍼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남들이 잘 모르는 좋은 영화를 알게 되었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마지막 장면의 여운이 남아서 마음이 (　　).

14) 오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떠나보냈지만 여전히 헤어짐은 힘들다. 지영이는 가족 같았다. 헤어지는 공항에서 나도 엉엉 울었지만 지영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 (　　)

15)드디어 쿠션을 완성했다. 두 달이 걸린 것 같다. 직접 손바느질해서 완성하니까 (　　).

16) 어렸을 적부터 연극인이 되는 것을 꿈꿔왔는데, 제 인생에서 처음 연극을 봤던 극장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되다니, 너무 (　　).

17)(여배우가 상을 받을 때)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서, 기대를 안 했던 상인데.. 받게 되다니 굉장히 (　　).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상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 내가 짝사랑하는 그녀에게 고백했고 그녀가 받아주었다. 그 순간, 마음이 ( ).

19)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언니가 적은 월급으로 매달 모은 돈을 저에게 주었어요. 정말 ( ).

20) 10년 동안 기부하고, 명절 때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했던 그의 선행은 크진 않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무나 선뜻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사회에 대한 봉사 정신에 마음이 ( ).

21) 예쁜 우리 엄마, 요즘 흰머리도 부쩍 늘었고 요즘 아프신 곳이 많아 마음이 아파요. 나 키우시느라 고생 많았던 우리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 ).

22) 하루 종일 먼지 속에서 쓸고 닦아서 깨끗해진 사무실을 바라보고 있으니 뭔가 ( ).

23) 박사과정을 시작한 후로 이번 학기 처음으로 수업을 꽉 채워 들었다. 우여곡절 많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을 잘 받으니 ( ).

24) 주말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서 도와드렸던 고객님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 이럴 때 정말 내 일에 보람을 느끼고 ( ).

25) 며칠 전 이사 간 후배에게 내가 직접 그린 꽃 그림을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직접 그린 그림은 처음 받아본다며 예쁘다고 좋아하는 후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 ).

26) 저하고 7살이 차이나는 남동생이 올해 좋은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떼쓰고 울던 게 어제같은데, 어엿하게 청년으로 자랐네요. 누나로서 ( )

27) 옛날 시골에서나 따먹을 수 있던 무화과. 감사하게도 항상 나를 챙겨주시는 이웃집으로부터 선물 받아서 먹게 돼서 ( ).

28) 운전면허증을 따고 오늘 처음으로 거리에 나왔다. 나도 이제 혼자서 운

전할 수 있게 됐다! 너무도 ( ).

29) 입사 후,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월급을 모아서 내 인생에 처음으로 명품 가방을 샀다. 정말 ( ).

30) 버스로 7시간이나 달려서 밤을 새고 백두산에 도착했다. 눈앞에 펼쳐진 백두산 천지를 보는 순간,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풍경에 너무 ( )

31)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는 우리나라 피겨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피겨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의 선수가 지구 반대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은 정말 ( ).

2. 사후 심층 면담 질문 내용[164] 예시

◆ 학습자 모어에 감동 표현 어휘가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학습자의 모어에서 5개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어휘가 있나요?
◆ 5개의 단어를 배운 적이 있나요? 어디에서 배웠나요?
◆ 5개의 단어 중 가장 확실하게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5개의 단어 중 가장 헷갈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 감정 어휘 혹은 감동 표현 어휘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왜 이 문항에서 이 단어를 선택했나요?
◆ 이 문항에서 다른 선택항은 어떤가요?

164) 본 연구의 사후 심층 면담은 반구조화 면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과제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미리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5개의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 유의어들에 대한 학습 여부에 관련한 질문이나 면담 중 공통적으로 진행된 내용에 대해 부록에 정리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 of Korean Synonyms of Emotional Adjectives for Impressive Expressions

-Focusing on Mechanism of Distinguishing synonyms-

Lee Seul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a teaching method that enables advanced Korean language learners to distinguish between synonyms in the same way that native Korean speakers do when using Korean synonyms of emotional adjectives for impressive expressions.

Numerous studies of teaching Korean emotional vocabulary have been focused only on basic emotions, such as joy and sadness. However, advanced Korean learners wish to emulate the nuanced emotional expressions of native Korean speakers beyond the emotional expressions involved in basic daily communication. Due to the fact that there are a vast array of synonyms in Korean emotional vocabulary, advanced Korean learners are unsure when deciding

which emotional adjective synonym to use. Subsequently, what often happens is they utilize an avoidance strategy by using a beginner's vocabulary with which they are more familiar. As a result, even learners with high proficiency will find it difficult to adequately reciprocate the various emotional expressions of native Korean speakers.

Given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shifts attention away from the basic emotions and instead focuses on the expressions of impression, which occur naturally in everyday life, in academia, and in the workplace (e.g. marketing). For this study, five Korean synonyms of emotional adjectives for impressive expressions (감격스럽다, 벅차다, 뭉클하다, 찡하다, and 뿌듯하다) are selected. I suggest a teaching method to distinguish these five synonyms. Using data from in-depth interviews, this study exceeds the limits of previous studies which only examined the aspects of usage from vocabulary users, by not only comparing the usage patterns of native Korean speakers and foreign advanced learners, but also investigating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usage differences learners showed.

In Chapter II of this article, SJ-RIKS corpus (extension version) and social media corpus (Instagram) were used to derive the discrimination mechanism of the five Korean synonyms of emotional adjectives for impressive expressions in terms of syntax, semantics, and pragmatics.

Based on Chapter II, the usage patterns of Korean synonyms of emotional adjectives for impressive expressions were investigated for native Korean speakers and advanced Korean learners in Chapter Ⅲ, and the aspects of these two groups were statistically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SPSS program as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In the section that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native

Korean speakers and advanced Korean learners, the causes of differences were found and classified into four factors: interlingual transfer, intralingual transfer, educational limitations, and negative communication strategy.

In Chapter Ⅳ, based on the causes of differences in usage between these two groups, teaching methods for synonyms of emotional adjectives for impressive expressions were designed. First, I established an objective for such education and then organized the order of teaching (뿌듯하다, 벅차다, 뭉클하다, 찡하다, 감격스럽다) based on word frequency, level of difficulty, and core meaning.

Next, the contents of education for each synonym were determined and comparison content for discrimination education of vocabulary pairs with very high semantic similarities were also evaluated and presented. Regarding education of the mechanism in distinguishing Korean synonyms of emotional adjectives for impressive expressions, the motivation of cognitive linguistics, the semantic composition, and the context of the situation were proposed as an alternative method. Furthermore, by applying a spiral curriculum, this article intends to correct the error in the meaning extension of '벅차다' the learners made, as well as to pursue review and in-depth education.

Finally, to ensure the practicality of vocabulary education in constructing an appropriate teaching plan, a supplemental lesson to Korean textbooks used in the actual classroom was constructed. also, I included a sample teaching plan tailored to Korean synonyms of emotional adjectives for impressive expressions.

To create an effective teaching plan dedicated to the education of Korean synonyms of emotional adjectives for impressive expressions, this study proffered a teaching model: 'Observation & Hypothesis - Generalization - Practice - Production' that combined the advantages

of P-P-P and O-H-E models. This model is based on a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 that reflects meaningful tasks and learner-centered learning theory. This was designed to take advantage of all four functions of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and applying a spiral curriculum enables advanced Korean learners to review their prior knowledge and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the content.

This study is meaningful since it explored the distinguishing mechanism of synonyms for impressive expression, which has rarely been studied, and it devised a teaching plan to enable advanced Korean learners to express emotions similar to the way native Korean speakers do by researching the causes of differences in usage of Korean Synonyms of Emotional Adjectives for Impressive Expressions between advanced Korean learners and native Korean speakers.

Keywords: Impressive expressions, Emotional Adjectives, Synonyms, Mechanism of Distinguishing Synonyms, Collocation, Componential Analysis, Context of Situation, interlanguage, errors, Motivation, spiral curriculum

Student Number: 2018-26447